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조선시대 산수시가의 전개양상과 시세계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고 승 관

2020년 8월

朝鮮時代 山水詩歌의 展開樣相과 詩世界

指導教授 孫 五 圭

高 承 寬

이 論文을 教育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0年 6月

高承寬의 教育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이 남 준	
委 員	金 成 政	
委 員	高 承 桓	
委 員	高 文 容	
委 員	孫 五 圭	

濟州大學校 大學院

2020年 8月

Development Pattern and Poetic Manifestation of the Sansu-Poetry in Chosun Dynasty

Ko, Seung-Gwan
(Supervised by professor Sohn, O-Gyu)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Education

2020.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Sohn, O-Gyu, Prof.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
.....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조선시대 산수시가의 전개양상과 시세계

高承寬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孫 五 圭

한국문학사에서 산수시가(山水詩歌)는 시조와 가사를 비롯한 많은 작품을 산출했으며 높은 시가예술적 경계를 개척하였다. 한국의 산수시가가 중국에서 유입된 이후 한국문학화 되었다는 점은 동양문학의 보편적 예술형식 속에서 자체적으로 극대화되어 독창적인 문예사조로서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산수시가는 자연에 대한 한국인의 미감과 미에 대한 인식의 영역을 하나의 의상(意象, image)으로 형상화한 문학이다. 산수시가에서의 ‘산수(山水)’는 ‘산(山)’과 ‘물(水)’로 대유되는 ‘자연(自然)’과 자연경물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자연경물의 아름다움(美)을 노래하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문학세계에서 자연물을 대상으로 작가의 미감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때 자연경물의 현상적 아름다움(美)이 산수시가에서 형식미(形式美)이며, 작가 개인의 미감은 작품에서 서정의 영역으로 형상화된다. 또한 산수는 대자연이라고 하는 우주적 존재로 산수경물이 조화롭게 결합된 세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산수관(山水觀)은 곧 세계관이기도 하고, 미의 원리가 함축되어 있는 독립적 존재이며 미적 이념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산수문학의 하위 양식은 산수시(山水詩), 산수유기(山水遊記), 산수기(山水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산수시는 운문으로 구성된 산수문학이다. 산수유기는 산수

유람 기록으로 창작된 것으로 기행문학적 성격을 가진다. 산수유기와 달리 산수기는 실제의 기행이 아닌 산수에 대한 사실적인 보고와 설명의 성격이 강한 장르이다. 이 연구에서는 산수문학의 산수시(山水詩), 산수시 중에서도 순수 국문학 장르인 시조와 가사, 경기체가 작품을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삼아 이를 ‘산수시가’라고 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한시(漢詩)와 산수유기(山水遊記)도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의 근거로 삼았다.

이 연구는 ‘산수문학’의 하위 양식인 ‘산수시가’의 전개 양상을 포착해내는 과정이다. 산수시가의 중요한 전제 조건은 유학(儒學)이 배경사상이라는 점이다. 조선시대 산수시가는 성리학적 미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그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산수시가 연구는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의 성리학적 배경과 그 안의 미학적 인식의 개념을 발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연구는 유학자의 문학으로 조선시대 산수시가를 확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 작가 개인의 개성을 발굴함으로써 산수문학의 큰 흐름 속에서 산수시가의 다양성을 찾고자 하였다.

한국문학에서 유학은 초기 유학자의 경세학(經世學)에서 중기 이론 중심의 수양론적(修養論的) 성리학, 임병양란(壬丙兩亂) 이후의 실학(實學)으로 이어졌으며, 이론과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경세학과(經世學派)와 사림파(士林派), 도학과(道學派)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또한 사화기 이후 절사림파(士林派)의 등장은 유학적 이념에 따라 많은 유파들이 존재하였다. 이 속에서 보편성 위에 다양한 미감과 개성적 세계를 펼친 조선시대 산수시가의 개성적 문제를 발견하고자 산수시가 전개라는 통시적 연구방법 뿐만 아니라 공시적 연구방법으로서 작품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조에 이르는 한국 사상사의 흐름과 특징, 조선시대 대표적인 작가의 문학세계를 살펴봄으로써 산수시가의 일반적 특징과 전형성, 각 시기의 문학사적인 연속성과 흐름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유학자들의 학문적 관점이나 삶의 시대적 공통점 등의 이유에 대하여 문학세계의 유사성과 보편성의 공유를 전형화하여 각각의 특징으로 분류해 보았으니,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산수시가는 성리학의 발달과 더불어 높은 예술적 경계를 개척

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려 말 안향에 의하여 주자학이 도입된 이래 이식기를 거쳐 고려 말에 이르러 착근기를 맞이하고 조선 건국으로 통치이념으로 새로운 국가적 질서와 가치관을 수립, 역사적으로 유교적 이념은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성리학은 유교의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제시한 조선조 사회의 기반을 형성한 사상적 배경이요, 문화환경으로 산수시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둘째, 치사 후의 귀거래는 사화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관료화된 사회에서 이상향적인 삶으로 인식되었다. 맹사성, 정극인, 이현보는 조선시대 사림중심 성리학적 문학사상에 의해 부화(富華)한 수사적 기교에서 벗어나, 이념적 표상을 형상화하는 기풍을 형성하고 진작·발전시켰다. 맹사성과 이현보는 산수에 은거하였으나, 그 시가 작품은 자기위안적 현실초탈적 이상세계를 지향하였다. 정극인은 현실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사실적 산수미(山水美)와 서정으로서의 산수락(山水樂)을 형상화하였다.

셋째, 사림파는 산수은거를 통한 학문연구와 도의 실천을 통해 대자연의 이법과 조화로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퇴계가 도산은거를 통해 그 이상을 실현하고 「도산십이곡」를 지어 산수문학을 빛냈으며, 회재의 「임거십오영」을 차운하여 동일한 제목의 시를 창작하는 데까지 이른다.

넷째, 김광옥의 「율리유곡(栗里遺曲)」에 형상화된 산수은거와 산수유상을 통한 산수락은 탈속적이지만 인간의 세상과 단절되지 않는다. 시적 자아는 세속적 욕망과 명예로부터 멀어졌으나, 인간이 가진 적절한 욕망이 오히려 산수은거의 삶을 평화롭고 아름다우며 만족스럽게 만든다. 권호문의 시세계와 비교해 볼 때 동일한 처사문학 범위이나, 「율리유곡」이 훨씬 더 반문명적이며 자연친화적이고 탈속적인 시세계를 형상화하였다.

다섯째, 노계의 전원락(田園樂)은 현실초탈적인 산수락과 비교하여 볼 때 삶의 공간으로 표현된다. 노계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산수에서 선비의 은거를 이상으로 삼고 학문수양을 지향점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현실과 이상이 결합된 산수락의 변용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산수관의 근대적 큰 전환점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윤선도의 시가는 현실지향의 의식과 이상이 공존하며 상충하는 갈등과 변민적 요소를 보인다. 그러나 의도적 원립조성으로 갈등을 초월하여 의식적 만

족과 개인적 이상달성의 목표를 성취하였다. 이는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에서 표현되며, 이상지향의 유미적 산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조선시대 산수시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념으로서의 미적 지향이다. 이념의 미는 최고 가치로서의 미이며, 정신적 이상 추구의 미이다. 그래서 시대별 작가의 특징을 밝혀 조선시대 산수시가의 전개 양상과 시세계의 미적 특질을 밝히고자 하였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의 필요성	4
II. 조선시대 성리학의 흐름과 산수시가	13
III. 경국제민의 이상과 귀거래호방	17
1. 맹사성의 致仕燕居와 역군은	18
2. 이현보의 귀거래와 山水遊賞	29
IV. 獨善山林의 이념과 천석고황	45
1. 이황의 천석고황과 왕래풍류	46
2. 권호문의 閑居와 隱居求志	62
V. 도학실천의 자성과 전원회귀	81
1. 김광옥의 율리은거와 한적	81
2. 박인로의 생활공간과 田園躬耕	88

VI. 예학명분의 논쟁과 원림 조성	107
1. 윤선도의 보길도 원림과 독립공간	107
VII. 조선시대 산수시가의 흐름과 의의	129
VIII. 결 론	140
참고 논저	145
<Abstract>	154

I.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한국문학사에서 조선시대는 매우 중요한 위상과 의의를 가진다. 조선 초 한글이 창제됨으로써 순수 국문학의 창작이 가능해졌으며, 시조와 가사문학이 완성되고 발전되어 한국문학의 주류이며 정화로서 그 영속성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성리학을 배경으로 하는 사대부계층이 순수 국문학 창작에 참여함으로써 그 문학적 위상과 예술적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사대부계층은 성리학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성리학의 변천에 따라 문학 속에 형상화되는 산수경물이나 산수의 아름다움에 시적 변용이 발생하였으며, 시기별 작가별 독창성을 창출해냈다.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산수시가는 시조, 가사, 경기체가 등이 그 대상이다. 이 산수시가는 도남이 자연예찬의 성격을 지닌 조선조 문학을 “龔巖 俛仰亭에 의해 唱導되었”으며 “自然美의 發見”¹⁾이라는 문학사적 의의를 밝힌 것에 그 맥이 있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조선시대 산수시가는 다른 시가들에 비하여 사대부를 주 담당층으로 하고 성리학을 그 배경사상으로 하는 특징을 가진 시가양식으로 사용되며 연구가 확산되었다.²⁾

1) 조운제, 『韓國文學史』, 探求堂, 1978, 130~141쪽.

2) 조운제 이후 최진원의 “강호가도”를 시작으로(최진원,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1.), 산수시가는 그 성격과 대상의 범위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며 활발히 연구되었다. 주로 사용된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손오규의 “산수문학”(손오규, 「퇴계의 산수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최동국의 “산수시가”(최동국, 「조선조 산수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와 “산수시조”(최동국, 「조선조 산수시조의 수사적 특성」, 『시조학논총』25, 한국시조학회, 2006.), 하상규의 “자연시가”(하상규, 「한국 자연시가에 끼친 도연명의 영향」,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권정은의 “자연시조”(권정은, 「문답형 자연시조의 유형과 존재 의의」, 『국어국문학』144, 국어국문학회, 2006.), 류해춘의 “산수시조”(류해춘, 「산수시조에 나타난 여가활동 양상」, 『시조학논총』31, 한국시조학회, 2009.), 임주탁의 “사족층의 시조”(임주탁, 「조선시대 사족층의 시조와 일상성 탐론」, 『한국시가연구』29, 한국시가학회, 2010.), 김현정과 이미정의 “강호시조”(김현정, 「강호시조에 나타난 ‘빛’의 유형과 공간성의 관계」, 『겨레어문학』44, 겨레어문학회, 2010. 이미정, 「강호시조에 나타난 나무의 표상적 의

그리고 성리학은 학과와 학맥을 형성하면서 학문적 특징을 계승하였으며, 산수시가 역시 이런 성리학의 변화에 따라 그 전개 양상과 시세계가 각각 달라졌다. 따라서 시기별 작가별로 그 특징적 시세계를 전형화하여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는 산수시가의 다양성과 함께 시기별 문학적 특징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성리학의 변화에 따라 순수 국문학 작품이 있는 사대부, 그 중에서도 성리학이라는 철학의 학문적 관점이 뚜렷한 작가와 작품을 시기별로 나누어 조선시대 산수시가의 전개 양상을 유형화하고 그 시세계의 특징적 요소를 분석해냄으로써 한국 시가에 형상화된 산수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통한 이념으로서의 산수미를 밝히고자 한다.

산수시가는 산수문학의 한 양식이다. 원래 산수문학은 중국 유송시대 사령운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현된 것으로 유학을 배경으로 한, 사실적 서경미를 그 문학적 특징으로 한다. 산수문학은 산수시(山水詩), 산수유기(山水遊記), 산수기(山水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산수시는 산수문학 계열의 서정양식으로 시이며 산수유기와 산수기는 서사양식으로 산문이다. 이 중 산수유기는 산수 유람에 대한 기록의 차원에서 창작된 산수문학 양식으로 기행문적 성격을 가진다. 산수기는 산수유기에 포함시켜 논의하기도 하나, 구분하여 보면 실제의 기행이 부재한 상태에서 산수에 대한 사실적인 보고와 설명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한국문학에서 산수시는 시조, 경기체가, 한시 등이 포함되며 산수유기로는 주로 조선후기에 등장한 기행가사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수기로는 가사작품 가운데서도 작가가 자신이 거처하는 누정이나 별서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시가작품인 산수시 계열의 시조, 경기체가, 한시 등을 주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적 자료로 다른 양식의 작품을 원용하기로 하겠다.

한국의 산수시가가 순수 국문학 작품을 산출하였다는 문학사적 사실은 동양문학의 보편성에 입각한 문학적 위상을 점하였다는 것이며, 문학적 고유성과 창의성을 발양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산수시가의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조선시대 산수시가의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는 것이다.

미], 『한국시가문화연구』36, 한국시가문화학회, 2015.).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맹사성, 이현보, 이황, 권호문, 박인로, 김광육, 윤선도를 산수시가의 대표작가로 선정하고³⁾, 그들의 순수 국문학 작품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각 시기별 문예적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 연구는 성리학자들의 문학작품을 이념적 관점에서 파악한 주제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그들의 산수시가에 형상화된 산수의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비롯된 개인의 서정적 미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개성적이며 개별적인 작가의 가치관에 따른 미감의 특징과 독창성을 인식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배경사상으로서의 성리학적 관점에 의한 작가와 작품분석을 통해 작가가 산수시가에서 지향하는 산수의 아름다움의 미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 성리학으로 초기의 경세학과, 중기의 사림파와 후기의 도학과와 예학파로 구분하여 그 대표적 작가와 작품을 분석하고 그 특징적 요소를 파악하여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나아가 시기별 특징과 작가의 문학세계의 개별성과 독창성을 탐색할 것이다.

둘째, 조선시대를 전기와 중기, 후기로 나누어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대부들의 출처와 귀거래나 은거의 동기와 원인을 고려함으로써 문학세계의 특징과 개성적 서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작가별 산수인식에 대한 특성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선조 성리학자들은 귀거래 이후 중심이 되는 생활공간으로 서원이나 누각 등을 많이 세웠다. 그리고 자신의 이상과 가치관에 따라 각각의 산수경물이나 누각 사우 별서 등을 명명함으로써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 생활환경으로서의 은거지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작가의 문화공간으로 변용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그 문학적 의미와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작가별 혼인관계, 학통과 학맥에 따른 사우관계를 고려하여 문학적으로 어떤 특징을 공유하였으며, 또 집단적 서정성과 시가적 특징을 함께하였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결과 조선시대 산수시가의 전개양상과

3) 본문에서 다룬 7명의 작가는 류승국이 저서에서 기술한 주요 유학자들 중 문학사적 흐름상에 있는 5명(맹사성, 이현보, 이황, 권호문, 김광육)을 논자가 임의로 선정하고, 기존 학계에서 문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2명(박인로, 윤선도)을 추가하였다. (류승국, 『한국유학사』, 유교문화연구소, 2009, 161~246쪽 참조.)

시세계가 좀 더 뚜렷해질 것이다.

다섯째, 문예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조 성리학자들은 산과 물 등을 소재로 하여 많은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산수시와 산수유기를 창작하였다. 이 산수유기에는 산수기가 포함된다. 그런데 조선조 성리학자들의 순수 국문학작품으로는 시조와 경기체가, 가사를 그 대표적 양식으로 손꼽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전시가라고 명명하여 문학적 용어로 통칭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언급하는 산수시가는 산수를 소재로 한 고전시가 작품을 일컫는 용어이며, 광의로 보아서는 산수문학의 한 양식 속에 포함시켜 논의할 것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산수시가에 등장하는 의상(意象, image)⁴⁾의 분석과 문맥 의미, 나아가 문예적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상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산수시의 세계(의경)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산수시의 세계는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을 미적으로 형성하였을 경우와 상상 속의 이상세계를 형상화한 두 가지의 큰 흐름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기별, 작가별 산수시가의 특징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의 필요성

우리 국문학 연구사에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장 먼저 언급한 연구자는 도남 조운제이다. 도남은 자연예찬의 성격을 지닌 조선조 문학을 “江湖歌道”라 명명하고 “自然美의 發見”이라는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며, “龔巖 俛仰亭에 의해 唱導되었다”라고 하였다.⁵⁾ 이후 최진원은 이 “江湖歌道”가 “당쟁하의 明哲保身과 致仕客의 閑適”에서 온 것이며, 구체적 작가와 작품을 통해 “江湖歌道는 시조와 가사에서 형성되었다”⁶⁾고 그 형성원인을 밝혔다. 도남이 언

4) 의(意)는 인간 의식의 관념이자 지(知)라고 할 수 있으며, 상(象)은 구체적인 객관물이니, 이 둘이 만나 의상(意像, image)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주량즈는 그의 저서에서 “의(意)는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 내는 세계이며, 이 세계는 상(象)을 통해서 구현된다.”라고 언급하였다. (주량즈 지음, 신원봉 옮김, 『미학으로 동양인문학을 꿰뚫다』, 알마, 2015, 444쪽.)

5) 조운제, 앞의 책, 1978, 130~141쪽.

6) 최진원, 앞의 책,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1.

급한 “自然美의 發見”은 산수시가의 미학적 측면에 주목한 중요한 개념이며, 최진원의 연구는 이 자연미의 발견을 당쟁(黨爭)이라는 정치사회학적 원인에서 찾아 그 동기를 밝혔다.

그런데 도남이 언급한 ‘江湖歌道’라는 용어는, 구체적인 문학사에서 존재하는 흐름이 아닌 추상적인 미감이나 문학현상을 의미하는 성격이 짙다. 그래서 최진원은 도남의 연구를 바탕으로 『國文學과 自然』에서 상자연(賞自然)의 개념을 가져오면서 문예학적 측면을 강조하고, 강호가도의 발생 원인을 개별 작가 연구를 통해 경제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밝혀 그 의의를 연구하였고 현저한 연구 업적을 남겼다.

이후 손오규는 “山水文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山水文學研究』⁷⁾에서 그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였다. 손오규가 『山水美學探究』⁸⁾에서 제시한 ‘소박미(素朴美)’, ‘고독(孤獨)’, ‘한정(閑情)’, ‘풍류(風流)’, ‘이정(移情)’ 등의 개념은 서양의 미학에서 학문 연구의 방법이나 이론을 고려하기는 하였지만, 근본이 되는 미학의 개념은 퇴계학에 원류를 둬으로써 학문적 이론의 보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산수와 유사한 의미로 산천, 산림, 강호, 강해 등이 널리 사용되었다. 자연을 소재로 한 우리나라 시가 작품을 규정한 문학용어로는 학자에 따라 산수시가, 강호시가, 자연시가 등 여러 가지가 쓰였다.⁹⁾

조선시대 사대부 작자층에게 산수는 친숙한 존재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다. 이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산수 인식의 기저라 할 것이다.

이후 조선시대 산수시가 연구사를 검토해 볼 때 세 방향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다. 첫째, 작가와 작품 연구, 둘째 미학적 연구, 셋째, 문학사적 연구이다. 이 중에서 작가와 작품 연구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미학적 연구는 보편적이지 않다. 더구나 문학사적 연구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추구하는 연구 방향과 연구방법에 비추어 볼 때, 문학사적 연구에 대한 연구사 검토를 통해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성을 달성하기에는 자료적 부족함을 절실히 느낀다. 그런데 이 연구는 그 내용의 분석과 시세계의 특성을 미학적 연구로 접근하고 있

7) 손오규, 『산수문학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8) 손오규,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9) 산수시가의 용어에 대한 정리는 1쪽 각주 2)를 참고.

으므로 첫째, 작가 작품 연구를 참고로 하면서도 둘째 미학적 연구를 문학사적 연구와 함께 검토함으로써 연구 목적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맹사성, 이현보, 이황, 권호문, 김광욱, 박인로, 윤선도의 대표적 연구를 통하여 연구사를 검토하겠다.

맹사성과 「강호사시가」에 대한 주요 연구로 김홍규, 나정순, 김상진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김홍규는 「강호자연과 정치현실-맹사성 <어부사시가>와 이현보 <어부가>의 정치현실 인식」¹⁰⁾에서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와 이현보의 「어부가」를 중심으로 15, 16세기 조선조 강호시가의 두 국면을 살폈다. 김홍규는 이 연구에서 「강호사시가」 분석을 통해 맹사성이 “당대의 정치상황을 이끌어간 사대부층의 도덕적·정치적 낙관주의 안에서 세계를 보았고 따라서 정치현실의 차원과 강호자연 사이에 상호배제의 이념적 단절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고 연구의 결과를 밝혔다.

나정순은 「조선 전기 강호 시조의 전개 국면-‘조월경운’과 ‘치군택민’의 개념을 중심으로」¹¹⁾에서 조선 전기 강호시조의 흐름을 형성해 온 맹사성, 이현보, 이황, 이이, 권호문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고, ‘강호가도’ 시가의 실체와 개별적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정순은 이 연구에서 “자연미의 추구라는 우아한 예술성 뒤에 감추어진 현실적 고민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강호시조”라고 ‘강호가도’의 실체를 ‘조월경운’과 ‘치군택민’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상진은 「사시가지 시조의 맥락과 노랫사의 <사계>-맹사성의 <강호사시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¹²⁾에서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를 중심으로 사시가지 시조의 맥락에서 대중가요 「사계」를 고찰하였다. 김상진은 “「강호사시가」가 노래하는 ‘君恩의 찬양’과 「사계」가 노래하는 ‘노동 현장의 고달픔’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양자 모두 시대정신을 표현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며 “이로써 「사계」는 현대의 대중가요이면서 그것의 중심에는 고시조의 맥락을 수용하고 있음”을 파

10) 김홍규, 「강호자연과 정치현실-맹사성 <어부사시가>와 이현보 <어부가>의 정치현실 인식」, 『욕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135~160쪽.

11) 나정순, 「조선 전기 강호 시조의 전개 국면-‘조월경운’과 ‘치군택민’의 개념을 중심으로」, 『시조학논총』29, 한국시조학회, 2008.

12) 김상진, 「사시가지 시조의 맥락과 노랫사의 <사계>-맹사성의 <강호사시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조학논총』48, 한국시조학회, 2018.

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의 맥락이 현대에까지 수용되고 있음을 밝힌 중요한 연구이다.

이현보와 「어부가」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성호경, 양희찬, 박해남의 연구가 있다. 성호경은 「龔巖 李賢輔의 삶과 시가」¹³⁾에서 「효빈가」, 「농암가」, 「생일가」, 「어부가」, 「어부단가」 등 농암이 창작한 우리말 시가를 중심으로 농암의 삶을 살펴보았다. 그의 연구는 특히 농암이 한시 중심의 조선 전기 사대부 시작 풍조에 서도 우리말 시가의 참된 가치를 자각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양희찬은 「李賢輔 <漁父歌>에 담긴 두 現實에 대한 認識構造」¹⁴⁾에서 농암 「어부가」에 담긴 두 현실에 대한 인식구조를 고찰하였다. 양희찬은 「어부가」의 강호는 “‘無心’과 ‘多情’으로 즐겁고 평안하다는, 화자의 판단”이라고 설명하면서, “강호의 ‘無心’과 ‘多情’이 사회 현실(朝廷의 不協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농암 「어부가」의 의의를 당시 사회의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하려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해남은 「<樂章歌詞本 漁父歌> 再考」¹⁵⁾에서 『악장가사』 소재 「어부가」를 주 대상으로 작품의 형성시기와 배경, 작자, 구성 방식 등을 총체적으로 살폈다. 이 연구는 농암 「어부가」 작품 자체를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퇴계와 「도산십이곡」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성기옥, 이종호¹⁶⁾, 손오규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성기옥은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¹⁷⁾에서 퇴계가 「도산십이곡」을 창작할 때 처한 정신적 상황, 그리고 「도산십이곡」을 창작하고 향유한 실질적 배경을 중심으로 ‘경험의 언어’로서 「도산십이곡」의 언어적 기능을 분석하였다. 성기옥의 연구는 「도산십이곡」이 퇴계의 사상이나 이념을 관념적으로 읊었다거나, 문학성이 결여된 무미건조한 관념적 작품으로 보는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퇴계 자신의 생생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솔한 내면의 세계를 읊

13) 成昊慶, 「龔巖 李賢輔의 삶과 시가」, 『진단학보』93, 진단학회, 2002.

14) 양희찬, 「李賢輔 <漁父歌>에 담긴 두 現實에 대한 認識構造」, 『시조학논총』19, 한국시조학회, 2003.

15) 박해남, 「<樂章歌詞本 漁父歌> 再考」, 『반교어문연구』28, 반교어문학회, 2010.

16) 이종호, 「퇴계 이황의 자연미 수용과 산수미학」, 『영남학』41, 퇴계연구소, 2007.

17)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 『한국시가연구』11, 한국시가학회, 2002.

은 작품”이며, “놀라울 만큼 문학성이 풍부한 잘 짜여진 언어의 교직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성기옥은 「<도산십이곡>의 재해석」¹⁸⁾에서 텍스트 중심의 현대시와는 달리 고전시가의 해석은 ‘텍스트 상황’을 함께 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도산십이곡」의 ‘텍스트 상황’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텍스트 상황’의 복원을 통해 ‘경험의 언어’로서 「도산십이곡」의 언어적 기능을 되찾고자 시도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신연우는 「<陶山十二曲>에의 미학적 접근」¹⁹⁾에서 이황의 사상 체계가 “인간 사회의 도덕적 질서의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고 그 근거는 자연의 질서”라고 하면서 이황은 “자연의 질서와 도덕적 본성의 상응성과, 자연적 질서의 심성론적 전환을 사상의 틀로 정립”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를 근거로 「도산십이곡」을 미학적 접근 방법으로 해석하여 “자연물을 통해서 세계의 근원적 조화와의 만남이라는 심미적 경험”이 바로 「도산십이곡」의 주제임을 밝혔다.

손오규는 「退溪詩의 空間認識과 山水觀」²⁰⁾에서 퇴계시에 나타난 공간 인식과 산수관을 미학적으로 해석하고 연구하였다. 손오규는 “퇴계는 미학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저술을 남기지 않았다”면서도 “퇴계는 자신의 철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여 「聖學十圖」 등을 완성하였다. 이것은 미학이 철학의 하위 영역이기 때문에 퇴계철학을 원용하여 그 이론화를 가능하게 하였다”면서 퇴계시를 미학적으로 해석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퇴계시가 ‘자연의 인간화’ 또는 ‘인간의 자연화’라는 미적 경계를 개척하였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퇴계시의 미학적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권호문에 대한 주요 연구로 김병국, 최현재, 김상진을 들 수가 있다. 김병국은 「松巖 權好文 시가의 미적 특질」²¹⁾에서 송암의 「한거십팔곡」과 「독락팔곡」의 구체적인 미적 특질을 고찰하였다. 김병국은 이 연구에서 구체적 작품 분석을 통해 「한거십팔곡」의 미를 ‘淡泊’, 「독락팔곡」의 미를 ‘閒興(閒美淸適)’이라고 규정하였다.

최현재는 「權好文 詩歌의 情緒的 特徵과 文學史的 意義」²²⁾에서 송암시가에 대

18)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재해석」, 『진단학보』91, 진단학회, 2001.

19) 신연우, 「<陶山十二曲>에의 미학적 접근」, 『고전문학연구』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20) 손오규, 「退溪詩의 空間認識과 山水觀」, 『퇴계학논총』30, 퇴계학부산연구원, 2017.

21) 김병국, 「松巖 權好文 시가의 미적 특질」, 『한국시가연구』19, 한국시가학회, 2005.

한 평가가 대체로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송암의 시가작품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나 가치의 기준으로 퇴계를 설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송암의 국문시가가 지닌 문학사적 의의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달리 하거나 비교 대상을 좀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 송암의 생애와 시가작품을 긴밀하게 관련지어 그의 시가작품이 지닌 문학사적 의의를 영남 지역 강호시가의 전통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여 재조명하였다.

김상진은 「松巖 權好文의 <閑居十八曲>과 문학치료」²³⁾에서 「한거십팔곡」이 가진 장르적 특성을 “서정성, 시의 리듬과 반복, 강호시조로서의 갈등 해소”라고 보고 이와 같은 장르적 특성을 문학치료에 적용하려 시도하였다.

김광옥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고정희, 김창원, 허왕욱의 연구를 들 수가 있다. 고정희는 「17세기 전가시조의 서정적 리얼리티에 관한 연구」²⁴⁾ 전가시조의 범주적 타당성을 작품 안에서 찾고자 시도하였다. 「울리유곡」의 표현에 주목한 이 연구는 환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강호시조에 비하여 전가시조가 사실적인 리얼리티의 재현이나 모방으로 나아갔다고 주장하여 환상적 리얼리티와 모방적 리얼리티 사이에 전가시조의 의미를 두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창원은 「조선후기 근기 지역 강호시가의 지역성」²⁵⁾에서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학 연구는 대부분 추상이거나 과장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전원시조의 지역문학적 관형어를 연구하였다.

허왕욱은 「<울리유곡>에 나타난 귀향 의식의 문학적 형상」²⁶⁾에서 「울리유곡」에 나타난 ‘귀향(歸鄉)’이라는 특이한 모습을 통해 현재과 과거 두 지점 사이의 이동의 관점에서 강한 정서적 감응을 수반한 채 나타나는 특이한 운동의 측면으로 김광옥의 「울리유곡」을 연구하였다. 허왕욱은 그 결과로 “김광옥의 귀향은 ‘행위’의 계보를 서막으로 삼고, 절연의 생성, 망각의 역능이라는 탈주선을 그려

22) 최현재, 「權好文 詩歌의 情緒의 特徵과 文學史的 意義」, 『우리말글』35, 우리말글학회, 2005.
 23) 김상진, 「松巖 權好文의 <閑居十八曲>과 문학치료」, 『한국시가연구』22, 한국시가학회, 2007.
 24) 고정희, 「17세기 전가시조의 서정적 리얼리티에 관한 연구」, 『한국문학연구』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25) 김창원, 「조선후기 근기 지역 강호시가의 지역성」, 『시조학논총』28, 한국시조학회, 2006.
 26) 허왕욱, 「<울리유곡>에 나타난 귀향 의식의 문학적 형상」, 『고전문학과 교육』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내었으며, 생활의 즐거움과 경험의 초월을 빚어냈고, 다시 서울로 향하는 감응을 보여주었다”는 의의를 밝혔다.

박인로에 대한 주요 연구로 박현숙, 성호경, 이종문을 들 수 있다. 박현숙은 「박인로의 <누항사> 연구」²⁷⁾에서 박인로의 「누항사」에 제시된 삶의 양상과 창작 시기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누항사」에 형상화된 ‘안빈낙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 박현숙은 「누항사」의 결론인 ‘안빈낙도’가 “현실도피나 자기 위안이 아니라 급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리학자들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 해결 방식”임을 논증하였다.

성호경은 「朴仁老의 <蘆溪歌> 창작 배경 탐색-慶州市 山內面 大賢里의 ‘大賢洞口’ 일대」²⁸⁾에서 박인로의 가사 「노계가」의 창작 배경을 자세하게 탐색하였다. 성호경은 박인로가 한국시가사에서 중요한 작가임에도 “그의 생애는 불분명하거나 잘못 전해진 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노계가」의 실제 창작 배경을 찾아내기 위해 신뢰도 높은 자료들에 의거하여 박인로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그의 호 ‘노계’의 실제 유래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답사를 통하여 가장 유력한 「노계가」의 창작 배경을 추정하였다.

이종문은 「蘆溪 朴仁老의 社會的 位相에 대한 再檢討」²⁹⁾에서 노계 박인로의 사회적 위상이 ‘沒落 鄉班’이 아니라 중소지주층의 ‘유력한 在地土族’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종문은 노계가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었다는 근거를 크게 다섯 가지로 들어 밝히고, 노계가 재지사족이었다는 최근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던 노계의 당시 사회적 위상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시도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적지 않다.

윤선도에 대한 연구는 성기옥, 김대행, 김주순, 김주석, 정우봉 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성기옥은 “孤山 시조의 抒情世界를 현실 지향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天人合一’이라는 연속적 세계관을 주장하여 孤山의 山水認識의 밑바탕에는 주자학적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음”³⁰⁾을 주장하였다.

27) 박현숙, 「박인로의 <누항사> 연구」, 『국어국문학』157, 국어국문학회, 2011.

28) 성호경, 「朴仁老의 <蘆溪歌> 창작 배경 탐색-慶州市 山內面 大賢里의 ‘大賢洞口’ 일대-」, 『고전문학연구』51, 한국고전문학회, 2017.

29) 이종문, 「蘆溪 朴仁老의 社會的 位相에 대한 再檢討」, 『어문논집』82, 민족어문학회, 2018.

30) 성기옥, 「孤山 詩歌에 나타난 자연 인식의 기본틀」, 『고산연구』창간호, 고산연구회, 1987.

김대행은 “孤山은 자연을 벼슬길이나 욕망으로 뒤끓는 세상과 대비시키고 있어 순수한 대상에의 몰입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³¹⁾고 하였다.

2000년대 이후로는 孤山과 도연명의 자연시적 특징을 비교한 김주순의 연구³²⁾, 孤山 時調를 언어구조적으로 연구한 김주석의 연구³³⁾, 『고산유고』에 미수록 된 孤山의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한 정우봉의 연구³⁴⁾ 등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사상과 산수에 관한 연구는 시대적으로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다. 이후의 연구를 개략하면, 조선시대 사대부의 자연관과 산수 인식에 관련된 연구³⁵⁾, 작가별 작품에 대한 문예미적 특징에 초점을 맞춘 연구,³⁶⁾ 등 개별 작가와 작품에 초점을 맞춘 공시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사대부의 산수 인식의 흐름을 연결하는 거시적 관점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시도한 논문이 몇 편 있으나³⁷⁾, 연구 대상이 자연관

31) 김대행, 「〈漁父四時詞〉의 외연과 내포」, 『고산연구』창간호, 고산연구회, 1987.

32) 김주순, 「윤선도(尹善道)의 자연시가(自然詩歌)와 도연명(陶淵明) 시(詩)의 비교문학적 고찰」, 『東方漢文學』 38, 동방한문학회, 2009.

33) 김주석, 「『고산유고』 소재 시조(時調)의 구조(句調) 통계 및 분석」, 『시조학논총』41, 한국시조학회, 2014.

34) 정우봉,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미발굴 작품에 관한 연구」, 『古典文學研究』Vol.50, 한국고전문학회, 2016.

35) 조선시대 문학에서의 자연관, 산수 인식을 다룬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송팔성, 「四時歌의 자연觀과 時間 認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조기영, 「고전시가에 나타난 한국인의 자연관」, 『연민학지』, 연민학회, 1997. 권정은, 「유거(幽居)와 탐승(探勝), 자연미의 상보적 기반」, 『고전문학과교육』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조남욱, 「儒家에서 지향하는 ‘즐김(樂)의 경지’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28, 한국유교학회, 2007. 박이정, 「17세기 전반기 가사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박영주, 「강호시가에 형성된 ‘풍월주인’과 생태적 상상력」, 『한국시가연구』43, 한국시가학회, 2017.)

36) 산수시가에 대한 작가별 작품별 문예미적 특징에 초점을 맞춘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동국, 「古詩歌의 山水自然과 寂寞의 美學」, 『인문학연구』3,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6. 조선영, 「가사문학에 나타난 유교이념과 그 표현미학 연구-사대부가사와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이성혁, 「윤선도 시조에 대한 미학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장명덕, 「윤고산 문학 연구-풍요의 미학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전일환, 「고산 윤선도 국문시가의 수사미학」, 『한국시가문화연구』11,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03. 김병국, 「松巖 權好文 시가의 미적 특질」, 『한국시가연구』19, 한국시가학회, 2005. 권정은, 「조선후기 변이형 자연시조의 미적 경계」, 『한국학』2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김학성, 「고산 윤선도 시조의 미적 성취와 그 가치」, 『어문연구』3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이민홍, 「山水와 時調學, 그리고 性情美學」, 『시조학논총』31, 한국시조학회, 2009. 신두환, 「龔巖 李賢輔의 詩歌에 나타난 ‘拙樸’의 문예미학」, 『대동한문학』34, 대동한문학회, 2011. 김성문, 「時調의 文體美一考-內容的 側面을 中心으로-」, 『시조학논총』37, 한국시조학회, 2012. 박상영, 「‘부재’를 중심으로 살펴 본 고산 시조의 미학적 특질」, 『어문론총』59,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

37) 조선시대 산수시가를 대상으로 통시적 연구를 진행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창원, 『강호시가의 미학적 탐구-송순에서 신희까지』, 보고서, 2004. 한창훈, 「16세기 재지사립 강호시조의 양상과 전개」, 『시조학논총』22, 한국시조학회, 2005. 조유영, 「조선조 구곡가의 시가사적 전개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에 한정되었고, 시대 범위도 조선 중기만을 살펴보아 조선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 산수시가 연구사를 개괄해 볼 때 산수시가의 통시적 고찰을 통한 전개와 시기별 특징을 보편화하여 주도적 흐름을 발견하고, 산수시가의 전통적 맥락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조선시대 산수시가를 문학적 분석과 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한국문학사의 연속성 아래에서 산수시가 속에 나타난 고유한 미감과 전통적 특징을 전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조선시대 성리학의 흐름과 산수시가

우리나라에 유학이 유입된 지 매우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그 활용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신라 때 한국 한문학의 비조로 일컬어지는 강수가 있었으며, 신라 말에는 최치원이 있어 그 찬연한 한문학의 세계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신라 때에는 독서삼품과를 통하여 유학적 소양에 의한 관리 선발을 시행하였으며, 고려 광종 때에는 과거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로 이런 제도는 지속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유교적 이념에 의한 국가적 통치와 지도자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는 유교국가로서의 진면목을 발휘하였다고 할 것이다.³⁸⁾

이런 과정 속에서 고려 말 안향에 의하여 주자학이 수입되었고, 매우 혁신적인 학문적 발전과 독자적 이론의 수립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고려 말 신유학인 성리학에서 주류를 차지한 주자학이 도입된 이후 정몽주, 권근, 정도전에 의하여 크게 세 가지 흐름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몽주는 절의에 의한 실천과 의리의 판단을 통해 이학의 종주로 받아들여지며 조선조 사림과 그 이후의 성리학사에 있어 주된 흐름을 형성하여 학통을 확립하였다.³⁹⁾

권근은 「입학도설」로 대표되는 성리학의 학문적 연구에 업적을 남겼으며, 이후 이론철학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에 반해 정도전은 그 유학적 사고와 학문적 이론이 통치이념으로 형상화되어 조선 초기 국가의 성리학적 이념과 편제, 그리고 관리의 등용과 국가운영 등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였다. 따라서 경제학의 가장 표본이 되는 한 인물이라고 할 것이다.⁴⁰⁾

38) 조동일은 그의 저서에서 “중국에서는 589년부터, 한국은 958년부터, 월남은 1075년부터 과거제를 실시해 동아시아 중세문명이 다른 곳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었다.”고 하면서, “과거제가 없는 곳에서는 무력 다툼과 신분 세습으로 관직을 이어나가,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자나 문인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신라의 육두품처럼 실무기술자의 지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하여 과거제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 지식문화사, 2005, 321~322쪽.)

39) 류승국은 이와 같은 도학과파의 흐름에 대하여 “이와 같은 도학과파들은 유학의 정통적 정신에 투철하고 공과 사, 의와 불의를 엄격하게 분별하였으며 그들의 정신은 옳은 것을 위하여 생사를 넘어설 수 있는 우국애민(憂國愛民)의 의리사상으로 전개되었다”고 언급하며 려말선초 도학과파의 흐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류승국, 앞의 책, 2009, 187~188쪽.)

40) 류승국은 권근의 「입학도설」에 대하여 “이 「입학도설」과 「오경천권록」은 그 후 조선 학술사상은연중 영향이 지대하였으며 조선 중기의 성리설 즉, 정지운(鄭之雲)의 천명도설, 퇴계의 리기호발설(理氣互發說) 등에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라고 후대에 끼친 영향을 언급하였다.(류승

따라서 조선 초기에는 유학의 목적이 과거를 통한 관리로서 국가통치의 일익을 담당하여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이런 흐름이 조선조 말엽까지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은 조선 초기 경제학에 목적을 둔 관리들의 공적이라고 할 것이다.

정도전 이후 경제학에 업적을 남긴 인물로 하륜, 황희, 맹사성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다. 그들은 노년에 이르러 명예로운 퇴진 이후에 초에야 묻혀 한가로운 삶을 즐기며 국가의 은혜와 자신의 인생을 기쁘게 노래하였다. 맹사성의 「강호사시사」는 조선초기 경제학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 치사의 즐거움과 인생의 만족감을 형상화한 대표적인 산수시가이다.

이 경제학 이후 조선의 성리학은 절의를 매우 중요시 여겼다. 이를 배경으로 단종의 선위와 세조찬위의 과정 속에서 사육신으로 대표되는 절의파가 탄생하게 된다. 절의파는 개인의 이익이나 영달보다는 유교적 가치로서의 신의, 충, 효 등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 이런 가치를 이론적 지식에 의한 인식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실천을 통하여 그 가치를 증명해보이고자 하였으며, ‘얌’에 대한 영역과 개념적 정의에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였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⁴¹⁾

이 절의파는 연산군 이후 사화를 통하여 사림파를 등장시켰다. 사림파는 곧 이 절의파의 유교적 가치를 수용하고 공고히 한 개혁적 선비들의 집단이다. 사림파는 성리학을 학리적으로 매우 깊이 연구하여 학문적 업적을 남기고 한국철학 완성과 저변 확대에 큰 공헌을 하였다.⁴²⁾ 그 대표적 인물과 작품으로 이황의 「도산십이곡」과 권호문의 「한거십팔곡」, 「독락팔곡」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사림파 중에서도 이론보다는 생활의 실천을 강조하며 소학을 학습의 중심에 놓았다. 이것이 곧 도학파이다. 따라서 유학은 철학적 측면에서는 성리학이라 하고, 실천적 측면에서는 도학이라고도 한다. 이 리의 개념을 미학적으로 적용하면, 가치로서

국, 위의 책, 2009, 176~177쪽.)

41) 류승국은 도학이 단순히 이론적 분석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실천을 중심으로 한 사상적 기류였음을 밝혔다. “도학은 단순한 윤리사상이 아니다. 의와 리를 상대적으로 분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심 내부의 순일하고 무잡(無雜)한 내면적 극치에서 성철하고 존양하며 한결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서 도학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중략) 조광조는 의리를 높이고 권세를 천하게 보며 도심을 높이고 인욕을 눌러 강상(綱常)을 세우려고 하였다. 이것이 그의 도학정신이다.” (류승국, 위의 책, 2009, 206쪽.)

42) “이 도학정신을 계승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다름 아닌 퇴계·율곡의 성리학이다.” (류승국, 앞의 책, 2009, 206쪽.)

의 미, 진선미를 통합한 이념으로서의 미에 비견하여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학은 고전미학과 근대미학으로 나누어서 이야기 할 수 있으니, 고전미학은 인간의 감각적 쾌의 감정과 긍정적 경험에 의하여 미의 문제를 논의한다.⁴³⁾

조선 후기에 들어와 도학에 대한 자기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극심한 사회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학적 이념과 가치의 실천을 목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널리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기의 사회신분질서와 계층적 구분의 엄격함에 균열이 일어나 느슨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도학적 관념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양반 신분이면서도 사회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으로 신분에 걸맞은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런 현상은 사회신분의 계층적 이동과 변화를 초래하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 그 대표적 인물과 작품으로 김광옥의 「율리유곡」과 박인로의 「누항사」, 「노계가」를 포함한 가사작품들을 들 수가 있다.

그 이후에 조선조 사회의 근간인 윤리적 질서에 의한 계층적 구분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한 사회적 무질서가 심각해지자, 예학이 강조되게 되었다.⁴⁴⁾ 이 시기의 대표적 인물과 작품으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와 시조작품을 들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변천과 흐름을 기반으로 산수시가의 창작 시기를 네 부분으로 나누고⁴⁵⁾ 대표 작가와 작품을 통해 산수시가의 전

43) 이 가치로서의 미에 대하여 백기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념적 존재로서의 미는 감각적 현상에 대한 우리의 感官的 知覺(sense-perception)을 초월한 존재이며, 분석적 반성적 논증적인 개념적 사유능력으로서의 이성(reason)의 한계를 넘어, 想像力(imagination)에 이끌려 무한한 것으로 향한 정신의 飛翔으로서 超感性的인 직관(intuition)으로서의 이성(intellect)의 차원에까지 도달해서, 마침내 가치이념으로서의 미를 발견하게 되고, 이미의 이념과 만나게 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백기수, 『미의사색』,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24쪽.)

44) 조선 후기 예학적 경향에 대하여는 다음의 언급을 참조하였다. “예’는 이미 검증을 거친 사회 관습과 관행의 역사적 테두리이니 혼란과 파탄을 거듭하는 우리 사회 속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덕목이어야 한다. 예치(禮治)는 무력으로 다스리는 무치(武治)에 대비되는 문치(文治)의 전통이고 평화를 구축하는 방식이니 이 또한 문명권끼리 각축하는 현실에서 유효하다. 조선시대의 예치는 단순히 당파 싸움의 근원이 아니라, 봉당 정치의 전개 과정이었다. 그것은 왕권 견제와 왕권 강화의 이념적 긴장 관계였다.”(허남준, 「조선후기 예학과 실학, 그리고 詩樂 -문체반정과 악풍반정-」, 『반교어문연구』28집, 반교어문학회, 2010. 182쪽.)

45) 산수시가 작가의 시기 구분에 대하여는 Ⅲ~Ⅵ장을 각 시기로 하여 네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은 각 장의 작가와 성리학적 흐름의 연관 속에서 논자가 임의로 구성하였으며, 전체적인 성리학의 흐름에 대하여는 류승국의 연구를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류승국, 앞의 책, 2009.)

개 양상과 시세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이 연구의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Ⅲ. 경국제민의 이상과 귀거래호방

성리학은 중국 선진(先秦)의 근원 유교나 경서(經書) 주석을 주로 한 한(漢)·당(唐)의 훈고학(經學)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기존의 유교가 실천유학적인 사상이라면 성리학은 ‘성(性)’이나 ‘리(理)’를 논하는, 일종의 철학적 이론의 학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리학은 인간의 생명질서와 근원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철학적 면이 강조된다. 대표적으로 우주적 근원과 생명질서의 탄생에 대하여 말하는 태극도설이 있다. 이 이후로 정자에 의하여 성리학이 확대되었으며 주자에 의하여 학문적 체계가 이루어졌다.

조선 성리학은 특히 이학(理學)계통의 주자학이 정통으로서 주류를 이루었다. 그 주류는 이학 또는 도학(道學)이라고 불리는 주자학과, 심학(心學)이라 불리는 육왕학(陸王學: 陸九淵·王守仁 계통의 학파)과 양명학의 양대 학파이다. 그러나 흔히 성리학이라 할 때는 좁은 의미로 주자학 계통만을 일컫는 것이 상례이다. 조선 성리학은 특히 이학계통의 주자학이 정통으로서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조선 성리학을 흔히 주자학이라고 일컫는다.⁴⁶⁾

고려 말의 성리학은 성균관을 중심으로 안향(安珦)·백이정(白頤正)·권부(權溥)·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 등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이 중 정몽주에서 시작된 의리학파는 하나의 도통(道統)으로 계승된다. 이 계열의 학풍은 인간의 내면적 본성을 강조하고 만고불변의 도덕의식을 개발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정도전(鄭道傳)·권근(權近) 계열로서 조선의 훈구파 정치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의 불변의 인간성 개발보다는 상황에 대응하는 창조적 변혁을 강조하며, 관념적 의리나 도덕보다는 인간의 의지적 연마와 지식의 개발, 그리고 문화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다. 조선 유학사상사의 정통을 말할 때 정도전 계열보다는 정몽주 계열의 학맥을 연원으로 삼는데, 이 점이 조선 성리학의 특색이다.

46) 김길환, 『조선조유학사상연구』, 일지사, 1980, 246~249 참조.

정몽주에서 시작된 이러한 성리학은 그 후 길재(吉再)·김숙자(金叔滋)·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 등으로 이어졌다. 조선 성리학은 4대 사화(四大士禍) 이후 선비들이 실천유학으로서의 지치주의(至治主義)보다 산림에서 학문에 전념하는 풍조가 일어나 이론적이며 사변적인 학풍 조성으로 그 전성기를 맞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조선에서 산수라고 하는 것은 산과 물이라고 하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자연윤리적 근원으로서의 필연성과 당위성에 근거를 발견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철학적으로 사유된다.⁴⁷⁾ 이것이 문학에 와서는 산수시가로 표현되는데, 이때 산수는 내용미가 강조되는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되니 그것이 의상(意象)이며 그 작품세계가 의경(意境)이라고 할 것이다.

한국문학사에서 조선조 시대의 문학사적 의의는 첫째, 시조와 가사의 장르적 완성과 발전이다. 둘째, 시조·가사의 장르 주 담당층으로서 사대부 계층의 등장이다. 셋째, 문학 배경사상으로서의 성리학 대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대부 계층의 관료화와 시조·가사의 주 담당층으로서의 등장은 성리학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학배경사상으로 형성되게 하였다. 이상을 기반으로 하여 이들의 문학 세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의하겠다.

1. 맹사성의 致仕燕居와 역군은

조선조 산수문학은 성리학의 발달과 더불어 높은 예술적 경계를 개척하였다. 성리학은 중국 북송(北宋) 때 완성된 신유학(新儒學)으로, 주자(朱子)에 이르러 독창적 학문적 체계를 완성하였다. 특히, 주자는 전대의 학문을 집대성하여 자신의 학문적 입장과 연구의 결과를 체계화하였으며, 성리학을 주자학(朱子學)이라

47)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산수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서는 박학래의 언급을 참고하였다. “자연은 단순한 기계적 차원을 넘어 우주 자연의 생성과 소멸을 의미하며, 이때 우주 자연은 생명체이자 유기체로 상정되었다. 따라서 우주 자연의 법칙인 천도는 순환하는 생성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고 궁극적 존재인 천은 만물의 창조 내지 조물이 아니라 사계절의 운행과 순환을 주관하는 자연법칙으로 나타난다.”(박학래, 『천인지제-인간 삶의 지표와 이상』,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 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145쪽.)

일컫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고려 말 안향에 의하여 주자학이 도입된 이래 이식기(移植期)를 거쳐 고려 말에 이르러 착근기(着根期)를 맞이하고 조선 건국으로 통치이념으로 새로운 국가적 질서와 가치관을 수립하게 된다. 즉,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창업세력들에 의해 유교적 관료사회 건설과, 왕권과 실권의 조화, 불씨잡변으로 대표되는 유교적 세계관으로의 변혁 등으로 유교적 이념은 더욱 강화되었다.⁴⁸⁾ 따라서 성리학은 유교의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제시한 조선조 사회의 기반을 형성한 사상적 배경이요, 문화환경으로 산수시가에 미친 영향 또한 지대하다 할 것이다.

성리학의 학문 방법은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다. 이론철학의 학문적 방법은 궁리(窮理)이며 실천철학의 학문적 방법은 거경(居敬)이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상보적(相補的)이니, 새의 두 나래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어느 하나도 결여되거나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거경과 궁리는 경(敬)으로 대표되니 이 경에는 궁리가 내포되어 있다.

거경과 궁리를 세분하여 논하면 거경은 존양성찰(存養省察)이며 궁리는 격물치지(格物致知)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다. 궁리는 격물을 통하여 치지에 이르는 이론철학의 학문방법이다. 격물의 물이란 인간을 포함한 대자연을 의미하며, 격물이란 대자연의 현상을 통하여 그 현상의 근원인 필연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궁극의 원리를 탐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지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격물을 통한 대자연의 원리로서의 궁극의 진리를 파악하고 터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궁리란 대자연의 현상을 통한 우주적 진리나 철리적 근원으로서의 리(理)에 대한 터득과 깨달음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성리학의 성은 인간의 내면성을 그 대상으로 하며 리는 대자연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거경은 존양과 성찰로 세분하여 말할 수 있다. 존양과 성찰은 심성론에서 그 특징을 잘 살펴볼 수가 있다. 마음은 어떤 일이나 자연물을 대함으로써 감정(七情: 喜怒哀樂愛惡慾)이 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感情)이 발하기 이전을 未發이라 하며 마음이 발한 이후를 기발(既發)이라 한다. 따라서 미발은 선의 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항상 애쓰고 힘써야 하여, 곧 존양이라 하고, 기발은 이미 발한 마음(七情)이 선한 근원에서 발하였는지 혹은 이기심이나 개인적 욕망으로부터

48) 이민홍, 『사림과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7, 20~24쪽 참조.

발한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하니 성찰이라고 한다. 인간의 마음은 선악이 공존하며 이기의 작용에 의하여 이미 발한 칠정이 악한 기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여야만 한다.

이상에서 논한 성리학의 학문적 특징을 대별해 볼 때 조선조 산수시가는 인간의 심성과 대자연의 현상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감정(對象感情)과 관여감정(關與感情) 등 서정의 영역을 깊고도 넓게 확장하였으며 또 대자연의 현상과 그 현상의 근원으로서의 원리에 대한 철학적 사유에 의해 산수의 내용미를 심오한 철리적(哲學的) 경계(境界)로 진입하게 하였다.

한편으로 성리학의 발달은 통치이념으로서 유교적 질서와 제도 확립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으로의 변혁에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하였다. 정치적으로 군신관계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조선의 관리들은 능문능리의 기능성보다는 천명사상에 입각한 통치자로서의 자질과 소명의식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주체적 능동성을 발휘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하였다. 이는 대학에서 말하는 친민(親民)과 지어지선(止於至善)의 이념적 지향성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사대부는 관직에 나아가 임금의 명령에 절대적 복종만을 한 것이 아니라 현군(賢君)과 암군(暗君), 그리고 시대정신과 요청에 의하여 진퇴사수(進退辭受)의 결정을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상적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치사(致仕)는 매우 중요한 역사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며, 치사귀은(致辭歸隱)의 시대정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산수문학에서 독창적 시경을 표상하게 된다.

이 조선초기를 대표하는 사대부로서 산수시가에 작품을 남긴 사람으로 맹사성(孟思誠), 정극인(丁克仁), 이현보(李賢輔)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이들의 산수시가의 세계와 시경에 대하여 산수미학(山水美學)의 관점에서 그 전개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맹사성(孟思誠, 공민왕 9~세종 20, 1360~1438)은 연시조 형태로 산수미(山水美)를 노래해 「강호가(江湖歌)」 또는 「사시한정가(四時閑情歌)」라고도 불리는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⁴⁹⁾를 지었다.

맹사성은 고려부터 조선까지 여러 관직에 임관하였다. 1416년 이조참판에 이어

49) 『악학습령(樂學拾零)』·『정구영언』·『해동가요』 등에 수록되어 있다.

예조판서가 되었다. 이듬해 생원시에 시관(試官)이 되어 권채(權採) 등 100인을 뽑았으며, 왕이 친림한 문과 복시에 독권관(讀卷官)이 되었다. 1432년 좌의정에 오르고 1435년 나이가 많아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났다. 그러나 나라에 중요한 정사(政事)가 있으면 반드시 맹사성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그가 76세(세종 17년 2월 1일)로 벼슬을 그만두고 온양으로 내려갔다.⁵⁰⁾

그가 살았던 맹씨 행단 주변은 신정호, 송악 저수지, 수철 저수지와 개천이 널려 있으며 맹씨 행단이 있는 배방면 중리 마을은 금북정맥의 광덕산이 위쪽으로 달려 솟은 설화산을 진산으로 하고 앞쪽으로는 배방산이 안산으로 자리하며 좌우로 나지막한 산들이 감싸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지은 작품이 최초의 연시조, 「강호사시가」이다.

조운제는 “孟思誠의 江湖歌를 吟味하여 보면 自然을 읊었다 하지마는 아직 自然을 主觀적으로 深察하지 못하였고 다만 皮相的 自然을 望視하여 華麗한 自然 가운데에 安樂을 누릴 수 있음을 기뻐하였을 뿐이다.”⁵¹⁾라고 평하였다. 조운제의 이와 같은 언급은 「강호사시가」가 강호 사시(四時)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듯하지만, 역균은의 연군지정이라는 성격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상진도 “일견 강호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듯한 「강호사시가」이지만, 강호의 사시는 배경일 뿐이며 실제로는 사시사철 변함없는 연군지정을 노래한 연군의 노래”⁵²⁾라고 평한 바가 있다. 그러나 「강호사시가」가 연군지정의 성격이 짙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강호가도의 전구(前驅)적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⁵³⁾ 산수시가의 효시적 작품이라는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음의 「강호사시가」 한 수를 살펴보겠다.

江湖에 녀름이 드니 草堂에 일이 업다
有信호 江波는 보내느니 바람이로다

50) 이상의 맹사성 생애는 한국고전종합DB의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참조하여 논자가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51) 조운제, 앞의 책, 1979, 162쪽.

52) 김상진, 「조선조 연시조의 발전과 수용 양상-六歌系 연시조의 수용을 중심으로-」, 『시조학논총』40, 한국시조학회, 2014, 84쪽.

53) 김명준, 「〈江湖四時歌〉의 창작 시기와 세계상」, 『한국시가문화연구』15, 한국시가문화학회, 2005, 75쪽.

이 몸이 서늘히움도 亦君恩이샷다⁵⁴⁾ <江湖四時歌, 二>

초장을 보면 맹사성이 여름을 보내는 장소는 초당(草堂)이다. 따라서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은 초당이며, 자연친화적 생활과 산수 생활의 소박함을 표상한다. 그러나 맹사성은 치사 후에도 손님을 맞이할 때 반드시 관대를 갖추는 정도로 관리로서의 삶이 생활화되었던 인물이다.⁵⁵⁾ 따라서 위 시에서 형상화된 소박한 초당은 치사 후의 이상적인 삶을 노래한 것이며, 실제적인 현실적 삶의 체험을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맹사성의 삶의 태도가 유학자로서 경세학에 경도된, 관리로서의 삶을 지향하는 여말선초 유학자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선초 경세학 중심의 유학자는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되어 국가와 백성을 위해 봉사하고, 치사 후에는 산수에 묻혀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연친화적 삶의 실현을 이상으로 삼았다고 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맹사성은 위의 시에서 조선초 사대부의 전형적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동시에 「강호사시가」에 형상화된 치사귀은의 소박한 산수생활은 후대 사대부의 이상적 삶에 하나의 전형을 제시하였다는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맹사성 노래하는 시의 공간이 초당인 것은, 당시의 유학자들이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내면으로 지향하는 이상적인 삶은 자연에 묻혀 사는 소박한 삶이기 때문이다. 다음 작품을 살펴보자.

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興이 절로 난다

濁醪溪邊에 錦鱗魚 | 안취로다

이 몸이 閑暇히움도 亦君恩이샷다⁵⁶⁾ <江湖四時歌, 一>

54) 김홍규 외 6인 편저, 『고시조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0182.1, 39쪽.(이하 같은 책의 원문 인용은 『고시조대전』이라 하고 색인과 쪽수만 기재하겠다.)

55) 朝鮮王朝實錄,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1438년) 10월 4일 을묘, 좌의정 맹사성 즐기.

朝士雖秩卑者謁見 必具冠帶出大門外 邀致上坐 及退

56) 『고시조대전』, 0177.1, 37~38쪽.

위 시조의 중장에서 말하는 탁주(濁酒)는 양반들이 아닌 백성들이 주로 마시던 술로 막걸리의 한자어이다. 금린어(錦鱗魚) 또한 백성들이 즐겨 먹던 민물고기인 쏘가리의 한자어이니 시의 화자는 소박한 산수생활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위 시조는 「강호사시가」의 일수로 강호에 봄이 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강호사시가의 각 수는 각각 춘하추동의 네 계절을 시작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강호사시가」에서 시간적 배경으로 사시를 순차적으로 배치한 것은, 계절의 순환이라는 대자연의 섭리와 함께 인간 본성을 말하고자 함이다.⁵⁷⁾ 성리학적 가치를 본받고자 하는 당시의 사대부들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 시를 살펴보자.

江湖에 ㄱ을이 드니 고기마다 솔져 잇다
小艇에 그물 시러 흘리뵈여 더더 두고
이 몸이 消日흐음도 亦君恩이샷다⁵⁸⁾ <江湖四時歌, 三>

초장에서 화자는 가을의 살찐 고기들을 등장시켜 풍요로운 가을을 형상화하였다. 중장에서는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강가에 던져두었지만, 이는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다. 중장에서 고기를 잡는 행위를 “消日흐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기 잡는 행위가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고기 잡는 행위를 소일이라는 한가로운 산수생활로 표현하여 시의 의상을 집약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를 살펴보자.

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샷갓 빗기 ㅼ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57) 사시의 순환과 인간 본성과의 연관은 김상진의 다음 언급을 참고하였다. “朱子(1130-1200, 중국 南宋의 유학자)는 『周易』의 元·亨·利·貞이 계절로 나타날 때는 春·夏·秋·冬,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仁·義·禮·智가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사시의 순환을 노래한 사시가는 계절의 순환과 함께 인간의 본성을 내포하게 된다.”(김상진, 앞의 논문, 2018, 172쪽.)

58) 『고시조대전』, 0156.1, 34쪽.

이 몸이 칩지 아니힘도 亦君恩이샷다⁵⁹⁾ <江湖四時歌, 四>

초장에서 겨울은 눈이 깊이 쌓인 풍경이다. 중장에서 화자는 눈이 수북히 쌓였음에도 화자는 샷갓과 누역만으로 옷을 삼고 있는데, 「강호사시가」의 다른 수와 마찬가지로 소박한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중장에서는 화자 자신이 칩지 않은 것을 임금의 은혜로 돌리고 있는데, 이 또한 「강호사시가」의 다른 수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산수 자연의 화려한 아름다움보다는 소박한 산수생활을 형상화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호사시가」는 전체적으로 유교적 충의정신으로 가득 차 있고, 강호의 사계절과 그 삶을 현실생활 공간의 일부로 현실감있게 묘사하여 소박미를 형상화하였다. 이 소박미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유교적 검약주의와 실천도덕적 윤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대부 산수시가의 미적 범주를 형성하였고, 조선 중기와 후기를 거치며 전형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려조의 어부가는 그 형상화된 산수 공간과 어부의 의상이 현실초월적 이상향에 대한 지향으로 말미암아 노장적 산수관의 영향을 받았다. 최홍원은 「강호사시가」가 “성리학적 이념과 현실 정치가 강호 자연가 하나로 합치되는 조화로운 경험을 가져다주는 것”⁶⁰⁾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 언급에서처럼 「강호사시가」는 노장적 산수관에서 완전히 탈피한 순수한 유교적 산수관이라고 하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유교적 충의정신에 입각한 치사객(致仕客)으로서의 경세관(經世觀)과 처세관에 입각한 관리로서의 전형적 모습이라는 면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강호사시가」는 조선초기 경세학적 유교사상에 입각한 고급 관리의 치사 후의 전형을 산수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맹사성이 산수생활을 동경하면서도 유교적 충의정신에 입각한 현실세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강호사시가」의 산수인식은 관념적 이상

59) 『고시조대전』, 0166.1, 35쪽.

60) 최홍원,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경험 세계의 교육적 구도와 지평」, 『시조학논총』49, 2018, 263쪽.

향에 대한 지향이라고 할 것이다. 당시 사대부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 즉 정극인을 비롯한 유형의 치사객으로 논의할 수가 있다.

정극인(丁克仁, 태종 1~성종 12, 1401~1481)에 이르면 치사객의 관념적 이상향에 대한 산수인식은 비슷하지만 다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맹사성은 치사이후에도 경기지방에 머물며 도성과 가까운 거리에 은거하였으며 임금과의 정치적 관계도 친밀하였다. 그러나 정극인은 서울을 떠나 전라도 태인에 머물러 지리적으로도 도성과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권력과의 관계도 맹사성만큼 친밀하다고 볼 수 없다.

그의 은거는 사실상 귀향에 의한 노년생활의 실제적 현실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정극인의 치사가 관리로서 벼슬에 물러나 명예로운 노년의 삶을 산수에서 즐겼으나, 중앙권력과 친밀한 맹사성과 비교할 때 현실초탈적 자락의 성격이 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배경 중 하나이다.

정극인은 1451년(문종 1) 천거로 광흥창부승(廣興倉副丞)이 되어 육품(六品)을 받아 벼슬 생활을 시작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기축년(1469, 예종 1) 8월에 태인 훈도로서 정언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12월 24일에 나이가 장차 일흔이 된다는 이유로 미리 사직소를 올리고, 경인년(1470, 성종 1) 1월 6일에 치사하였다. 그는 자신의 치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치사음(致仕吟)

벼슬에서 물러나 읍조리며 사립문에 이르러

관을 걸어 놓고 다시 불우현에 기대었네

호남의 군현이 얼마나 되던가

십셋 된 정언 한 사람뿐이네

致仕行吟到蕙門 掛冠還倚不憂軒

湖南郡縣知多少 五十三分一正言⁶¹⁾

「치사음」의 1구는 도연명 「귀거래사(歸去來辭)」의 차용이다. 곧 정극인이 도연

61) 「致仕吟」 원문과 해석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의 텍스트를 인용하였다. 『不憂軒集』 1卷 詩, 「致仕音」. (이하 같은 출처의 인용은 ‘한국고전종합DB’라 하고 색인만 기재하겠다.)

명의 귀거래를 흠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의 깊은 마음속에 귀거래에 대한 여망이 내재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 이것은 2구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먼저 그의 거처는 사립문이라 하였으며, 매우 자연적이며 소박하고 가난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없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시골살이였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호를 불우헌(不憂軒)이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극인의 태인산수은거의 모습을 김영유(金永濡)의 시 「차불우헌곡(次不憂軒曲)」에서 살펴보자.

산이 사면에 두르고 물이 거둬 감싼 곳
남쪽으로 창이 열린 한 선비의 집 있어
거문고 바둑으로 한가로이 날을 보내니
그대의 불우가 참으로 홀로 즐기는 뜻과 같구려
山回四面水重抱 向陽開牕一儒宮
左琴右奕逍遙日 不憂眞與獨樂同⁶²⁾

위 시의 3, 4구는 정극인의 산수생활에서의 일상을 노래하였다. 곧 거문고 바둑으로 상징되는 현실초탈적 여유와 한가로움이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김영유는 정극인의 불우를 현실생활에 대한 미련과 벼슬에 대한 연민 등을 벗어나 참된 인생의 즐거움을 산수 속에서 찾아가고 있다고 칭양하며 정극인의 불우(不憂)를 사마온공(司馬溫公)의 독락(獨樂)에 비유하였다. 그리고 「불우헌기(不憂軒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軒을 不憂라고 명명한 것은 한가로이 지내는 뜻을 드러내 기록함이다. 사람이 세상에 있어서 한가함이 없으면 근심이 있고 한가함이 있으면 근심이 없음이 예로부터 그런 것이다.

堯 임금은 舜을 얻지 못한 것을 자기 근심으로 삼았고 순 임금은 禹와 皐陶를 얻지 못한 것을 자기 근심을 삼았다. 이는 천하를 위하여 인재를 얻

62) 한국고전종합DB, 『不憂軒集』 1卷 詩, 金永濡 「次不憂軒曲」.

는 것으로 근심한 것이다. 공자가 뽕나라를 떠나면서 “더디도다, 나의 행차여.”라고 했고, 맹자가 췌나라를 떠날 때는 사흘을 묵고晝昃을 나갔다. 이는 도를 행하고 시대를 구제하기 위하여 근심한 것이다.⁶³⁾

위의 글을 볼 때 자신이 거처하는 공간을 불우현이라고 명명한 데 대한 의미와 그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산수생활에 대한 계고(稽古)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산수은거는 요순(堯舜)시대 천하인재의 구득(求得)에 대한 경제적 근심을 벗어났으며, 공맹(孔孟)의 도를 통한 시대 구제(救濟)의 사명감에서도 벗어난 한가로움 한 인간으로 돌아온 삶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상당히 유가적인 치사관이 드러난 것이다.

이 상춘곡의 풍류는 불우현 자신의 존재적 의미와 산수생활의 한가로움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라고 할 것이다. 「상춘곡(賞春曲)」에서는 풍류(風流)라고 하였으며 자신을 풍월주인이라고 하였다. 다음을 살펴보자.

紅塵에 못친분네
이내生涯엇더 혼고
넋사름風流를
미출가 못미출가⁶⁴⁾

위의 시에서 홍진(紅塵)은 자신의 벼슬살이를 의미하며 풍류(風流)는 태인은거의 산수생활과 그 즐거움을 말한다. 곧 불우현은 자신의 산수생활을 풍류라고 말하며 치사 후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불우현이 말한 풍류는 ‘상춘곡’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봄의 아름다움을 감상(賞)하는 즐거움’이다. 이는 최진원이 언급한 상자연(賞自然)에 비견되는데, 앞시대의 ‘풍류’와 비교해 볼 때 문사적 취향과 자연미의 감상이 산수유상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정극인의 풍류는 치사 후 태인은거에 대한

63) 한국고전종합DB, 『不憂軒集』 不憂軒集卷二 文 「不憂軒記」 軒以不憂名 志閒也 人之於世 無閒則有憂 有閒則無憂 從古則然 堯以不得舜 爲己憂 舜以不得禹皐陶 爲己憂 是爲天下得人而憂之也 孔子之去魯曰 遲遲吾行 孟子之去齊 則三宿出晝 是行道濟時而憂之也.

64) 한국고전종합DB, 『不憂軒集』 不憂軒集卷二 歌曲 「賞春曲」.

심리적 만족이며, 산수경관으로부터 비롯되는 즐거운 자신의 심정에 대한 자각을 통한 미적 감정이며 산수친화의 심경이라고 할 것이다. 자신의 감각이 산수경물의 대상에 대해 심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우현은 자신의 풍류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功名도날씩우고
富貴도날씩우니
淸風明月外에
엇던벗이잇스올고
篔簹陋巷에
훗튼혜음아니흐니
아모타百年行樂어이만흔들엇지흐리⁶⁵⁾

위의 시는 공명부귀를 버리고 청풍명월과 함께 산수에 은거하여 단표누항과 같은 간고한 삶을 지향하면서 허튼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삶에 대한 만족을 노래하였다. “아모타百年行樂어이만흔들엇지흐리”라며 스스로 만족해하였다.

이상과 같이 생각할 때 치사 후 정극인은 불우현에서의 산수생활 속에서 공명부귀를 벗어나고 청풍명월을 벗으로 삼은 단표누항의 가난한 삶 속에서도 “훗튼혜음”을 경계하며 느끼는 한가로움을 「상춘곡(賞春曲)」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러나 맹사성이 「강호사시가」에서 보인 연군지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적 관인 지향 의식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으니, 최상은의 다음 언급에서 잘 알 수가 있다.

<상춘곡> 역시 안빈낙도하면서 백년행락을 누리하고자 하는 표면적 의미 이면에는 강렬한 관인 지향적 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즉, <상춘곡>은 물러나 사는 사대부의 보편적인 명분 이면에 ‘산림’에서 진정한 안빈낙도를 하지 못하고 ‘홍진’을 향하여 강한 집념을 지니고 있었던 정극인의 고민을 내

65) 한국고전종합DB, 「賞春曲」.

포하고 있는 은일가사이다. 수기치인修己治人の 이념을 충족하지 못한 유가 사대부 정극인의 고민과 오랜 은일문학의 전통이 만남으로써 조선조 가사의 시작을 은일가사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⁶⁶⁾

최상은의 언급에서처럼 정극인은 「상춘곡」에서 표면적으로는 유가적 산수은거의 즐거움과 풍류를 노래하였으나, 경제학적 이상과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맹사성이나 정극인의 작품이 모두 산수시가의 효시적 성격을 지니면서 유학적 은거를 지향하였으나, 초기 은일문학으로서 지니는 과도기적 고민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상춘곡」은 순수국문으로 창작된 최초의 가사이면서도 정극인의 산수생활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는 것은 문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상춘곡」은 문학사적으로 볼 때 산수유기(山水遊記)의 양식에 속하는 최초의 순수국문학 가사작품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후대 산수유기의 효시적(嚆矢的) 작품이라는 의의가 있다.

맹사성과 정극인이 산수에 은거하면서도 버리지 못하였던 관리로서의 의식은 이현보에 이르러 더욱 희미해지며, 진정한 의미의 산수은거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2. 이현보의 귀거래와 山水遊賞

이현보(李賢輔, 세조 13~명종 10, 1467~1555)의 본관은 영천(永川)이고 호는 농암(壟巖)·설빈옹(雪鬢翁)이다. 농암은 연산군 3년(1498년, 32세)에 출사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중종 37년(1542년, 76세)때 지중추부사를 끝으로 치사(致仕)하고, 고향인 분천으로 돌아와 은거하였다. 연산조와 중종조에는 잦은 사화(士禍)로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하였으나, 농암은 연산군 10년에 2년간 안동으로 유배를 간 것을 제외하고는 만년까지(76세) 순탄한 관리생활을 영위하였다. 이것은 그가 중

66) 최상은, 「조선 가사문학의 시작, 최초의 은일가사 <상춘곡>」, 『오늘의 가사문학』6, 고요아침, 2015, 90쪽.

양관직보다는 주로 외직을 선호하였고, 관리 생활 중에도 귀거래(歸去來)에 대한 이상을 꿈꾸며 치사(致仕)에 뜻을 두고 있었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었다.⁶⁷⁾

당시의 사림들은 사회의 기득권에 대한 개혁을 주창하였으며, 왕권계승의 정통성이라는 가치를 국가 경영의 윤리성으로 확산시켜 일반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연산조의 사화와 조광조로 대표되는 중종조의 개혁실패는 그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세조 대부터 중종대까지는 극심한 정치적 대립에 의한 사회 혼란과 사회에 의한 선비의 수난시대였다. 사화는 정치적 권력에 의하여 선비들이 희생된 불행과 불운의 사건이었으나, 결국은 사림정신(士林精神)의 형성과 사림계층의 확대에 의한 사회개혁의 발전적 시대로 전개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사림정신을 유학적 이념의 실천과 학문환성을 최고의 목표요 가치로 제시하였는데, 이 이상적 가치는 이후 사대부계층의 이상적 삶의 전통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세조년간 사육신(死六臣)으로 대표되는 절의파(節義派)는 왕권계승과 충의정신의 실현을 통한 대의실현의 표상으로 존송되었으며, 조선조 사회로 하여금 개인의 가치를 사회적 대의로 형상화하게 하여, 왕권계승과 충의정신의 실현이라는 이념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이념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사림이란 선비계층을 일컫는 말로써 학문적으로는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한 실천철학을 강조하였으며 문학적으로는 사장파(詞章派)에 대립하는 도학파(道學派)로서 기교 중심의 문풍을 혁신하여 도의 회복을 강조하였다.⁶⁸⁾ 이와 같은 사림파의 주장은 문장에 있어 문학적 언어와 문장 구성의 기교적 표현을 억제하고 내용 중심의 주제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당시는 훈구파가 사림파로 전환되는 사회개혁의 역사적 시기였으며 문학적으로는 사장보다는 내용을 중요시 여겼다. 동시에 과거(科擧) 중심의 문풍(文風)을 비판하고 경세학(經世學)에서 학문 연구와 실천 중심의 도학(道學)으로 전환하는 시기였다.

67) 농암선생문집국역간행위원회, 國譯『龔巖先生文集』, 상원사, 1986, 345~362쪽, 『龔巖先生文集』 卷之六 附錄「崇政大夫行知中樞府事龔巖李先生行狀」 참조.

68) 사림의 대두와 사장파와의 대립은 류승국의 언급 참조하였다. “의리학의 학풍을 세운 이러한 사림(士林)의 후계자들은 도학의 의리정신을 내세워 관료 정치인이나 사장학파(詞章學派)와 대립하였다. 세조의 찬위(篡位) 이후 이를 지지한 훈구 세력(勳舊勢力)에 대하여 단종에게 질의를 지킨 사육신·생육신을 비롯한 재야의 사림은 훈구 세력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취하여 반목하게 되었다.”(류승국, 앞의 책, 2009, 187쪽.)

이를 계기로 성리학은 한국철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선도하였다. 이런 경향은 사림들로 하여금 산수은거를 통한 실천과 학문연구의 이상을 인생의 가장 가치있는 삶으로 인식되게 하였다. 그래서 사림들은 과거를 위한 학문의 기능성에서 벗어나, 수양과 실천 그리고 진리 탐구라는 형이상학적인 학문목표를 계층적 이념으로 받아들였다고 할 것이다.

농암의 산수은거(山水隱居)는 치사에 의한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농암이 항상 마음 속으로 산수은거에 대한 이상을 품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내면적으로 그가 꿈꾸던 자아실현의 이상적 삶의 구현이라는 성격이 짙다. 따라서 그의 산수은거와 산수유상(山水遊賞)을 통한 산수락(山水樂)은 이상실현의 만족감과 아름다운 산수의 감상에 대한 서정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농암의 분천은거는 이런 사회적 학문적 변혁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초기 사림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농암 산수은거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으니, 그의 산수시기도 이런 이상과 이념이 반영된 시세계를 형상화하였다.

농암의 생애에서 산수문학과 직결되는 시기는 76세(1542) 되던 해 가을 벼슬을 그만두고 분천으로 귀향하면서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歸去來)를 본떠서 「효빈가(效顰歌)」를 짓고 산수에 은거한 것이며 산수에 깊이 침잠하여 세속과 거리를 멀리 두고자 깊은 산속에 거처를 마련하고 영지산에 산당을 마련한 이후이다. 그때부터 농암 문학의 세계가 산수와 공간적 밀착과 정신적 동화에 의한 주관적 산수미(山水美)의 발견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퇴계가 농암 행장에서 언급한 다음과 같은 말은 그의 산수와 문학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반과 근거가 된다.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해진 후로는 더욱 계산 사이에 스스로 방랑하며 흥이 날때마다 문득 가서 놀면서 돌아오기를 잊고 나갈때는 반드시 산에서 노는 작은 기구를 스스로 가지며 혹 대(竹) 지팡이와 짚신으로 숲을 뚫고 언덕에 오르고 혹은 두 종(奴)에게 가마를 매게하며 냇물을 따라 순행하니 전부(田夫)와 목동(牧童)이 바라보고도 그가 재상임을 알지 못하였다.⁶⁹⁾

윗글을 살펴보면 농암의 산수유상과 산회(散懷)의 심경이 매우 시적인 표현으로 함축되어 형상화되어 있다. 그가 유학자임을 생각해 볼 때 정명도의 「방화수류과전천(訪花隨柳過前川)」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학을 배경으로 한 치사객(致仕客)의 품위 있고 여유 있는 노년의 삶이 산수와 어울려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서경미를 연상케 하며, 그림 속의 주인공처럼 농암의 삶이 아름답고 정겹고 고상한 정신의 경계를 찾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조선조 산수문학사에서 농암의 치사(致仕)와 분천은거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시사한다. 조선 성종조에 이르면 조선의 유학이 착근기(着根期)를 지나 발전기(發展記)로 접어든다. 정치사회적으로도 세조찬위로 비롯된 질의파에서 서서히 초기 사림파로 이동해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유교의 도통관(道統觀)에 입각한 인의(仁義)와 도덕(道德)의 회복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며 유교적 질서에 의한 국가의 통치가 기반을 형성해 나갔다.

이런 사회적 기풍에 발맞추어 초기 사림파는 경세학에서 서서히 성리학 중심의 실천위주로 학문적 경향이 옮겨갔다. 이런 정치사회적 배경과 학문적 경향에 의한 초기사림파의 선두에 농암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분천 은거와 애일당을 중심으로 한 산수시가의 문학적 배경이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농암이 치사의 동기과 목적을 노래한 「효빈가(效顰歌)」를 살펴보겠다.

歸去來 歸去來 말뿐이오 가리업시
 田園이 將蕪흔니 아니가고 엇넬고
 草堂에 淸風明月이 나명들명 기다리느니⁷⁰⁾ <效顰歌>

위의 시 초장과 중장은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중장은 농암의 창작인데, 초장과 중장의 시상(詩想)이 중장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69) 농암선생문집국역간행위원회, 앞의 책, 1986, 345~362쪽, 『龔巖先生文集』 卷之六 付祿 「崇政大夫行知中樞府事龔巖李先生行狀」, 退閒之後 尤自放於溪山間 每遇興到 輒縱游忘返 其出 必以遊山小具自隨 或竹杖芒鞋 穿林陟嶺 或藍輿兩奴 傍野巡溪 自田夫牧豎見之 不知其爲宰相也
 70) 농암선생문집국역간행위원회, 앞의 책, 1986, 253~255쪽, 『龔巖先生文集』 卷之四 歌詞 「效顰歌並序」.

있다. 초장은 단순한 인용이 아니라 내포된 의미가 있는데, 성호경의 “「호빈가」는 은퇴 귀향하는 도중에 자신의 歸去田園의 정당성 또는 불가피한 이유를 말한 작품이다”⁷¹⁾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 귀거래에 대한 농암의 의도가 담긴 것이다. 따라서 농암은 초장에서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통하여 자신의 귀거래(歸去來)의 목적을 밝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초장의 “말뿐이오 가리업식”은 당시의 시대적 풍조로 보아 농암의 귀거래가 특별하였음을 보여준다.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와 비교하면 농암의 치사귀은(致仕歸隱)은 그 성격이 더욱 분명해진다. 맹사성은 「강호사시가」에서 강호생활의 한가로움과 즐거움이 임금의 은혜(亦君恩)⁷²⁾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감격해 하고 있다. 이는 맹사성이 현직관리로서의 삶에서 물러나 강호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그 의식 속에서 관리로서의 직분과 이념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농암의 치사는 자신의 의지에 의한 이상실현(理想實現)으로, 완전히 관리로서의 삶을 벗어나 자연에 은거하는 산수락(山水樂)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농암이 관리생활 중에도 귀거래에 대한 이상을 꿈꾸며 명농당(明農堂)에 귀거래도(歸去來圖)를 그려놓고⁷³⁾ 항상 마음속에 분천(汾川)으로 돌아갈 것을 염원하였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적 풍조로 볼 때 농암의 귀거래는 맹사성의 경우와 다르게 관리로서의 삶을 떠나 산수(山水)에 은거(隱居)하여 도를 실천하는 도학 중심의 실천주의 학풍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초장의 “말뿐이오 가리업식”은 많은 관리들이 귀거래를 꿈꾸지만 실제로 실현하는 사람은 드물며 또한 시대적 풍조도 그렇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자신의 귀거래를 자임(自任)하는 심정적 고백이 함축되어 있다. 또한 농암 자신의 귀거래에 대한 생각을 유추해 보면, 자신의 귀거래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천산수생활의 규범과 표준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농암은 자신의 분천은거(汾川隱居)를 통해 유학자로서의 치사귀은(致

71) 成昊慶, 앞의 논문, 2002, 231쪽.

72) 江湖生活을 春夏秋冬으로 나누어 읊은 連時調인 「江湖四時歌」는 각 수의 종장 마지막 구를 “역군은(亦君恩)이샀다”로 마무리 하면서 강호생활의 모든 즐거움이 임금의 은혜에서 비롯됨을 강조하고 있다.

73) 농암선생문집국역간행위원회, 앞의 책, 1986, 5~8쪽, 『龔巖先生文集』 卷之一 詩, 「題明農堂 並序」, 遂得隙地 鑿池而作堂其上 堂成 畫以淵明歸去來圖.

仕歸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곧 도학의 실천이니, 「효빈가(效顰歌)」의 중장과 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산수락(山水樂)이다. 중장 “田園이 將蕪호니 아니가고 엇델고”에서는 도연명의 전원락(田園樂)을, 종장 “草堂에 淸風明月이 나명들명 기다리느니”는 농암 자신이 추구한 산수락을 제시하고 있다.

곧 농암의 산수락은 도연명의 귀거래 효방을 노래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시대적 배경 및 사림계층의 은거와 이상을 고려해 볼 때, 특히 맹사성에 비하여 훨씬 산수친화의 감정과 개인적 서정이 깊어지고 개성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정극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봄 경치의 감상’에서 나아가 사대부의 유교적 이념과 이상이 분천은거를 통해 심화되고 개인적 삶의 방향을 자연에 심입하게 하여 농암 산수시가의 시세계를 형성하였다.

그래서 농암의 치사 후 이상실현으로서의 산수생활은 많은 선비들에게 모범이었다. 회재 이언적 또한 농암과의 작별을 아쉬워하면서 부러워하고 있다. 농암이 치사 후 세운 애일당에 회재 이언적은 시를 지었으며, 이 시에 많은 문인들이 차운하였다. 다음 시를 살펴보자.

애일당에 이회재 운을 미루어 차운하다(愛日堂追次李晦齋韻)

삼조에 벼슬하고 팔순을 누려서
 급류에 용되는 세상에 잘 없다
 산림에 높은 취지는 도홍경(陶弘景)이요
 암학(巖壑)에 은거는 정자진(鄭子眞)이라
 그대는 명홍(冥鴻)같이 날개를 펴치고
 나는 마른 물 붕어같이 비늘을 씻기고
 높은 정자 벽에 농(龕)이라 호(號)하다
 문득 세상 소리 귀에 들리는 것이 두렵다

軒冕三朝享八旬 急流勇退世無人
 山林高趣陶弘景 巖壑幽棲鄭子眞
 君似冥鴻搏逸翮 我如涸鮒曝枯鱗
 亭高翠壁龕爲號 却怕塵囂入耳頻⁷⁴⁾

74) 농암선생문집국역간행위원회, 앞의 책, 1986, 457쪽, 『龕巖先生文集』 卷之七 附錄之二.

위 시는 이현보가 증견한 애일당에 회재가 지은 시를 채소권(蔡紹權, 성종 11~명종 31, 480~1548)이 차운한 것이다. 채소권은 홍문관부제학, 경기도관찰사, 대사헌, 형조판서 등의 고위 관직을 두루 지낸 인물로 현직에 있을 때는 농암과 주세붕 등과 친교하였으며 치사 후 고향에 돌아가서는 황준량 등과 친교하였다.

위 시의 3구에서 채소권은 농암의 치사에 대하여 산림의 높은 취지가 있다고 하면서 도홍경을 닮았다고 말하고 있다. 도홍경은 중국 남조 때 양나라 사람으로 벼슬의 권유에도 은거생활을 지킨 인물로 유명하다. 채소권은 산수친화의 생활을 ‘높은 뜻(高趣)’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은거의 모범으로 여겨지는 도홍경에 빗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암의 분천생활의 암학(巖壑) 은거를 정자진(鄭子眞) 은거와 같다 하고 있는데, 정자진은 중국 곡구현 사람으로 세인들이 그의 은거 수양의 고귀함에 감복하였다고 전해진다.

채소권은 농암의 은거를 정자진의 고결한 은거의 뜻과 비교하며 높이 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현보의 호가 농암(龔巖)인 것을 언급하며 농암의 은거가 진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유학자적 삶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채소권은 농암의 분천은거가 도홍경과 정자진의 뜻과 같으며, 유학적 산수친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니, 「효빈가 서」에서 농암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정(嘉靖) 임인년 가을에 농암옹이 비로소 벼슬을 그만 두고 국문(國門)을 나와 돌아오는 배를 세 내어 한강가에서 작별하고 배 위에 취해 누우니 달이 동산에서 뜨고 가는 바람이 불었다. 도연명의 “배는 흔들리어 가볍게 날리고 바람은 불어 옷깃을 나부낀다(舟搖搖以輕颺風飄飄而吹衣)”의 구절을 읊으니 돌아갈 흥이 더욱 짙어 즐거이 웃고 이 노래를 지으니 이 노래는 본래 도연명의 귀거래사로 지은 까닭으로 효빈이라 한다.⁷⁵⁾

75) 농암선생문집국역간행위원회, 위의 책, 1986, 253~254쪽, 『龔巖先生文集』卷之四 歌詞, 「效顰歌并序」, 嘉靖壬寅秋 龔巖翁始解圭組出 國門賃歸船 飲餞于漢江 醉臥舟上 月出東山 微風乍起 詠陶彭澤舟搖搖以輕颺 風飄飄而吹衣之句 歸興益濃 怡然自笑 乃作此歌 歌本淵明歸去來辭而作 故稱效顰.

효빈(效顰)은 월(越)나라 미인 서시(西施)의 고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농암 자신의 치사귀은이 도연명의 전원락(田園樂)을 모범으로 하고 있지만, 타인에게 자신이 비취질 때 효빈(效顰)과 같이 평가되어질지도 모른다는 염려의 마음과,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겸손함이 혼용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윗글에서 ‘돌아가는 흥겨움’은 치사귀은의 즐거움과 자기만족의 기쁨을 의미한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정치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암은 40여 년의 벼슬살이를 무난히 마치고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 고향인 분천으로 귀향하여 산수를 즐기며 새로운 노년의 삶을 개척하였다.

농암의 치사귀은은 농암 자신에게나 그를 바라보는 주변 사대부들에게나 이상적인 것이었고, 당시의 시속(時俗)에서 보았을 때 매우 드문 일이었다. 이것은 그의 시가문학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는데,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현실관과 즐겁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긍정적 서정의 영역을 확장하게 되는 출발점이 된 것이다.

농암은 치사 후 고향인 분천(汾川)으로 내려와 농암(龔巖)바위 위에 애일당(愛日堂)을 짓고 산수생활을 시작하였다. 이 애일당은 인공 건조물로서 사람의 창조물에 속하는데, 농암은 사람의 건조물에 애일당이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관념적 의지를 의상으로 표현하였다.

안동 예안지방 낙동강 상류가 흐르는 분천리(汾川里)에는 귀머거리 바위라 불리는 농암(龔巖)이 있는데 농암은 이 분천(汾川)의 경치를 사랑하여 부모님을 위해 이곳에 애일당을 짓고 그곳에서 산수생활의 즐거움을 노래하였다. 그래서 「애일당중신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龔巖바위를 향간에서는 耳塞岩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농암바위 뒤로 급속한 여울이 흘러서 큰 물소리로 말미암아 사람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隱遁黜陟을 不聞하는 사람이 살기에 합당하여 바위 이름을 龔巖이라 하였고, 이를 농암이 자신의 字號로 삼았다.⁷⁶⁾

76) 농암선생문집국역간행위원회, 앞의 책, 1986, 231~233쪽, 『龔巖先生文集』 卷之三 雜著, 「愛日堂

애일(愛日)이란 효자가 부모를 봉양할 날이 많지 않음을 안타까워하여 날을 아껴 효도를 다한다는 뜻이며,⁷⁷⁾ 이처럼 농암은 자신의 호를 통해 치사의 동기를 함께 밝히고 있다. 또한 별당을 지어 긍구당(肯構堂)⁷⁸⁾이라고 이름 붙이고, 시를 지어 아버지를 위한 효성을 노래하였다. 이처럼 농암은 건조물의 이름짓기를 통해 유교적 관념과 실천의지를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분천은 농암의 귀거래 이후의 이상실현을 위한 공간적 환경이자 농암이 그 중심이며, 치사귀은을 상징하는 의상(意象)으로 형상화되었다.

애일당에서의 생활은 퇴직한 관리로서의 어떤 공리성이나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므로 농암은 산수와의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그 서정의 세계에 있어서 현실적 공리성을 떠나 매우 밀접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였다. 이는 곧 농암의 산수감상의 미적 태도이며 산수미 발견과 산수락의 초기적 동기로 작용하여 산수락을 자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산수락은 농암과 점석이라는 자연물에서 서정으로 옮겨가게 되며, 산수와의 교유 속에서 농암의 창조적 의상이 형성된다. 결론적으로 농암 시가에서 산수경물과 융화됨으로써 산수미로 발전한다. 「농암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龔巖에 올라 보니 老眼이 猶明이로다
 人事이 變흔들 山川이 썩 가실가
 巖前에 某水某丘이 어제 본듯 ㅎ예라⁷⁹⁾ <龔巖歌>

농암바위 위 애일당에 오르니 노안이 밝아진다. 세상 모든 것이 변했는데 산천은 변하지 않아 옛적 놀던 산과 언덕이 어제 본 듯하다. 「농암가」는 이처럼 산수

重新記」, 巖舊無名 諺傳耳塞巖 前臨大川 上有急灘 灘鳴響應 聾塞人聽 耳塞之名 其必以此 宜乎 隱遯黜陟不聞者之居 因謂之龔巖而翁自號焉.

77) 농암선생문집국역간행위원회, 위의 책, 1986, 231~233쪽, 『龔巖先生文集』卷之三 雜著, 「愛日堂重新記」, 而親年日深 喜懼之情 自不能無乎其中 扁其堂額曰愛日.

78) 긍구당은 아버지가 이룩한 일을 아들이 잘 이어받았음을 뜻하는 당호(堂號)이다.(『書經』, 「大誥」, 若考作室 既底法 厥子乃不肯堂 矧肯構.)

79) 『고시조대전』, 1084.1, 232쪽.

에 대한 회화적인 묘사가 돋보인다. 그러나 「농암가」에 드러난 회화적 표현은 1차원적인 산수경물의 묘사라기보다는 농암의 내적 서정이 이입되어 시적 존재로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농암의 치사 후 현실의 권력과 명예로부터 떨어진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과 즐거움을 농암바위 위에서 바라본 풍경에 기탁하여 표현한 것이다.

농암은 퇴계와 시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활발한 교류를 하였는데,⁸⁰⁾ 퇴계가 「어부가」에 비상한 관심을 가진 점과 자신이 직접 국문시가를 창작하여 시동들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하고, 농암의 사후 도산서당의 앞 강 한가운데 드리워있는 ‘점석’과 흡사한 ‘반타석(盤陀石)’을 사랑하는 모습⁸¹⁾은 퇴계의 학문과 문학이 농암과의 교류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케 한다.

우리나라 어부가계 시가로는 먼저 『악장가사(樂章歌詞)』에 수록된 「어부가(漁父歌)」를 들 수 있다. 12장으로 된 「악장어부가(樂章漁父歌)」⁸²⁾는 4구 7언 한시(漢詩)에 우리말 토를 달고, 거기에다 「어부사(漁父辭)」 특유의 행주과정을 나타내는 조흥구와 노 젓는 소리의 의성어로 된 후렴구가 더해진 형태를 취하고 있다.⁸³⁾

이 「악장어부가」는 고려시대에 창작되고 향유되었으며, 려말 사대부의 산수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一片明月이 亦君恩이샷다”에서 일편명월은 산수경물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특정 관념의 비유물로서 존재한다.⁸⁴⁾ 여기서 “일편명월”이라는 산수경물은 단순히 하나의 자연물이 아니라 산수생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亦君恩이샷다”에서 보듯이 “一片明月”은 서정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군은이라는 관념을 비유하기 위한 소재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농암의 「어부가」는 현실정치를 벗어나 현실초탈의 감정에서 산수에 은거하는 삶을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강호사시가」의 주제의식에 접근하여 그 전통적 맥락을 잇고 있다. 그러나 맹사성은 고관대작으로서 명예로운 관직생활을 마

80) 『龔巖先生文集』 卷之三 書에는 농암이 보낸 서신 18편이 실려 있는데 이 중 퇴계와 주고받은 것이 17편이다.

81) 李性源, 「龔巖과 退溪의 文學的 交遊樣相」, 安東文化研究所 編, 『龔巖 李賢輔의 文學과 思想』, 安東大學校, 1992, 285쪽.

82) 龔巖의 「漁父歌」와 구분하는 의미로 『樂章歌詞』 수록 「漁父歌」는 「樂章漁父歌」로 부르도록 하였다.

83) 박규홍, 『어부가의 변별적 자질과 전승양상』, 보고사, 2011, 79쪽.

84) 여기현, 「어부가의 표상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45쪽.

친 후에 치사하여 여유로운 산수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해, 농암은 임금의 은혜를 완전히 벗어나서 세속을 잊고 자연 속에 은거하는 자연친화적인 삶은 즐기는 한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므로 「漁父歌」는 자연에 몰입하여 자연친화적 서정이 확대되고 심화된 농암의 독창적 산수락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농암 「漁父歌」의 산수락은 현실초월적 이상향을 지향하는 시적 경향을 극복하고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실천유학적 이념을 함축하고 있다. 양희찬이 「어부가」를 두고 “이 작품의 성격을 길어로는 개인 서정을 표현하면서, 속으로는 조정 관료들에게 치세의 자세를 경계한 작품이라고 규정하였다”⁸⁵⁾는 언급에서처럼 「어부가」에는 치사 후 산수생활에서의 서정과 함께 유학적 세계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농암이 많은 유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얻은 유교적 이념의 세계가 시에 반영되었기 때문인데 특히 퇴계와 어부가 찬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유교적 이념의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어부가」는 「어부장가(漁父長歌)」와 「어부단가(漁父短歌)」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어부단가(漁父短歌)」가 농암의 개인적 창작의 성격이 짙으며, 순수국문학장르인 완전한 시조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농암의 산수문학적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어부가」의 시세계와 의경에 대하여 농암은 「어부가 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보기에 사어(詞語)가 한적하고 의미가 심원하여 음영(吟詠)을 하던 나며지에 사람으로 하여금 공명에 벗어나고 표현히 세속 티끌 밖에 나가듯 하였으나 이것을 얻은 후로는 전에 보던 가사는 다 버리고 오로지 이것을 뜻에 두고 손수 써서 꽃핀아침 달 뜬 저녁에 술(酒)을 잡고 벗을 불러 분강의 배 위에서 율게하니 흥미가 더욱 진진하였다.⁸⁶⁾

85) 양희찬, 앞의 논문, 203쪽.

86) 농암선생문집국역간행위원회, 앞의 책, 1986, 262~264쪽, 『龔巖先生文集』 券之四 歌詞 「附漁父短歌五章」, 余觀其詞語閒適 意味深遠 吟詠之餘 使人有脫略功名 飄飄遐舉塵外之意 得此之後 盡棄其前所玩悅歌詞 而專意于此 手自謄冊 花朝月夕 把酒呼朋 使詠於汾江小艇之上 興味尤眞.

위의 인용문을 볼 때 「어부가」의 내용은 사어한적(詞語閒適)과 진외지의(塵外之意)라고 할 수가 있다. 「어부가」를 통한 농암의 분친생활에 대하여 퇴계는 「어부가 발문(漁父歌 跋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직 우리 농암선생이 七十을 넘어 벼슬을 그만두고 분수(汾水)의 물가에 물러와 여러번 왕명(王命)으로 부르셔도 아니가시고 부귀를 부운같이 여기고 아담한 회포를 물외(物外)에 부쳐서 항상 작은 배와 짧은 삿대로 연파(煙波) 속에서 구속이 없이 자유로히 노닐고 낚시 놓던 바위 위에서 배회하며 갈매기를 벗하여 고기 보기를 즐겨 강호의 낙을 참으로 얻으셨다.⁸⁷⁾

위 글에서 퇴계가 말한 농암의 강호지락은 곧 산수락이며 치사 이후 분천에 은거하며 감정적 산수친화에 의한 서정성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어부가」를 통하여 농암은 자신의 산수락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래서 「어부가」에 등장하는 산수경물은 각각이 하나의 의상을 형성하였다. 구체적 작품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이 둥에 시름 업스니 漁父의 生涯이로다
一葉扁舟를 萬頃波에 띄워 두고
人世를 다 니젯거니 날 가는 줄롤 안가⁸⁸⁾ <漁父歌, 一>

구머는 千尋綠水 도라보니 萬疊青山
十丈紅塵이 언매나 ㄴ렛논고
江湖애 月白호거든 더욱 無心호애라⁸⁹⁾ <漁父歌, 二>

위 시는 농암의 어부단가 1~2수이다. 농암이 「어부가(漁父歌)」를 노래할 수

87) 농암선생문집국역간행위원회, 위의 책, 1986, 264~267쪽, 『龔巖先生文集』 券之四 歌詞 「附書漁父歌後」 惟我龔巖李先生 年踰七十 卽投絃高厲 退閑於汾水之曲 屢召不起 等富貴於浮雲 寄雅懷於物外 常以小舟短棹 嘯傲於烟波之裏 徘徊於釣石之上 狎鷗而忘機 觀魚而知樂 則其於江湖之樂 可謂得其眞矣.

88) 『고시조대전』, 3892.1, 823쪽.

89) 『고시조대전』, 0451.1, 95쪽.

있었던 것은 분천이라는 지리적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분천을 중심으로 한 농암바위와 점석 등의 산수경물들은 농암의 「漁父歌」가 관념적 어부의 생활이 아니라 실천적 생활 속의 경험할 수 있는 산수락(山水樂)을 구성하는 필수적 요건이었다.

그래서 「어부가歌」를 보면 농암의 벼슬로부터 떠나 산수에 은거하면서 산수생활에 대하여 만족해하며 세속에 일에 대하여 벗어나 있다. 이와 같은 농암의 산수락은 과거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새로운 창의의 시적 세계를 다음 세대에게 전승시켰다는 점에서 시가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다음 시를 살펴보자.

靑荷에 바늘 뺀고 綠柳에 고기 빼어
蘆荻花叢에 비 미야 두고
一般淸意味를 어니 부니 아르실고⁹⁰⁾ <漁父歌, 三>

따라서 위에 인용한 「어부가」에는 “일반청의미(一般淸意味)”와 “무심(無心)”에 그 시상의 핵심이 집약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어부가」의 기반을 이루는 서정으로 산수락의 핵심을 이룬다. 이 “일반청의미”에 대하여 손오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석적으로 ‘일반청의미’는 ‘일반’+‘청의’+‘미’로 구성되었다고 전제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일반’은 산수시가의 소재이며 또한 산수시가가 형상화해 내고자 하는 궁극의 미적대상이다. ‘청의’는 그러한 미적 대상에서 시인이 발견한 내용으로서의 가치이며 ‘미’는 시인의 감각을 통하여 체험한 미감으로서 서정이다. (중략) 일반인생사, 즉 평범한 인간의 삶을 의미한다. 조선조 사대부로서의 평범한 인간의 삶이란 벼슬을 버린 생활로서 위의 시에서는 어부로 대변된다. (중략) 평범한 인간의 삶을 대변하는 어부는 이러한 외재적 요소를 추구하는 사회활동의 정지와 자아의 삶의 목적에 대한 탐색과 삶의 본질을 깨달아 참된 인간완성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한 의지의 실현을 상징한다. 이 의지는 욕망을 억제하여 이기적인

90) 『고시조대전』, 4850.1, 1057쪽.

인간의 모습을 벗어나 궁극적으로는 욕망으로부터 초탈한 정신생활의 자유의식에 대한 지향이다. 인간의 내면에 잠재한 자유의식이 표면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현상적 삶과 현재적 삶의 모습에 대한 자각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 자각의 계기가 산수문학에서는 은거로 나타난다.⁹¹⁾

윗글을 참고로 할 때 농암의 은거의 집약적 표현은 어부의 일반의사와 무심의 자각에 함축되어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농암의 은거는 산수문학에 있어서 맹사성이나 정극인과 비교해봐서도 훨씬 산수와의 지리적 환경이나 거리, 심리적 친밀도가 매우 긴밀하니, 곧 산수애호의 정신이 산수친화의 감정으로 발전하고 그 정신의 세계가 대자연 속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곧 문학이라는 예술의 형식과 만날 때 미적 의식으로 승화되어 자신만의 시적 세계를 구축하는 기반이며 배경이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로 「어부가」를 분석해보면, 산수시가사적으로나 산수미학적으로 농암 시가의 매우 중요한 의의를 발견할 수가 있다.

2수의 초장 “구버는 千尋綠水 도라보니 萬疊靑山”과 4수의 초장 “山頭에 閑雲이 起호고 水中에 白鷗이 飛이라”은 분천 산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이다. 곧 농암은 분천에서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주변 산수경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였다. 농암 「어부가」의 현실성과 서정성이 실제적 미적 감정으로 「어부가」 속에 형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첫째, 「어부가」에 형상화된 산수락은 분천이라는 산수에 은거하며 주변 산수경물로부터 비롯된 감정이다. 특히 이때의 감정은 산수로부터 받은 인상이자 느낌인 1차적 감정이며 이 감정이 시상이 깊어지면서 서정의 영역으로 발전하게 된다. 1수의 종장 “人世를 다니젯거니 날가논주를 알라”와 2수의 종장 “江湖애 月白호거든 더욱 無心호애라” 3수의 종장 “一般淸意味를 어너부니 아르실고”의 시상은 4수에서도 이어진다.

91) 손오규, 앞의 책, 2006, 58~59쪽.

山頭에 閑雲이 起호고 水中에 白鷗이 飛이라
無心코 多情호니 이 두 거시로다
一生에 시르플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⁹²⁾ <漁父歌, 四>

4수의 종장 “一生에 시르플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은 세속의 일에서 벗어난 심정을 노래한 부분인데, 현실초월적이거나 특히 현실도피적 허무주의에 입각한 비현실적 상상이 아닌 실제적 감정으로써 그의 「어부가」 속에 긍정적이며 밝고 즐거운 쾌의 감정을 유발하여 산회의 심정을 통해 시적 서정성으로 형상화되었다.

둘째, 「어부가」는 어부가계 시가의 전통적 산수락과 초탈적 서정을 수용하며 산수은거의 실제적 경험에 기반하여 창의적 작품세계를 완성하였다. 다음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長安을 도라보니 北關이 千里로다
漁舟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라
두어라 내 시름 안니라 濟世賢이 업스라⁹³⁾ <漁父歌, 五>

「어부가」의 5수를 보면, 농암은 벼슬로부터 떠난 산수생활에 만족하며 세속의 일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와 같은 농암의 산수락은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창의의 시적 세계를 다음 세대에게 전승시켰다는 점에서 시가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조선 초기 맹사성, 정극인, 이현보로 대표되는 경세학파들은 경국제민의 이상을 실현하고 치사 후 산수에 은거하며 도연명의 귀거래를 호방한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산수락으로 형상화 하였다.

맹사성과 정극인, 이현보가 거처한 은거의 장소는 실제로 생활이 가능한 현실 공간이며 그 속에서 느끼는 산수락도 체험적 감정의 승화된 서정이다. 하지만 그들의 산수시가 작품 속에서는 치사객의 의식이 잠재되어 있으며 산수가 현실 초

92) 『고시조대전』, 2300.1, 494쪽.

93) 『고시조대전』, 4212.1, 895쪽.

탈의 탈세속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IV. 獨善山林의 이념과 천석고황

연산군 이후 사화기의 사림과 산수문학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전 시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흐름이 있었다. 또한 성리학이 도학적 기풍으로 바뀌면서 이론으로서의 성리학보다는 실천경험적 이치의 실천이 생활 속에서 구현되도록 학풍이 변화하였다. 그리고 이런 학문적 기풍으로 사림계층이 폭넓게 형성되었으며, 산수문학의 완성과 더불어 형이상학적 시경을 개척해나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산수의 형식미는 다양한 내용미를 함축함으로써 대자연의미를 미적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당시 사대부들의 은거의 동기와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보면 첫 번째는, 정치적 불우에 의한 귀양이나 낙향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산수은거이다. 이 경우는 비록 몸은 산수에 은거할지라도 마음은 항상 벼슬길에 있었으며, 언제든 왕의 부름이나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인한 벼슬길로의 복귀를 꿈꾸고 있었으니, 산수자연은 일시적 정치적 불우의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많은 시가문학작품이 탄생하였으니, 유배가사나 유배지에 서의 시가문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비록 정치적 불우에 의해 산수에 은거하더라도 사대부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학문 연구와 도의 실천, 그리고 경제의 공업을 위해 수양의 삶을 견지하며 도학자로서의 실천적 삶을 영위한 경우이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가 정치현실에서 벗어나 산수에 은거하였으나, 그 시가문학작품은 자기위안적 현실초탈의 이상세계를 지향하였다면, 두 번째 경우는 도학자로서 학문연구와 실천을 우선하였으니, 곧 독선산림(獨善山林)에 의한 수양형(修養型)으로 유교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사실적 산수미와 서정으로서의 산수락을 형상화하였다.

그 대표적 인물로 퇴계 이황과 회재 이언적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산수은거의 동기와 궁극의 목적이 서로 상이하며, 산수문학의 세계가 각각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전통적 맥락을 형성하였다. 더구나, 회재

이언적은 실제적으로 영남학파의 창시라고 일컬어지며, 퇴계는 한국철학의 학문적 체계를 완성하였다고 평가되니, 이 두 분의 산수문학의 세계는 상이하면서도 유사하고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각각의 특색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면에서 두 사람의 시가는 산수시가사적으로 매우 완성된 시가문학의 세계를 창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도산십이곡」이라는 순수 국문학작품을 남긴 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이황의 천석고황과 왕래풍류

퇴계는 한국 산수문학의 백미인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을 지었다. 「도산십이곡」은 도산 은거 이후 최만년기의 작품이기 때문에 「도산잡영(陶山雜詠)」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수문학은 형식미와 내용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형식미는 서경이며 내용미를 형성하는 기반은 성리학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퇴계의 도산은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퇴계는 치사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 불우에 의한 것도 아닌 자신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 스스로 산수에 은거하였다. 따라서 퇴계의 은거는 매우 현실주의적이다. 곧 퇴계가 산수에 묻힌 목적은 자신의 학문완성이었으며, 「도산십이곡」의 사상적 배경이요 기반이다. 이와 같은 학문 완성의 길에서 파생된 것이 퇴계의 산수문학이다. 그래서 퇴계의 은거는 한국 산수문학사에서 산수문학을 완성하였으며, 한국 산수의 아름다운 산수미를 창조해 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퇴계는 산수를 적극적인 학문의 대상이자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학문의 대상은 철리적인 것이며, 아름다움의 대상은 문학적인 것이다.

퇴계의 「도산십이곡」은 12수 연시조 형식의 순수국문학작품으로 산수시가에서 최고의 예술성과 문학성을 가진 작품이다. 또한 조선전기 산수시가의 대표 작품으로 이후 육곡계 시가의 전통을 형성하였고 산수자연과 성리학을 교유시켜 내

용미를 극대화하였다.

이에 대해 퇴계는 「도산십이곡 발(陶山十二曲 跋)」에서 자신의 전육곡을 언지(言志)라 하였고 후육곡을 언학(言學)이라 하였다. 따라서 이 언지언학(言志言學)은 「도산십이곡」의 주제를 이르는 말이면서도 퇴계의 문학관을 통틀어 암시하는 언급이기도 하다. 다음을 살펴보자.

노인(老人)은 평소 음률(音律)을 알지는 못하나 그래도 세속의 음악은 듣기를 싫어하였다. 한가히 살면서 병을 돌보는 여가에 무릇 정성(情性)에 감동이 있는 것을 매양 시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는 달라서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하지는 못한다. 만약 노래하려면 반드시 시속 말로 엮어야 되니, 대개 나라 풍속의 음절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일찍이 이씨의 노래를 모방하여 도산 6곡이란 것을 지은 것이 둘이니, 그 하나는 뜻을 말함이요, 그 하나는 학문을 말한 것이다.⁹⁴⁾

위에서 퇴계는 자신이 음율을 모르나 세속의 음악은 싫어하여 성정에 대한 느낌을 시로 나타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속(俗)의 음악보다는 아(雅)의 음악을 좋아했다는 언급이다. 그러면서도 옛 시에 비해 퇴계 시기의 한시는 노래 부를 수 없게 되었다는 한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속(俗), 아(雅), 가(歌)에 대한 자신의 시론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별 육가」를 모방하여 지은 「도산십이곡」 전육곡의 주제를 ‘언지(言志)’로, 후육곡의 주제를 ‘언학(言學)’으로 자술하고 있다.

퇴계는 성리학자로서 주자학을 받아들여 한국철학을 완성하였다는 철학사적 의의가 있으며, 퇴계의 학문은 심성론에 그 창의적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⁹⁵⁾ 경은 실천철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지니 사림의 세계관과 현실주의적 처

94) 한국고전종합DB, 『退溪集』 퇴계선생문집 제43권, 跋「陶山十二曲跋」, 老人素不解音律 而猶知厭聞世俗之樂 閒居養疾之餘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 然今之詩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 所不得不然也 故嘗略倣李歌 而作為陶山六曲者二焉 其一言志 其二言學.)

95) 퇴계학에서의 심학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퇴계학을 심학으로 규정하는 관점을 분석한 홍원식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홍원식, 「퇴계심학과 <심경부주>」, 『민족문화논총』30, 영남대학교 민

세관 및 벼슬에 관한 진퇴사수의 기준이요, 지침으로 그 전형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퇴계의 도산은거는 세속적 명예나 이욕을 벗어나 경을 실천한 사림으로서의 전형적 모습이며 학문완성을 위한 학자로서 이상실현의 전형이다. 다음 글에서 퇴계의 실천적 학문과 인생을 요약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理’는 감각적 효용을 넘어서 궁극적 가치표준으로 추구되는 ‘내재성의 초월’이며, 그 실천의 ‘敬’은 표준을 지향하는 인간 삶의 과정과 양태를 섬세하게 갖고 다듬어 가는 ‘초월의 내재화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⁹⁶⁾

위의 글에서 언급하는 ‘리(理)’와 ‘경(敬)’은 퇴계 문학의 배경사상이요, 미적 표현의 기준으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퇴계의 「도산십이곡」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퇴계 65세 최만년기(最晩年期)의 작품인 「도산십이곡」은 그의 학문과 인생이 순숙하고 도의 경계에 이르렀을 때 창작되었다.

이종호는 퇴계가 산수미, 혹은 자연산수, 산수자연이라는 구체적인 말을 쓴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美)’라는 용어는 자주 사용하였으며, 그 가운데 자연의 미는 퇴계가 지향한 궁극의 지향점이라고 언급하였다.⁹⁷⁾ 이종호의 언급은 퇴계가 자신의 철학을 자연에 녹여 산수시가의 내용미를 심화시키고 확대시켜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퇴계는 도산생활기인 61세(1561년)에 「도산잡영」을 지었다. 다음의 「도산잡영」의 시를 살펴보면 「도산십이곡」의 의미가 더욱 뚜렷해진다. 그러면 도산서당에 은거한 퇴계의 생각을 살펴보자.

도산서당(陶山書堂)

순임금 친히 질그릇 구우니 즐겁고 또 편안하였으며

도연명 몸소 농사지으니 또한 얼굴에 기쁨 넘치네

죽문화연구소, 2004.)

96) 금장태, 『퇴계학파의 사상1』, 집문당, 2001, 27~28쪽.

97) 이상의 내용은 이종호의 다음의 언급을 참조하였다. “퇴계도 ‘미’(美, 155회)자를 즐겨 사용하였다. 퇴계는 ‘미’라는 낱말을 순수하게 미적인 범주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모든 대상이나 행위에 대해 폭넓게 사용하였다. (중략) 그 가운데 자연의 미는 모든 미의 원천이요 궁극의 지향점이다.” (이종호, 앞의 논문, 2007, 222쪽.)

성인과 현인의 마음 쓰는 일 내 어찌 터득하리오만

흰머리 되어 돌아와 『시경』의 「고반시」 읊어 보네

大舜親陶樂且安 淵明躬稼亦歡顏

聖賢心事吾何得 白首歸來試考槃⁹⁸⁾

위 시의 1, 2구에서는 순임금과 도연명이 직접 질그릇을 굽고 농사를 지었다고 말하며, 그 모습을 “즐겁도 또 편안하였으며(樂且安)”, “얼굴에 기쁨 넘치네(歡顏)”라고 표현하고 있다. 손오규는 위 시의 농사짓고 질그릇 굽는 모습에 대하여 퇴계가 도산은거에서 직접 채소밭을 가꾸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벼슬을 떠난 自然親和의 삶을 형상화한 것이다.”⁹⁹⁾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산수친화라는 퇴계의 이상이 도산은거를 통해 실현되는 일면을 알 수 있는 지적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 퇴계는 3, 4구에서 순임금과 도연명을 성인과 현인에 비유하며 『시경』과 「고반시」를 읊었다. 『시경』은 5경 중 하나로 유교의 경전이며, 「고반시」는 『시경』에 수록된 은거의 즐거움을 노래한 시이다. 따라서 위 시에서는 퇴계가 자신의 은거생활의 이상을 이 두 분에게 두고 있으며, 유학적 이상을 실현하려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퇴계는 위 시의 제목을 “도산서당(陶山書堂)”이라고 지음으로써 자신의 이상적 은거생활의 중심공간이 도산서당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런들 엇다흐며 더런들 엇다흐료

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다흐료

흐물며 泉石膏肓을 고터 르슴 흐료¹⁰⁰⁾ <陶山十二曲, 前一曲>

초장은 중장에서 말하는 초야우생의 삶을 말한 것이다. 이 초야우생은 퇴계 자신의 도산은거를 말하며 그 원인이 ‘천석고황’에서 비롯한다. 이 천석고황은 사립

98) 「도산서당(陶山書堂)」 원문과 해석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였음. (이황 지음, 이장우·장세후 옮김, 『도산잡영』, 을유문화사, 2005, 67~68쪽.)

99) 손오규, 『퇴계시와 미학』, 제주대학교출판부, 2012, 134쪽.

100) 『고시조대전』, 3766.1. 793쪽.

과로서 퇴계 산수은거의 원인과 목적을 알 수 있는 핵심이다. 천석은 물과 돌이며, 고향은 신체 내부의 장기에 병이 들어 고칠 수 없는 고질이다. 따라서 퇴계가 자신의 은거를 천석고향이라 함은 천성적으로 산수를 사랑하여 고칠 수 없는 체질적인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나아갈(出) 길과 물러남(處)의 길이라는 두 삶의 형태를 모두 긍정하면서도, 물러남의 길을 선택하여 자연과 더불어 갈아가는 삶을 앞으로도 고치지 않겠다는 자기 다짐의 노래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황병익의 언급을 살펴보자.

<도산십이곡> 언지1의 ‘이런들 엇다흐며’는 선비의 삶에서 ‘처(處), 퇴(退)’, ‘더런들 엇다흐료’는 ‘출(出), 진(進)’을 의미한다. 학문을 하다가 남은 힘이 있으면 벼슬하고, 벼슬하다가 남은 힘이 있으면 학문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처신하는 절도로 삼아 의리에 만족한 바를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생각과도 일맥상통한다.¹⁰¹⁾

위 언급에서 황병익은 「도산십이곡」 전일곡 초장이 퇴계가 가지고 있던 벼슬의 출처(出處)에 관한 가치관임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이 출처에 대한 가치관은 퇴계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면서도, 당시의 선비들에게 자신의 다짐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사록 「출처류(出處類)」에는 선비가 벼슬에 나아감과 물러나는 자세에 대하여 그 대의가 도의 실천에 있음을 언급하였는데,¹⁰²⁾ 퇴계 도산은거의 동기가 정치적 이유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물러나는 대의(大義)와 이상이 매우 뚜렷하며 도(道)의 실천과 학문완성에 대한 이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 성기옥의 견해를 참고로 할 수 있다.

101) 황병익,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의 의미 재고(再考)Ⅱ」, 『한국학』36,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275쪽.

102) 朱熹 著, 成元慶 譯, 『近思錄』, 明文堂, 1989, 279쪽. (이천(伊川)선생이 말하기를 “현자(賢者)가 야(野)에 있음에 어찌 스스로 나아가 군주에게 벼슬을 구하겠는가? 만약에 스스로 구한다면 반드시 (군주는) 신용할 리가 없다. 옛사람들이 군주가 경의를 표하고 예의를 극진히 하기를 기다린 후에 관직에 나아가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자 함이 아니다. 대개 군주가 덕을 존경하고 도를 즐기는 마음이 이와 같지 못하면 (일을) 함께 할 수 있기에는 부족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벼슬에서 물러나 도산에 서당을 짓고 자연을 즐기며 사는 삶의 길을 선택한 퇴계의 뜻이 이 짧은 한 수 안에 선명히 드러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 역시 노래의 실상을 적실하게 밝힌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미진하다. 자기 다짐의 내면적 독백 형태가 아니라 자아의 자연 선택 의지를 외부 세계에 천명(?)하려는 대타적 발언의 형태를 띤 노래이기 때문이다. 이런 발언의 징표는 초·중·종장에 걸쳐 일관되게 반복되는 ‘~ ㅎ료’형의 의문형 서법에 담겨져 있다.¹⁰³⁾

성기옥은 「도산십이곡」의 ‘~ ㅎ료’형의 의문형 서법에 주목하여 이 시가 당시 선비들에게 천명하는 대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특히 퇴계가 「도산십이곡」을 창작하기 3, 4년 전인 58세 때 왕에게 올린 사직소의 간곡함을 고려하면, 「언지」의 첫째 수는 퇴계 자신의 출처 문제를 둘러싸고 당시 조정에서 설왕설래하던 상황에서, 마침내 완공된 도산서당에서 남은 생을 보내려는 자신의 굳은 뜻을 내보여 간곡히 설득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도산십이곡」은 이황이 자신의 도산은거를 비난하는 당시인들에게 전하는 은거 이유에 대한 자기변명의 성격이 있으며, 그 내용은 도산은거의 동인과 목적이 정치적 이유와 관리로서의 치사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질에 의한 자기 결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 시를 통해 퇴계는 자신의 은거가 매우 주관적 의지의 결행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도산십이곡」 전이곡을 살펴보자. 전이곡에서는 은거 후 자연친화적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烟霞로 집을 삼고 風月로 벗을 사마

太平聖代에 病으로 늘거 가뇌

이 둥에 ㅼ라는 일은 허믈이나 업고자¹⁰⁴⁾ <陶山十二曲, 前二曲>

103) 성기옥, 앞의 논문, 2001, 251쪽.

104) 『고시조대전』, 3339.1. 708쪽.

초장은 자연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안개로 집을 삼으니 깊고도 한적한 산을 연상한다. 또 풍월로 벗을 삼았다. 이는 자연친화의 심정적 공감에 대한 자기고백이다. 위 시의 중장에 대하여 나정순은 “지은이가 ‘조월경운’의 삶 속에 놓여 있지만 정작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가는 자신의 염원은 ‘치군택민’의 현실이 무탈하기를 바라는 것이다.”¹⁰⁵⁾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나정순의 해석은 ‘조월경운’의 시상을 「도산십이곡」 전체의 흐름 속에서 살펴본 해석이며, 앞서 살펴본 전일곡의 해석을 유지한다면, 오히려 중장의 “病”은 실제로 퇴계가 병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석고황을 의미하며, 중장의 허물은 자신이 다른 뜻을 위해 은거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상을 이어간다면 중장에서는 학문완성의 결의가 녹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장의 초반에서 언급하였듯이, 퇴계의 학문이 ‘경(敬)’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전이곡은 물러남의 길을 택한 퇴계가 자연 속에 노닐며 추구하고자 한 뜻, 곧 독선기신(獨善其身)이다. 겸선천하(兼善天下)가 벼슬에 나아가 관리로서 국가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독선은 산수에 은거하여 도의 실천과 학문완성의 삶을 사는 것을 표상한다. 당시 과거를 통한 관리로서의 삶에서 벗어나 독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희귀하며 사림의 표상으로 존경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율곡은 퇴계 사후 「곡퇴계선생」에서 퇴계의 삶을 산림독선(山林獨善)¹⁰⁶⁾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허뜨리나 업고자”하는 뜻을 단순히 남에게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현대어식의 소극적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퇴계가 강조한 거경궁리(居敬窮理), 곧 실천으로서의 수양(修養)과 배움으로서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을 동시에 행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자기완성의 뜻이다.

幽蘭이 在谷흐니 自然이 듣디 도해
白雲이 在山하니 自然이 보디 도해

105) 나정순, 앞의 논문, 2008, 84쪽.

106) 한국고전종합DB, 栗谷先生全書 詩 「哭退溪先生」. (良玉精金稟氣純 眞源分派自關閩 民希上下 同流澤 迹作山林獨善身 虎逝龍亡人事變 瀾回路關簡編新 南天渺渺幽明隔 淚盡腸摧西海濱.)

이 등에 彼美一人을 더욱 낫디 못흐애¹⁰⁷⁾ <陶山十二曲, 前四曲>

위 시의 초장과 중장은 도산서원 근처 산수자연에 대한 시경과 감상이며, 따라서 「도산십이곡」 전사곡 초장과 중장은 모두 도산의 실경이다. 이 실경은 매우 단순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모두 자연의 존재와 당위의 원리가 재현되어 있다. 초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산 근처 골짜기에 그윽히 피어 있는 난초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연 속에서 자신의 삶을 대자연의 원리에 맞게 꽃을 피우면서 자라고 있다. 또한 그 평범의 이치를 발견하여 저절로 마음이 흡족하다. 그리고 중장에서는 저 산위 흰 구름이 한가로이 떠 있는 광경을 보니 마음이 두둥실 떠오르는 듯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가벼워진다. 자연의 존재와 당위의 원리가 이상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상의 연장선에서 종장의 “彼美一人”을 해석해 볼 수가 있다. 이 ‘피미일인’은 그 해석이 중의적이며 가변적이다. 일례로, 성기옥은 ‘피미일인’을 “자연 속의 자족적 즐거움 가운데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君恩의 표현”¹⁰⁸⁾으로 보았지만, 초장과 중장의 시상을 고려할 때, ‘피미일인’은 임금이 아니라 퇴계가 이상향으로 삼은 추상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 ‘피미일인’에 대한 신연우의 언급에 이와 같은 견해가 잘 드러나 있다.

자연의 자연스러움을 이해하는 것은 종장의 ‘피미일인’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고운 한 님’은 난초가 골짜기에 있어 유란이, 구름이 산에 있어 백운이 되게 하는 원리이다. 이 님을 임금으로 보는 견해는 이 시의 진정성을 감소시킨다고 생각된다. 이 연이 “도산 내경의 上下 遠近이 조성하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도산의 고즈넉한 정취”를 나타내는 것이고, 임은 그 속에서도 “왕을 잊지 못하는 사대부 지식인으로서의 겸선의식”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이황을 사대부 일반의 통념으로 파악해도 무방하게 한다.¹⁰⁹⁾

107) 『고시조대전』, 3679.1, 777쪽.

108) 성기옥, 앞의 논문, 2001, 260쪽.

109) 신연우, 앞의 논문, 2004, 169쪽.

신연우는 「도산십이곡」의 ‘피미일인’을 임금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퇴계를 일반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피미일인’의 중의적이며 가변적인 의미에 대해 강조하였다. 따라서 위 시의 종장은 초장과 중장과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해석할 때 그 문학적 의미가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을 견지할 때, 위 시조의 초장과 중장은 자연지성을 노래한 것이다. “幽蘭이 在谷”하고 “白雲이 在山”함은 모두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이다. 곧 당위로서 각득기소(各得基所)하는 무위적(無爲的) 유란(幽蘭)이며 백운(白雲)인 것이다. 이는 성리학적으로 이기(理氣)의 관점에서 보면, 퇴계가 자연과의 합일에서 각각의 사물에 내재하는 이치를 궁구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지성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라는 초중장의 의미와 연결해 보면, 종장의 ‘피미일인’은 유학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성인(聖人)을 뜻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전사곡은 대자연의 근원적 원리를 상징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시에서는 이와 같은 자연의 원리에 대한 퇴계의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春風에 花滿山하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佳興 | 사롭과 흥가지라
 흥몰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샤 어니 그지 이슬고¹¹⁰⁾

<陶山十二曲, 前六曲>

「도산십이곡」 전육곡에서는 전일곡-전오곡에 이르는 시상이 극대화된다. 초장은 춘하추동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축약하여 노래하고 있다. 곧 초장에서 춘풍과 추야는 계절의 흐름을 뜻하며, 이 계절의 흐름은 꽃이 가득하고 달이 가득차는 조화로운 모습을 만들어낸다. 신연우는 위 시 중장의 “四時佳興”에 대하여 “은 세상이 하나의 질서와 조화로 이루어져 있음을 경험하는 것은 더없는 즐거움이다”¹¹¹⁾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초장에 자연의 조화라는 성리학적 관점이 녹아들

110) 『고시조대전』, 5012.1. 1089쪽.

어 있다는 관점에서 시를 해석한 것이다. 이 조화로운 모습은 계절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인한 것이니, 중장에서 계절의 흐름(四時)은 멋진 흥(佳興)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초장은 도산서원에서 변화하는 사계절의 경치에 대한 압축적 묘사이며, 곧 서경이다. 이 서경은 중장 “四時佳興”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초장의 산수에 대한 묘사는 자연경관으로서 서경이며 중장의 “四時佳興”은 그 경관에서 비롯되는 ‘서정’이다.

이어서 중장은 서경과 서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시세계에 대한 정신적 만족과 감동을 형상화하게 된다. 중장의 “魚躍鳶飛 雲影天光”에 대하여 나정순은 “‘어약연비 운영천광’이라는 천지의 조화 역시 자연과의 합일을 극대화하는 표현”¹¹²⁾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전육곡의 중장이 전일곡-전육곡에 이르는 시상을 집약하는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지적한 견해이다.

물론 위 시의 중장은 도산서원 앞 운영천광대(雲影天光臺)의 주변 실경에서 축발된 것이지만, “魚躍鳶飛 雲影天光”의 시어를 보았을 때, 중장에서 보여주는 퇴계의 인식은 단순히 실경에 대한 묘사가 아니다.¹¹³⁾ “魚躍鳶飛”는 『시경』에서 따온 말인데¹¹⁴⁾, 솔개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연못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통해 대자연의 순리에 맞게 움직이는 세상을 표현한 것으로 천지의 조화를 집약하고 있는 시어이다. 이것은 퇴계가 도산의 산수를 감각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기보다는 유교적 이념과 리(理)의 세계를 사유하는 것에 의한 상상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도산십이곡」을 실제 체험의 관점에서 이해하기에는 실경이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니 퇴계는 자신이 직접 보고 있는 도산의 어떤 산수를 감각적 표현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이념적 세계와 연결하여 자신의 감흥을 추상화 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雲影天光”도 마찬가지이다. 이 말은 주자의 시 관서유감(觀書有感)의 구절에서 따온 말로¹¹⁵⁾, 독서의 즐거움과 학문의 근원을 자연에 빗대어 표현한 시

111) 신연우, 앞의 논문, 2004, 170~171쪽.

112) 나정순, 앞의 논문, 2008, 84쪽.

113) 「도산십이곡」 전육곡 중장에서 보여주는 퇴계의 철학적 인식에 대하여서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그 의미를 고찰한 바 있다. 이에 논자는 신연우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중장을 풀이하였음을 밝힌다. (신연우, 위의 논문, 2004, 171~173쪽.)

114) 『詩經』大雅 旱麓. 鳶飛戾天 魚躍于淵 豈弟君子 遐不作人.

어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상의 전개로 볼 때 종장의 “魚躍鳶飛 雲影天光”은 각자의 성향에 맞는 자연스러운 삶과 학문하는 즐거움을 말함이니, 자연합일의 형상화이다.

이처럼 「도산십이곡」 전육곡은 서로 유기적 짜임을 갖추면서 ‘자연의 조화와 내면완성’이라는 주제로 종결된다. 그리고 후육곡에서는 전육곡에서 형상화하였던 ‘자연의 조화를 통한 내면완성’을 위한 학문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天雲臺 도라드러 玩樂齋 蕭洒흔되

萬卷生涯로 樂事ㅣ 無窮흔애라

이 등에 往來風流를 닮아 으스스 흥고¹¹⁶⁾ <陶山十二曲, 後一曲>

「도산십이곡」 후일곡의 초장은 도산서원 주위 환경과 산수경이다. 천운대를 돌아 들어오면 완락재의 기운이 맑고 깨끗하다. 도산서원 경내로 들어서면 입구 부근에서 ‘천연대’와 ‘운영대’를 만날 수 있는데¹¹⁷⁾, 이 둘을 함께 ‘천운대’라 하였다. 당시 퇴계는 ‘완락재’와 ‘암서헌’을 합쳐 ‘도산서당’이라 편액하였는데, 그 중 ‘완락재’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거처하던 방이다.¹¹⁸⁾

따라서 초장은 도산서원의 실경이다. 또한 천운대가 도산서당 주변에 있고 완락재는 도산서당 안에 있는 공간임을 고려하면, 초장은 퇴계가 완락재에서 공부를 하다가 답답할 때면 주변 산수를 유람하곤 하는 일상을 노래한 것이다. 그 광경은 다음에 잘 나타나 있다.

나는 항상 오랜 병의 시달림에 괴로워하기 때문에, 비록 산에서 살더라도 마음을 다해 책을 읽지 못한다. 깊은 시름에 잠겼다가 조식(調息)한 뒤 때로 몸이 가뿐하고 마음이 상쾌하여, 우주(宇宙)를 굽어보고 우러러보아 감개(感慨)가 생기면, 책을 덮고 지팡이를 짚고 뜰마루에 나가 연못을 구경하

115) 『朱子大全』, 卷二 詩 觀書有感二首. 反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 問渠那得清如許 爲有源頭活水來.

116) 『고시조대전』, 4629.1. 999쪽.

117) 유천근 글, 김복영 사진, 『퇴계선생과 도산서원』, 지식산업사, 1999, 38쪽.

118) 유천근 글, 김복영 사진, 위의 책, 1999, 52쪽.

기도 하고 단에 올라 사(社 절우사(節友社))를 찾기도 하며, 밭을 돌면서 약초를 심기도 하고 숲을 헤치며 꽃을 따기도 한다.

또 혹은 돌에 앉아 샘물을 구경도 하고 대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며, 여울에서 고기를 구경하고 배에서 갈매기와 친하면서 마음대로 시름없이 노닐다가, 좋은 경치 만나면 흥취가 절로 일어, 한껏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고요한 방 안에 쌓인 책이 가득하다.¹¹⁹⁾

위의 「도산잡영 병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퇴계가 공부하며 시름에 잠길 때면 도산서원 주변 산수를 돌아보며 기분을 상쾌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인용문의 뒷부분 “좋은 경치 만나면 흥취가 절로 일어, 한껏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고요한 방 안에 쌓인 책이 가득하다(遇景成趣 至興極而返 則一室岑寂 圖書滿壁)”는 「도산십이곡」 후일곡 중장 “萬卷生涯로 樂事 | 無窮호애라”와도 매우 유사한 감상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도산서원 주변 산수를 완상(玩賞)한 후 학문하는 생활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초장과 중장이 산수완상과 학문하는 즐거움만을 노래하는 것은 아니다. 나정순은 후육곡의 제목 “言學”의 의미에 주목하여 후일곡을 “‘만권생애’라 하여 학문적 추구의 태도를 지니겠다는 포괄적 의미를 제시한다”¹²⁰⁾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퇴계는 위 시에서 학문하는 생활의 즐거움과 함께 학문 추구를 다짐하는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산수완상과 학문하는 생활의 즐거움은 종장의 시어 “往來風流”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된다. 이 ‘왕래풍류’에 대하여 성기옥은 “종장의 왕래풍류는 완락재에서 독서로 생활을 일삼는 무궁한 즐거움에 덧붙여 누리는 계산풍류의 즐거움”¹²¹⁾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왕래풍류’가 단순한 산수완상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하는 생활’ 속에서 산수완상하는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덧붙여진다는 지적이며, 초장과 종장의 시상과 함께 볼 때 더욱 그 감상이 짙어진

119)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퇴계집(退溪集) I』, 경인문화사, 1966, 37쪽, 471쪽. 『退溪集』 卷之三 詩「陶山雜詠 并記」, 余恆苦積病纏繞 雖山居 不能極意讀書 幽憂調息之餘 有時身體輕安 心神灑醒 俛仰宇宙 感慨係之 則撥書攜筇而出 臨軒玩塘 陟壇尋社 巡圃蒔藥 搜林擷芳 或坐石弄泉 登臺望雲 或磯上觀魚 舟中狎鷗 隨意所適 逍遙徜徉 觸目發興 遇景成趣 至興極而返 則一室岑寂 圖書滿壁.

120) 나정순, 앞의 논문, 2008, 87쪽.

121) 성기옥, 앞의 논문, 2001, 265쪽.

다. 퇴계의 ‘왕래풍류’ 관한 다음 이종호의 언급도 위의 견해와 동일하다.

퇴계의 산수미학은 크게는 계산풍류(溪山風流)를 중심으로 하여 산생된 산수시와 산수유기, 산수유록을 통해 실천되었다. 계산풍류는 유산(遊山)을 통한 독서와 강학 공간을 거점으로 이루어진 왕래풍류가 주된 활동이다. 만년에 조성된 도산서당과 그 주변이 계산풍류의 무대이다.¹²²⁾

이종호의 해석에서도 왕래풍류는 “독서와 강학 공간을 거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계산풍류’의 의미에 학문생활의 의미가 더해져 ‘왕래풍류’라는 시어에 집약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런 해석은 위 시 초장과 중장의 시상 전개와도 그 흐름이 일치한다. 계산풍류는 계산서당에서의 풍류를 의미한다. 퇴계는 도산서당에 오기 전 계산서당을 경영하였으며, 여기에서도 제자들과 학문하여 산수를 즐겼다. 따라서 ‘왕래풍류’는 도산서원에서 학문하며 주변산수를 유람하는 학문생활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퇴계의 도산생활과 학문연구의 즐거움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산수시가의 미적 측면에서는 산수락이라 할 것이다.

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古人 못 뵈
古人를 못 봐도 녀던 길 알피 잇네
녀던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¹²³⁾ <陶山十二曲, 後三曲>

「도산십이곡」 후삼곡의 초장에서 “古人”은 퇴계 앞 세대의 학자들이며, 성현들이다.¹²⁴⁾ 퇴계는 초장에서 이 “古人”을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성현께 직접 학문을 배우지 못하는 아쉬움을 노래하였다.

그러면 퇴계의 고인(古人)은 누구일까. 추정하면 아마도 주자, 정명도, 정이천,

122) 이종호, 앞의 논문, 2007, 259쪽.

123) 『고시조대전』, 0292.1. 60쪽.

124) 대다수의 논의에서 “古人”을 성현으로, “녀던 길”을 성현의 학문적 자취로 해석하였다. 논자도 이에 동의하면서 논의를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성기욱, 앞의 논문, 2001, 267쪽. 나정순, 앞의 논문, 2007, 87쪽. 추계협, 「성학(聖學)의 노래, 이황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공부론(工夫論)의 관점에서-, 『유교사상문화연구』76, 2019, 26쪽.)

장재, 주돈이,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공자, 맹자에 잇닿을 것이다. 이와 같은 퇴계의 고인을 못보는 아쉬움은 중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 극복하고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낀다. 곧 “녀던 길 알피 잇니”이다. 이것은 성현들의 학문저술을 말하는 것이니 “黃卷中에 聖賢을 모신다”는 심경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퇴계는 자신의 나아갈 학문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여 성현이 제시하는 학문의 길로 정진하는 의지를 중장에서 “아니 녀고 엇덜고”라고 당위의 행위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후사곡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간 벼슬길에서 방황하고 또 현실적 이유로 주저하며 늦어진 학문 연구를 반성함으로써 더욱 확실하게 굳어진 자신의 의지와 목표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當時에 녀던 길흘 몇 희를 버려두고

어디 가 든니다가 이제사 도라온고

이제나 도라오나니 년 디 모습 마로리¹²⁵⁾ <陶山十二曲, 後四曲>

위 시에서는 도산은거를 실행하기까지 벼슬살이에 몰두하며 학문연구를 소홀히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아쉬움을 노래한 것이다. 그러면서 학문완성의 이상과 현실의 상황에서 주저하며 번민하던 심적 갈등에 대한 인간적 후회가 녹아져 있다.

이것은 퇴계의 실제 경험이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도산십이곡」 후사곡을 성기옥이 “결국 퇴계 자신의 이야기이다”¹²⁶⁾라고 언급한 것이나 추제협의 “이황의 실제적인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기회가 있어 벼슬길에 나아갔지만 오히려 허비한 시간이 너무나 아쉽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여 학문에 정진하기를 다짐하는 내용”¹²⁷⁾이라는 견해에서 보듯이 「도산십이곡」의 전체적인 시상의 흐름에서 후사곡이 퇴계의 체험적 서술이라고 보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중장에서는 도산은거 실현이 늦기는 하였으나 다행스러우며 또한 만족스러움을 노래하였으니, ‘이제사’라는 부사어의 사용이 특이롭다. ‘이제사’는 현대어로

125) 『고시조대전』, 1256.1. 268쪽.

126) 성기옥, 앞의 논문, 2001, 268쪽.

127) 추제협, 앞의 논문, 2019, 26쪽.

‘이제야’로 해석된다. 그 뒤의 동사 ‘도라온고’는 감탄형 의문종결어미로서 ‘늦게 돌아왔지 않느냐’하는 의미의 강조이다. 내심 후회하고 있는 퇴계의 심정적 고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종장에서 “넌 되 모습 마로리”라는 결의에 찬 마음과 의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愚夫도 알며 흐거니 괴 아니 쉬운가

聖人도 몰다 흐시니 괴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낫 둥에 늙는 주를 몰래라¹²⁸⁾ <陶山十二曲, 後六曲>

언학(言學)의 마지막 수인 후육곡 역시 배움의 영속성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 연의 주제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종장의 “늙는 주를 몰래라”에 함의된 뜻 역시 배움의 영속성이기 때문이다. 쉬운 것은 쉬운 대로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익히고 탐구하는 데 몰두하느라 늙는 줄도 모른다는 데서, 우리는 배움의 영속성을 넘어 진리 탐구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배움의 즐거움까지 함께 표현되고 있음을 본다.

이 배움에 관하여 나정순은 후육곡이 “‘앓’이라는 제재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표명으로 마무리된다”¹²⁹⁾며 후일곡-후육곡 전체가 “‘앓’의 ‘세계’를 추구하는 퇴계의 삶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유기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¹³⁰⁾고 하였는데, 이 견해에 동의한다면, 퇴계에게 있어 이 ‘앓’이 무엇이며, ‘앓’의 ‘세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추제협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결국 후육곡인 ‘언학’에서 ‘학’는 성학을 의미하며, 경전을 통해 성현의 길을 따라가는 이른바 도문학의 독서사물공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전육곡은 천리의 묘용인 자연을 벗하며 수기의 하나로 존덕성의 마음공부를, 후육곡은 경전을 통한 학문의 정진

128) 『고시조대전』, 3580.1. 757쪽.

129) 나정순, 앞의 논문, 2007, 87~88쪽.

130) 나정순, 위의 논문, 2007, 88쪽.

으로 또하나의 수기인 도문학의 독서사물공부를 실천하자는 내용이다. 물론 여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전자는 치인을 위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직시가 전제되며, 후자는 벼슬길에 나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없지 않다. 결국 「도산십이곡」은 주자학의 두 가지 공부법을 기반으로 한 성학을 알기 쉽게 표현하여 어린이를 비롯한 이 노래를 부르고 듣는 모든 사람들을 감발하고 율통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한다.¹³¹⁾

추제협의 언급에서처럼 퇴계의 ‘앎’은 성학이며, ‘앎’의 ‘세계’는 성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다. 따라서 퇴계에게 학문하는 목적은 도덕적인 인격을 갖춘 훌륭한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공부에는 지(知)와 행(行)의 공부가 있는데, 이 둘을 병립시키는 것이 퇴계의 경(敬)이다. 따라서 퇴계에게 경은 인격을 수양하는 기반이자 마음을 바르게 하는 바탕이 된다.

나아가 퇴계는 산수경물의 감상과 형상화에 있어 서정과 서경 그리고 감정과 이치의 문제를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퇴계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학문의 출발점은 종합에 의한 결과의 도달에 이르기까지 매우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도산십이곡」은 산수경물의 현상적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을 사실적 서경미로 형상화하면서 그 이면에는 철학적 내용미가 미적 이념으로 융화하고 있다. 또한 이 각각 작품 속의 의상은 그 종합적 결합에 의하여 도를 표상하는 철리적 의경을 시세계로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퇴계의 「도산십이곡」은 대자연의 근원에 대한 깨달음과 내적 성찰의 기쁨을 산수락으로 표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곧 퇴계의 산수시가는 표면적으로는 산수경물을 노래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형이상학적인 정신성이 강조되어 있다. 다시 말해 퇴계의 「도산십이곡」을 그의 이기이원론의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도산산수의 사계절과 서경은 기의 측면에서 보는 자연의 현상적 아름다움이다. 또한 퇴계가 감각적으로 느끼며 감상하는 산수미이며, 그 자연의 현상을 통해 사유하고 사색한 결과 발견하게 되는 대자연의 원리와 순환의 조화로움은 정신적 자각에 의한 형이상학적 이념에 속한다. 그러므로 퇴

131) 추제협, 앞의 논문, 2019, 27~28쪽.

계의 산수시사에 형상화된 산수미는 현상적 감각미와 정신적 이념미가 혼용된 시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퇴계의 산수생활과 학문은 권호문의 산수시가에서 그 전통을 잇고 있다. 그런데 권호문의 한거는 퇴계와 같은 학문수양의 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처사문학적 성격을 지향한다. 곧 권호문은 유학적 이념인 도의 실천을 일생의 목적이요 표준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권호문 산수시의 특징이면서도, 이념미에 경도되어 대자연의 현상적 아름다움과 산수미를 깊게 이해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다음 장에서 송암 산수시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2. 권호문의 閑居와 隱居求志

권호문(權好文, 중종 27~선조 20, 1532~1587년)의 본관은 안동이며 자는 장중(章仲), 호는 송암(松巖)이다. 1561년(명종 16)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청성산(靑城山) 기슭에 무민재(無悶齋)를 짓고 유유히 살았다. 시가(詩歌)에도 관심을 가져 경기체가(景幾體歌)를 본뜬 「독락팔곡(獨樂八曲)」과 시조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을 지었다. 문집에 『송암집(松巖集)』이 있다.¹³²⁾

송암은 퇴계의 학맥을 이었으며, 송암의 한거와 독락도 퇴계에게 맥이 닿아 있다. 권호문은 일찍이 퇴계문하에 들어왔는데 퇴계가 그를 일러서 유자의 기상이 있고 산림처사의 가풍이 있다고 평하였다. 송암은 23세 때 어머니 상을 마치고는 “녹녹하게 과장에 나간 것은 어머니를 위해서였는데 이제 무엇 때문에 과업에 힘쓰리오”¹³³⁾하고 청성산하에 무민재를 짓고 조용히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이에 대해 김병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은거는 공간적으로 산수를 의미하는데, 따라서 송암의 은거는 구체적으로 그가 벼슬을 멀리하고 생활하였던 靑城山下 無悶齋를 의미한다. “獨樂은 퇴

132) 한국고전종합DB, 『松巖集』, 「松巖先生世系」.

133) 이동영,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螢雪出版社, 1984, 104쪽.

계의 寬裕溫柔를 계승한 것으로 宦路에 대한 마음을 잊고 학문연구를 통해 인의를 추구하며 마음의 自得을 얻어 그 뜻을 즐기는 모습을 말한다.”¹³⁴⁾

따라서 송암의 은거는, 이론보다는 생활을 통한 행위로서의 진리구현을 강조한 실천중심의 수양이었다. 특히 처사(處士)라는 신분은, 독선기신(獨善其身)이라는 개인적 수양의 질서와 인간완성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한다. 이렇게 볼 때, 송암이 은거한 산수는 생활공간이면서 벼슬을 떠나 진리구현의 삶을 실천하는 공간이다. 또한 독락(獨樂)은 환로(宦路)에 대한 마음을 잊고 학문연구를 통해 인의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마음의 자득(自得)을 얻어 그 뜻을 즐기는 모습을 의미하니, 송암 시가에서 독락은 은거를 통한 생활의 자기만족과 즐거운 심정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송암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고, 무민재에서 도(道)를 실천하는 삶을 살며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장수(藏修)의 사전적 의미는 선비가 세속을 떠나 산수에 묻혀 성현의 학문을 익혀서 스스로 수신하는 것이고, 학문을 익히는 여가에도 산수를 유람하며 책 속에서 깨닫지 못한 이치의 세계를 산수경물을 통하여 깊이 사색하고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것은 곧 유식(游息)의 모습이다.

따라서 송암이 말하는 장수구학¹³⁵⁾은 청성산 은거를 의미한다. 무민재는 과거의 낙방으로 인한 인간적 좌절과 실망감을 극복하고 이지적(理智的)인 판단에 의해 자신의 새로운 인생목표를 실천하는 생활환경이다.

그래서 「송암팔경(松巖八景)」과 「청성잡제(靑城雜題)」를 통해 무민재의 원림적 구성을 살펴볼 때, 인공구조물로는 수심촌(水深村), 운와헌(雲臥軒), 시노실(詩奴室) 등이 있고 그 인공구조물을 둘러싼 자연환경은 인지암(仁智庵), 성산연(星散淵), 이화탄(梨花灘), 양양곡(泱泱谷), 백사장(白沙場) 등이 있다. 송암은 이와 같

134) 김병국, 「松巖 權好文의 <獨樂八曲> 研究」, 『한국사상과 문화』 3,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68 쪽.

135) 장수는 장수유식(藏修遊息)을 의미하는데, 장수는 학문을 정과(正課)로서 수습(修習)하는 일이며, 유식은 정과 이외의 휴식 시간에도 학문에 마음을 두는 일이니, 군자가 학문을 배우는데 마음이 항상 학문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李相殷 監修,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92, 1081 쪽.)

은 산수경물을 보면서 자신의 미적 경험을 형상화하고 있다.

산수시가에서는 은거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은사의 산수생활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경우와,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입산한 경우로 은거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산수문학에서 주목하는 은거의 유형은 사상적 배경에 의한 산수생활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보면, 노장사상에 의한 현실초월적이며 염세적인 은둔과 유가적 실천생활로서의 은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가적 은거는 조선조 시대에 들어와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으며,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조 초기 사대부들은 경제학의 영향으로 겸선천하(兼善天下)에 뜻을 두고 관리로서의 삶을 통하여 백성과 더불어 지선(至善)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관리로서의 청렴성과 행정의 공평성을 통한 유교 국가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퇴계의 직계제자인 송암의 경우, 도남 조운제는 “그는 退溪門下에 배웠으면서 그의 詩歌는 充分히 배우지 못한 듯하다”¹³⁶⁾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이 평가는 송암시가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볼 수도 있지만 퇴계의 학풍이 송암에 이르러 변화의 기미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중요한 지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송암이 이처럼 산수에 묻혀 심성수양에 힘쓸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나는 어린 시절부터 과거시험 공부에 게을렀고 산수를 탐닉하는 데에 뜻이 치우쳐 산과 물을 찾아다니며 낙을 삼지 않은 적이 없었고 노을과 구름 낀 산골에서 살면서 편안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¹³⁷⁾

위 글은 송암의 「한거록(閑居錄)」의 일부인데, 한거록은 송암의 동문인 구봉령이 송암에게 출사를 권유하자 이를 물리치기 위해 송암이 1584년(53세)에 지어 보낸 글이다.

여기에서 ‘한거(閑居)’란 벼슬길에 초연한 처사가 자연을 관조하며 격물궁리(格

136) 조운제, 『朝鮮詩歌史綱』, 東光堂書店, 1937, 278쪽.

137) 한국고전종합DB, 『松巖集』 卷五 錄, 「閑居錄」, 余自蚤歲, 學懶科程, 志癖溪山, 尋山訪水, 無所不樂, 棲霞臥雲, 無處不安.

物窮理)함으로써 자연의 순수성을 체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의미한다. 즉 처사적 삶이 지니는 도학적 지향점을 분명히 하여 출사 권유의 대응 논리로 활용하였다. 그래서 송암은 「한거록」에서 일찍부터 자신이 산수유상을 통해 심리적 만족과 평안함을 느꼈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이는 다음 글에 잘 나타나 있다.

멀리 초야로 가서 숨어 왕후를 섬기지 않고 몸을 깨끗하게 하여 세상을 가소로이 보면서 산속에서 자신의 몸만 선하게 하는 것이 성현이 행한 것과 다른 듯하지만, 그 역시 숨어서 도를 구하는 낙을 스스로 체득한 것이다.(중략) 도홍경(陶弘景)의 풍치(風致)는 모산(茅山)에서 소를 그렸고, 화정(和靖)의 은일(隱逸)은 서호에 학을 풀어 길렀다 하였다.¹³⁸⁾

위의 글을 살펴볼 때, 송암은 ‘한거’를 산수에 묻혀 도를 구하는 즐거움을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송암은 자신의 산수생활을 은거(隱居)나 은둔(隱遁)이 아닌 한거(閒居)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조선조 유학자들이 과욕(寡慾)의 상태를 지향하는 현실생활의 실천적 수양을 강조했기 때문인데, 노장의 신선사상에 매료된 현실초월적 산수은둔과 비교해 볼 때 두 사상적 경향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송암의 무민재는 그의 의식 속에 있는 현실의 공간이며 도의 실천적 생활공간이었다.

결국 송암의 한거는 정치적인 이유의 명철보신이나 처사객의 한적이 아니라, 퇴계의 학문수양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은거를 통한 수양의 실천적 삶이라는 처사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조선 전기 경세학 위주의 유학은 사림과를 통하여 점차 실천철학적 윤리 규범을 강조하게 되어, 『소학(小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것은 학문의 진리를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증명하고 인격수양(人格修養)의 기본으로 삼고자 한 도학적 학풍으로 계승되었다. 그래서 성리학의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의 양면은 분리될 수 없는 사림의 이념이었으며, 도학의 기본을 형성하는 학문적 기반이었다.

138) 한국고전종합DB, 『松巖集』 卷五 錄, 「閒居錄」. (若夫遠引長往, 不事王侯、潔身傲世, 獨善山林者, 雖似異於聖賢之事, 亦自得其隱求之樂也(중략)弘景之風致, 畫牛茅山; 和靖之隱逸, 放鶴西湖.)

그런데 송암과 같이 과거를 통한 관리로서 경국제민(經國濟民)의 이상을 접고, 오로지 산수에 은거하여 생활 속의 실천을 통하여 성리학적 진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림계층은 정치적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수는 거의 목적을 성리학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가치의 구현으로 삼았다. 이러한 독특한 삶의 자세를 규정한다면 처사라고 할 것이고, 이 사림계층을 처사계층(處士階層)이라고 일컫는다.

처사라는 것은 선비로서 산수에 거처하는 것이다. 처사(處士)는 일종의 은사계열(隱士系列)에 속하는 특수한 계층의 지식인이다. 엄밀히 말해 은사(隱士)는 역사상에 언제나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시대 물계자(勿稽子)를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할 수 있다. 그런데 동양문학에서 은사는 주로 노장적(老莊的) 계열이 대부분이었으나, 조선시대의 처사는 이 은사계열의 일종이면서도 사림계층이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처사는 조선조 정치문화적인 면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들은 공식적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문화적으로는 대단한 명망과 지위를 향유하였다. 다시 말해 조선조 처사는 선비 계층에 속하였는데, 비록 처사라는 신분이 인위적으로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하여 획득되는 사회적 신분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은 산수에 은거하고 있을지라도 언제나 임금의 부름을 받고 관리로서 경국제민의 이상을 실현할 기회가 열려 있었다.

그래서 처사를 사회 신분의 한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으로서 사회에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회 세력으로서 자신의 생존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은사는 장주莊周처럼 관리가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벼슬을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칭호를 갖게 되었다. 즉, 처사處士가 그것이다. (중략) 은사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신분 가운데 하나이며 (중략) 은사는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삼고, 정신의 독립과 세속의 초탈이라는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한다. 동시에 은사는 하나의 형상形象이다.¹³⁹⁾

139) 馬華·陳正宏 共著, 姜昶範·千賢耕 共譯, 『중국은사문화』, 동문선, 1997, 15~17쪽.

위의 언급에서 살펴보면 처사가 하나의 사회 세력으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위 글의 내용은 송암시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다음은 「한거십팔곡」의 열아홉번째 작품이다.

江干에 누어서 江水 보는 쁘든

逝者如斯흐니 百歲 1년 1년 1년

十年前 塵世 一念이 어롭 녹듯 1년140) <閑居十八曲, 十九>

송암은 초장에서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지각하고 경험한다. 중장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상상을 통해 세월의 덧없음을 느끼게 되며, 종장에서는 중장에서의 경험이 미적 체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속세의 집착에서 벗어난 자신의 삶에 대해 매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국은 「한거십팔곡」 십구수에 대하여 “초장과 중장은 앞에서 깨달은 ‘(天理)流行의 妙’ 곧 ‘道體의 本然’을 때때로 살펴 조금의 그침도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종장은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후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 것”¹⁴¹⁾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수양에의 의지와 깨달음에 대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다.

곧 송암이 처사로서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이것은 경험에 의한 상상으로 자신의 이상적 삶에 대한 만족을 노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송암이 한거를 통해 시에 형상화한 독락은 산수자연 속에서의 실천적 삶을 통해 자각된 미적 체험의 시적 경계이다. 고독의 세계에서 도(道)의 수양과 리(理)의 세계 추구라는 즐거움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산수락이 성리학적 도의 세계를 지향하게 될 때, 독락의 시경은 형이상학적 서정의 영역을 개척하게 된다

송암의 독락은 단순히 ‘홀로 즐기는 즐거움’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권근이 말한 독락의 개념을 보완하여 송암의 독락을 설명한 “마음에 자득(自得)한 즐거움”¹⁴²⁾이라는 김병국의 개념이 이와 같은 맥락이다. 곧 송암시가는 이성적 인식

140) 『고시조대전』, 0118.1, 28쪽.

141) 김병국, 「松巖 權好文 시가의 미적 특질」, 『한국시가연구』19, 한국시가학회, 2005, 9~10쪽.

142) 김병국, 앞의 논문, 2006, 53쪽.

에 의한 대아의식을 깨닫게 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형상화하며, 송암시가의 ‘마음에 자득한 즐거움(獨樂)’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자의식의 인식으로 인한 깨달음의 순간에서 오는 즐거움이다.

곧 송암은 산수생활의 이상과 실천적 삶을 통해 은구지락을 경험하고 상상력을 북돋아 주변 산수경물로 하여금 미적 대상으로 현전하게 하였으니, 무민재라는 은거의 공간을 미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 아름다움을 시가라는 예술형식 속에 형상화하였다.

송암은 경륜을 갖추고 천자를 보필할 수 있는 사람 즉, 성현도 처사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을 보면, 자신과 같은 처사는 당연히 도체(道體)를 추구하며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도리어 그가 ‘근심하는 것’은 출사와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도체에 이르지 못한 수양과 학문의 미흡함에 있다고 했다. 또한 ‘즐기는 것’ 또한 세속적인 것이 아닌, 자연합일을 통한 보편적 가치의 체득과 관련되어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生平에 願하느니 다몬 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禽獸이나 다라리아
마음에 ㅎ고져 ㅎ야 十載遑遑하노라¹⁴³⁾ <閑居十八曲, 一>

計校 이르터니 功名이 느껴세라
負笈東南하야 如恐不及하느 뜯을
歲月이 물 흘으듯 하니 못 이룰가 하야라¹⁴⁴⁾ <閑居十八曲, 二>

비록 못 일워두 林泉이 도하니라
無心魚鳥는 自閒閒하얏느니
早晚에 世事 닛고 너를 조츠려 하노라¹⁴⁵⁾ <閑居十八曲, 三>

143) 『고시조대전』, 2504.1, 533쪽.

144) 『고시조대전』, 0255.1, 53쪽.

145) 『고시조대전』, 2169.1, 468쪽.

「한거십팔곡」의 첫째 수에는 송암이 시를 쓴 의도가 함축되어 있으니, 초장의 “忠孝”와 중장의 “十載遑遑”으로 대표되는 이념의 실천궁행이다. 두 번째 수 초장에서는 자신의 공명이 늦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최현제는 「한거십팔곡」 일, 2수에 대하여 “연거푸 과거 시험에 낙방한 작자는 물 흐르듯 빨리 지나가는 세월이 야속할 뿐이며 평생의 願인 충효 역시 이루지 못하리라는 것을 예감하고서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한다”¹⁴⁶⁾고 하였으나, 「한거십팔곡」 3수를 보았을 때 1수와 2이수는 단순히 과거의 낙방에 의한 좌절만이 표현된 것은 아니다.

「한거십팔곡」 1, 2, 3수의 시상을 연결지어 보면, 삼수 초장에서는 “비록 못 일 위두 林泉이 도흐니라”라며 비록 벼슬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숲과 시내가 좋다고 말하고 있으니, 두 번째 수에서 드러난 벼슬에 오르지 못한 안타까움은 좌절로 인한 비애가 아니다. 오히려 벼슬하는 것보다 궁벽한 산골에서 산수를 벗하고 도를 성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전제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종장에서 자신의 은거에 대해 “世事 닛고 너를 조츠려 호노라”라고 한 점에서 잘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당시의 산수은거는 도(道)의 실천을 목표로 삼는 것에 기인한다. 김상진의 다음 언급에서 이를 잘 알 수가 있다.

<한거십팔곡>은 조선 중기 강호시조 가운데 한 작품이다. 이 시기의 사림과 문인들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출처를 거듭하게 되고 이는 곧 강호시조를 배태하는 동인이 되었다. (중략) 유교적 출처관에 따라, 비록 세상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강호에 머물러 독선기신하며 성정을 기리는 것 또한 道의 실현이라고 생각하였다. 출처에 대해 이렇듯 유연한 사고를 지닌 이들이지만 사대부로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것은 겸선이기에 강호의 생활에 갈등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림과 문인들이 시조를 창작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의 갈등하는 심경을 진정시키려던 의도도 담겨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¹⁴⁷⁾

146) 최현제, 「權好文 詩歌의 情緒의 特徵과 文學史的 意義」, 『우리말글』35, 우리말글학회, 2005, 11쪽.

147) 김상진, 앞의 논문, 2007, 7쪽.

김상진의 언급처럼, 송암은 산수에 은거하는 것 또한 도(道)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겸선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송암은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심경에서 마음과 정신이 산수와의 친밀한 교류를 하였으며, 주변 환경과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고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다음 시에서는 송암의 유학적 이상 실천으로서의 한거를 잘 알 수가 있다.

聖賢의 가신 길히 萬古에 혼가지라
 隱커나 見커나 道ㅣ 얻디 다르리
 一도ㅣ오 다르디 아니커니 아므던들 엇더리¹⁴⁸⁾ <閑居十八曲, 一七>

위의 시는 선비의 출처(出處)의 목적을 말하였는데, “隱”, 곧 산수에 은거하거나, “見”, 곧 벼슬에 나아가거나 모두가 그 목적이 동일하며, 그 목적은 바로 도(道)의 실천에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벼슬하여(見) 도를 실천하는 것은 겸선천하에 뜻을 둔 것이며, 산수은거하여(隱) 도를 실천하는 것은 독선기신(獨善其身)에 뜻을 둔 실천이라는 것에서 구별될 뿐이다. 결국 종장의 송암은 자신의 산수은거와 도의 실천에 대하여 처사로서의 자기위안과 자긍심을 노래하였다.

月色溪聲 어섯겨 虛亭의 오나늘
 月色을 眼屬호고 溪聲을 耳屬히
 드르며 보며 흐니 一體清明호야라¹⁴⁹⁾ <閑居十八曲, 十四>

결국 송암에게 한거의 목표는 유학적 이상의 실천인데, 「한거십팔곡」 십사수에 서는 이 실천에 관한 심리적 갈등의 모습인 듯도 하다. 왜냐하면 십오수는 십사수에 대한 부연인데, 십오수의 종장에서 “行道도 어렵고 隱處도 定티 아났다”라고 수양과 은거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십칠수의 종장에서는 “어지게 엇그제 흐던 일이 다 윈 줄 알과라”라며 도연명의 귀거래사 일부를 차용하고 있는 점에서 “月色溪聲”을 보고 들으면서도, 내

148) 『고시조대전』, 2619.1, 553쪽.
 149) 『고시조대전』, 3648.1, 770쪽.

적으로는 “一體清明”이 암시하듯 갈등적 요소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송암이 은거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차용한 것은 도연명의 은거를 흠모하고 따르려 하는 의지이다. 다음 시를 살펴보자.

靑山이 碧溪臨호고 溪上에 煙村이라
 草堂 心事를 白鷗인들 제 알라
 竹窓靜 夜月明흔디 一張琴이 잇느니라¹⁵⁰⁾ <閑居十八曲, 九>

窮達 浮雲갓치 보야 世事 이저 두고
 好山 佳水의 노는 뵈을
 猿鶴이 내 번 아니어든 어너 분이 아르실고¹⁵¹⁾ <閑居十八曲, 十>

구수는 “靑山이 碧溪臨호고 溪上에 煙村이라”라고 하여 서경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팔수까지의 산수에 대한 관념적 인식이 상상에 의해 구체적 산수경물로 옮겨지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적 아름다움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수의 중장에서는 초당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심사를 백구인들 알겠느냐고 스스로 묻고 있다. 이 중장은 최현재의 언급처럼 “속세 초탈의 상징으로 빈번하게 읊어진 ‘백구’도 자신의 심사를 모른다는 것은 자신의 은거생활에 대한 자부심의 발로”¹⁵²⁾라고 할 수 있다.

이 지각과 자부심을 통해 십수에서는 “窮達 浮雲 갓치 보야 世事 이저두고”라며 세사를 잊고 심정적 즐거움에 이르게 되면서 산수락이 심화되고 있다. 결국에는 십사수의 “世上에 뜻글 막음이 一毫末도 업다”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사(世事)를 잊고 은거의 진정한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상을 살펴볼 때, 첫째 「한거십팔곡」의 서수에는 충효의 실현과 윤리적 인격 완성과 실천이라는 작자의 창작 의도와 한거의 목적이 함축되어 있다. 둘째, 오~칠수에서는 한거에 이르기까지의 심적 갈등과 은거를 결정하고 난 후, 자신의

150) 『고시조대전』, 4776.1, 1035쪽.
 151) 『고시조대전』, 0454.1, 96쪽.
 152) 최현재, 앞의 논문, 2005, 13쪽.

내적 자아와의 조화에 의한 산수은거의 확신을 말하고 있다.

셋째, 구수부터는 자신이 은거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서경미를 말한다. 그리고 십수부터는 서경미를 통해 느껴지는 감정과 산수락이 나타나 있다.

넷째, 십칠수에서는 자신의 산수은거 또한 성현의 도를 행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임을 말하면서, 자기위안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신념과 결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한거십팔곡」은 처사문학으로서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 「한거십팔곡」의 지리적 공간은 청성산하 무민재라는 깊은 산속이다. 이 깊은 산속은 인간세속과 떨어진 공간으로 고립되고 외진 독립의 공간이다. 따라서 이 공간에서는 자신의 삶에 외부적 요소가 개입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모든 행위의 기준은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만 선택되고 결정된다. 이 은거의 공간인 무민재는 홀로 자신을 수신하고 자기만족이 극대화되는 공간적 배경이 되며, 세속의 모든 이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이 되는 것이다.

둘째, 송암이 깊은 산수로 들어오게 된 동기가 「한거십팔곡」에 잘 나타나 있다. 송암은 은거 이전에 과거로 대표되는 현실적 이상과 꿈이 좌절되었다. 산수은거는 이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그 방법은 서수에서 볼 수 있듯 충효로 대표되는 인격수양을 통한 인간완성과 자기화해를 시도한 것이다.

셋째, 「한거십팔곡」의 시적 화자는 1인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자기고백적 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거십팔곡」에서는 농암의 분천은거에서 볼 수 있는 주변인물과의 교유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관념적 세계에 대한 주관적 기준을 1인칭 고백적 화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송암이 은거에 대한 자기확신을 끊임없이 되뇌임으로써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흔들림 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의의 표현이다.

이에 반하여 이 자기확신의 반복은 송암이 자신의 은거에 대하여 끊임없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송암은 「한거십팔곡」을 통해 자신의 내적갈등을 학문수양과 인격완성이라는 이상적 가치 추구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

넷째, 「한거십팔곡」에서 송암이 추구하고자 하는 충효나 행도와 같은 이상은 실천적 경험의 결과로서 생활의 일부로 체험되기 보다는 오히려 관념적 사유에 경도된 성격을 보인다. 그 근거로 「한거십팔곡」에서는 현실적 생활의 모습이 전혀 묘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한거십팔곡」에서는 의식주와 관련된 것이나 산골 생활의 어려움, 구체적 산수경물에 대한 관찰과 산수미가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산수경물에 대한 묘사가 추상적이고 선형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또한 송암은 「한거십팔곡」에서 도연명 귀거래사의 일부를 차용하고 있는데, 도연명은 아주 먼 과거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관념적 이상존재이지, 송암이 살고 있는 현실과 관계된 인물이 아니며, 송암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다만, 송암 스스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념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거론하는 대상이며, 따라서 실재 역사 속 인물임에도 굉장히 관념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청성산하에서의 산수은거 생활은 현실주의적 세계관에 의한 사실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산수경물의 현상적 특징과 그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감상이나 미적 태도에서 비롯되는 산수미와 산수락에 대한 감정들이 시적 서정으로까지는 충분히 형상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송암의 청성산 은거는 성리학자로서의 학리탐구와 학문완성이라는 이상실현의 추구이지, 산수를 통하여 열린 의식 속에서 지각되고 수용되는 서정으로서의 산수락과 산수미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에는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한거십팔곡」에서 살펴본 송암의 산수은거는 충효와 행도로 대변되는 윤리적 인격완성과 실천을 지향하는 처사문학으로서의 전형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독락팔곡」은 송암 산수시가의 정점이요, 핵심이다. 이 「독락팔곡」의 의미에 대하여 최재남은 “함께 누리는 즐거움인 공락(共樂)의 대립적 의미로 사용”¹⁵³⁾되었다고 하였고, 김병국은 “퇴계(退溪)의 관유온유(寬裕溫柔)를 계승한 것으로 환로(宦路)에 대한 마음을 잊고 학문연구를 통해 인의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마음의 자득(自得)을 얻어 그 뜻을 즐기는 모습”¹⁵⁴⁾이라고 언급하였다. 최재남

153) 최재남, 「〈독락팔곡〉과 〈한거십팔곡〉의 정서적 연관」, 『한국문학논총』16, 한국문학회, 1995, 331~339쪽.

은 독락을 함께 베풀하면서 느끼는 즐거움(共樂)에 대비시켜 정의하였고, 김병국은 송암의 수양론적 삶이라는 측면에서 독락을 바라보았다. 두 연구자의 견해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상이한 면이 있지만, 이 논문에서 다른 송암의 삶과 학문을 고려했을 때 김병국의 견해가 논자의 견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독락팔곡」은 송암 시가의 산수시가적 성격과 시적 경계를 구체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太平聖代 田野逸民

再唱 耕雲 麓釣煙江이 이밧기 일이업다

窮通이 在天호니 貧賤을 시름호라

玉堂金馬는 내의願이 아니로다

泉石이 壽域이오 草屋이 春臺라

於斯臥於斯眠 俯仰宇宙 流觀品物호야

居居然浩浩然 開襟獨酌 岸幘長嘯景과 엇다호니잇고¹⁵⁵⁾ <獨樂八曲, 一>

위 시의 1구에서 송암은 자신을 “田野逸民”이라고 하며, 2구에서는 “耕雲”과 “麓釣煙江”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니, 전야일민은 세속적인 삶을 벗어난 삶이며, 구름을 갈고 안개 낀 강에서 낚시함은 세속적 회노애락에서 벗어난 선경(仙境)에 대한 동경이다. 즉 1, 2구에서 송암은 전원에 은거하는 처사의 한가로운 삶을 세속에 대한 초월적 경계(境界)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3구에서는 “窮通이 在天호니 貧賤을 시름호라”라고 하며 궁함과 영달이 모두 하늘의 뜻이라고 하고 있다. 결국 산수에 은거한 운명적 삶에서 오는 빈천을 걱정하지 않고 따르는 것이 자연적이며 순리적인 삶임을 읊은 것이다. 그래서 4구에서는 옥당(玉堂)이라는 명예로운 홍문관 관리의 삶도, 금으로 치장된 화려한 말(金馬)도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5구의 천석(泉石)과 초옥(草屋)은 샘과 바위, 초가집이지만 대유법으로서 소박한 산수생활을 상징하며, 4구에서의 옥당금마(玉堂金馬)와 대비되는 삶이다. 그런

154) 김병국, 앞의 논문, 2006, 68쪽.

155) 한국고전종합DB, 『松巖集』松巖集獨樂曲「獨樂八曲」.

데 송암은 천석과 초옥이 수성(壽城)과 춘대(春臺)와 같은 화려한 곳이라 말한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소박한 산수환경이 곧 옥당금마의 화려한 삶과 같다고 하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송암은 6구에서 부양우주(俯仰宇宙)하고 유관품물(流觀品物)한다며 우주 속 대자연의 구성물들을 감상하고 있음이니, 송암은 대자연의 이치와 원리 속으로 들어가 깨달음과 감동을 얻고 있다. 7구에서는 이 깨달음의 기쁨을 개금독작(開襟獨酌)이라고 하며 홀로 술을 마시면서 소리내어 읊조리니, 산수친화의 감정에서 느끼는 산수락을 서정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진규는 「독락팔곡」 1곡에 대하여 “태평스럽고 성스러운 시대에 학문과 덕행이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서지 않는 선비가 전원생활을 즐기며 빈천을 걱정하고 않고 홀로 즐기는 모습”¹⁵⁶⁾을 노래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송암이 산수 속의 소박하고 외로운 삶에서도 쓸쓸해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감과 감동을 느끼고 있음을 말한다. 이 감동의 이유는 송암이 산수 속에서 대자연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최현재가 「독락팔곡」 일수를 두고 “자연에 은거하며 성리학 수양에 힘쓰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居居然浩浩然 開襟獨酌 岸幘長嘯景귀 엇다흐니잇고”라고 호기롭게 읊고 있다”¹⁵⁷⁾고 언급한 것도 송암이 산수에 은거하여 학문을 수양하는 자부심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핵심을 지적한 것이다.

송암은 이처럼 산수에서 학문하는 고독의 감정을 통해 승화된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송암은 선비로서 산수 속에만 빠지지 아니하고 유학자로서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삶의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으니, 다음 시에 잘 나타나 있다.

士何事平尙志而已 再唱

科名損志호고 利達害德이라

모르미黃卷中聖賢을 피압고

言語精神日夜에顧養호야

156) 이진규, 앞의 논문, 2016, 162쪽.

157) 최현재, 앞의 논문, 2005, 14쪽.

一身이正호면 어디러로못가리오

俯仰恢恢호고 往來平平호니 갈길롤알오立志를 아니호라

壁立萬仞 磊落不變호야 嘍嘍然尙友千古 景 記 엇다호니잇고¹⁵⁸⁾

<獨樂八曲, 三>

위 시에서 송암은 선비란 뜻을 높게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과거의 명예는 자신의 뜻을 손상시키고, 이익과 출세가 덕을 해친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현을 피시키고, 언어와 정신을 맑게 가다듬어 수양하고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을 자신의 산수생활의 이상적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첫째가 선비는 자신의 뜻을 숭상하기 위하여 과거를 위한 학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를 통한 높은 벼슬을 구하는 것은 선비가 가고자 하는 자신의 이상(志)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익을 멀리해야 한다(利達害德)는 것이다. 지(志)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정신적 표준이나 기준이라면 덕(德)은 선비의 실천적 삶에 대한 평가요, 그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성현의 가르침은 과거의 것이 아닌 현재의 공간에서 실재하는 인물처럼 내면적 대화를 통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송암은 독서하는 선비로서의 도의 실천을 은거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송암의 시가는 비록 현실초탈적 산수은거를 노래하고 있지만 노장류의 현실초월적 은일사상이 형상화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증점씨욕기풍우(曾點氏浴沂風雩)와 정명도방화수류(程明道傍花隨柳)를 이야기함으로써 도의 실천궁행을 노래하여 유가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산수관과 은거의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처사문학으로서 송암시가에 형상화된 유가적 이념의 시경이다. 이것은 다음의 시에도 잘 나타나 있다.

入山恐不深 入林恐不密

寬閒之野 寂寞之濱에 卜居를 定호니

野服黃冠이 魚鳥外머디업다

芳郊에雨晴호고 萬樹에花落後에

158) 한국고전종합DB, 『松巖集』, 松巖集獨樂曲 「獨樂八曲」.

靑藜杖뒤풍잡고 十里溪頭에 閒往閒來호는쁘든
 曾點氏浴沂風靄와 程明道傍花隨柳도 이러던가엇다턴고
 暖日光風이 불써니불거니 興滿前호니
 悠然胸次 | 與天地萬物上下同 景 괴 엇다호니잇고¹⁵⁹⁾

<獨樂八曲, 四>

위의 시 “靑藜杖뒤풍잡고 十里溪頭에 閒往閒來호는쁘든 曾點氏浴沂風靄와 程明道傍花隨柳도 이러던가엇다턴고”는 산수유상을 형상화하였다. 원래 산수유상은 산수의 아름다운 서경미 감상과 유락(遊樂)을 의미하니, 송암은 위 시를 통해 처사로서의 삶을 충분히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興滿前”에서 알 수 있듯이 송암은 이 산수유상을 통하여 매우 흥겨운 쾌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산수유상을 통한 이 쾌의 감정은 매우 특별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증점씨(曾點氏)와 정명도(程明道)로 대표되는 유학자의 윤리적 삶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즐거운 쾌의 감정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취미 판단에 속하니 곧 미적 감정이요, 시가 속의 서정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처사문학으로서 송암시가에 형상화된 산수유상과 미적 감정에 입각한 시경이라고 할 것이다.

一屏一榻 左箴右銘
 再唱 神目如電이라 暗室을 欺心호며
 天聽如雷라 私語山들 妄發호라
 戒愼恐懼를 隱微間에 닛디마새
 坐如尸儼若思 終日乾乾夕惕若호는쁘든
 尊事天君호고 攘除外累호 百體從令 五常不斲호야
 治平事業을 다이루려 호엿더니
 時也命也인디 迄無成功 歲不我與호니
 白首林泉의 호을일이 다시업다 우읍다
 山之南水之北에 斂藏蹤跡호야 百年閒老 景괴엇다호니잇고¹⁶⁰⁾

159) 한국고전종합DB, 『松巖集』, 松巖集獨樂曲 「獨樂八曲」.

위 시에서는 2, 3구에서는 “神目如電”하고 “天聽如雷”하여 “欺心”이며 “妄發”한다고 하며 혹악(或惡)의 상태를 먼저 말하고 있다. 신(神)과 천(天)의 눈과 귀는 전(電)와 퇴(雷) 같아서 작은 잘못도 모두 보고 듣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4구에서는 혹악(或惡)의 상태인 기심망발(欺心妄發)을 항상 계신공구(戒愼恐懼)하여야 함을 강조함이며, 이 계신공구는 산중처사로서 경(敬)의 수양적 자세이다.

따라서 송암은 수양적인 자세로 삼가고 경계해야 하는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어두운 방안이나 작은 말소리라도 모두 하늘을 속일 수 없음이니, 참된 산수생활과 순수함을 유지해야만이 도(道)의 마음과 독락(獨樂)의 즐거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6구의 “天君”은 사람의 마음을 이르니, 사람의 마음을 지켜야 양제외루(攘除外累), 세속의 번뇌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오상(五常)은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을 말함이니 오상이 부두(不斲), 섞이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의 상(常惺惺)’을 이른다. 7구에서는 자신의 원래 뜻이 치평사업(治平事業)에 있었다고 말하며, 벼슬에 올라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현실적인 이상과 꿈이 있었음을 상기하고 있다.

그리고 9구에서는 “白首林泉의 흐울일이 다시업다 우습다”라고 하며 치평사업을 하지 못하고 은거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그러나 10구에서는 산수에 은거하여 발자취를 감추고, 한가한 삶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어떠한가 찬양하고 있으니, 비록 백수임천이라고 할지라도 학문을 수양하는 선비의 본 모습을 잃지 않는 처사의 자부심이 나타나 있다.

7~9구에서 나타나는 치평사업에 대한 미련과 10구에서 나타나는 산수은거에의 찬양은 서로 갈등을 이루고 있다. 송암의 이와 같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자기 갈등에 대하여 김병국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송암은 “山之南 水之北에 斂藏蹤跡 ㅎ야 百年間老景 긔엇다 ㅎ니잇고”라고 ‘百年間老’의 생활을 노래하고 있다. 이것은 ‘隱者’의 일반적인 생활이요 표

160) 한국고전종합DB, 『松巖集』, 松巖集獨樂曲 「獨樂八曲」.

방이다. 그러나 이것이 송암의 본래 뜻은 아니니, “尊事天君호고 攘除外累호야/ 百體從令 五常不黷호야/ 治平事業을 다이루려 호엿더니”에서 처럼 ‘治平事業’이 하고자 하는 바였다. 그런데 젊은 시절 계속되는 과거의 실패로 송암의 이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의 不平’이 생기게 된다.¹⁶¹⁾

김병국의 해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송암은 「독락팔곡」에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자기갈등을 노래한다. 그러나 송암이 「독락팔곡」에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불평·우사를 드러내어 노래 부름으로써 해소하기 위해서”¹⁶²⁾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것이 송암의 세상과 단절되어 있으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학문적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의지이자, 산수공간 속에서 느끼는 고독의 세계로서의 산수락이다. 다음 시를 살펴보자.

초당에서 바로 읊다(草堂卽事 二絶)
 초가의 사립문 닫고 낮에도 열지 않으니
 봄이 와도 누가 술병 차고 오겠느냐
 세상일이 내 귀를 번거롭게 할까 두려운데
 거친 계단에 이끼 푸르러도 아깝지 않네
 手掩蓬扉晝不開 春回誰佩一壺來
 恐將世事煩吾耳 不惜荒階破綠苔¹⁶³⁾

위 시의 1구에서 초가의 사립문을 닫고 낮에도 열지 않는 것은 상당히 자기폐쇄적인 산수생활을 말한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세상과의 단절이니, 2구에서도 봄이 와도 벼를 찾아가지도, 벼이 찾아오지도 않는 단절된 환경이 계속된다. 송암이 이렇게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이유를 3구에서 알아볼 수 있으니, 세상의 번거로운 일들과 미련이 자신의 계신공구한 존사천군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까

161) 김병국, 앞의 논문, 2005, 10쪽.

162) 최현재, 앞의 논문, 2005, 19쪽.

163) 한국고전종합DB, 『松巖先生文集』卷之一, 「草堂卽事二絶」.

두려워함이다. 그래서 4구에서는 사람의 왕래가 없어 거칠고 이끼 푸르른 자신의 초당 속 계단이 아쉽지 않고 아름답게 보이며 자기만족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락은 한거 이후이며, 한거는 보편적인 것이다. 또한 독락은 특수한 것이며 한거는 생활의 모습이다. 은거는 그것에서 느끼는 서정의 세계이며 그 정신적 경계가 독락이다. 송암에게 있어 산수는 독락의 표상이며, 상징이다.

송암의 한거는 명철보신이나 처사객의 한정이 아닌 퇴계와 같은 학문수양 계통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처사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처사라는 것은 선비로써 산수에 거처하는 것이며, 한의 공간이라는 것은 현실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거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번거로운 벼슬과 세속적 공명을 떠난 삶이다. 따라서 학문적 목적이 인간완성이라는 자기수양에 있으며 한거는 그 공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처사로서 송암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며 처사문학으로서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송암은 도의 실천을 일생의 목적이요 표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것은 송암 산수시가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 도의 실천적 삶은 이념미에 경도되어 대자연의 현상적 아름다움과 산수미를 깊게 이해하지 못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V. 도학실천의 자성과 전원회귀

1. 김광욱의 율리은거와 한적

「율리유곡(栗里遺曲)」은 조선 중기 김광욱(金光煜, 선조 13~효종 7, 1580~1656)이 지은 연시조이다. 모두 14수로, 『청구영언(靑丘永言)』·『해동가요(海東歌謠)』 등의 가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전원시가(田園詩歌) 계열의 산수시가이다. 도남의 율리유곡에 대한 다음의 언급을 살펴보자.

“「栗里遺曲」은 江湖歌道 계열의 田園詩歌이다. 朝鮮時代의 田園詩歌는 이렇듯 農村生活의 素朴을 동경하였으며, 그리하여 閒寂의 美를 추구하였다. 관념적인 말이 없고, 소재도 농촌의 생활에서 취하여, 형상이 소박에 맞추어졌다. 특히 보리술·꽃죽·쑥달임·꽃달임·닭찜·계찜 등의 소재를 통하여 농촌생활의 담박함을 나타내었다.”¹⁶⁴⁾

윗글에서, “江湖歌道 계열의 田園詩歌”라는 규정을 새롭게 해석해 봄으로써 「율리유곡」의 산수시가로서의 특성을 잘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도남이 말한 “江湖歌道 계열의 田園詩歌”라는 말은 산수시がい면서 농촌과 산촌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즐거운 서정과 산수미가 형상화되어 있는 시가작품이라고 재해석 할 때 「율리유곡」의 시세계가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 김창원의 다음 언급에서 「율리유곡」의 시세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김광욱의 「율리유곡」에는 전원시조와 함께 강호시조가 공존하고 있다. 김광욱은 자신의 행주 별서에 머물며 자신의 삶을 어부에 빗대어 몇 수 시조로 남겨 놓았다. 그렇다면 이같은 강호시조의 어부 형상과 전원시조의 자연

164) 조윤제, 앞의 책, 1994.

농 형상 사이에는 어떤 근원적인 미적 차이가 내재하는 것일까? (중략) 결론을 먼저 말하면,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양자는 모두 근원적으로 볼 때, 중앙으로서의 서울을 고수하려는 사회의식의 소산이기 때문이다.¹⁶⁵⁾

김창원은 「울리유곡」이 “중앙으로서의 서울을 고수하려는 사회의식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강호시조와 근원적으로 같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울리유곡」이 농촌과 산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산수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물리적·심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이라는 특성이 같기 때문에 그 미의식도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선 「울리유곡」이란 제목부터 살펴보면, 울리(栗里)는 도연명이 팽택령을 그만두고 은거한 마을 이름이다. 유곡(遺曲)은 도연명이 울리에 은거하면서 창작하여 남겨 둔 시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김광욱이 도연명의 은거를 흠모하고 효방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며 산수생활과 산수락을 노래한 시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울리유곡」은 김광욱이 스스로 도연명의 은거를 효방하여 자신의 산수생활을 노래한 시가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이것은 「울리유곡」 일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陶淵明 주근 後에 또 淵明이 나뉘 말이
밤맛을 네 일흠이 마초와 ㄱ틀시고
도라와 守拙田園이야 기오 내오 다르랴¹⁶⁶⁾ <栗里遺曲, 一>

위 시의 중장 “守拙田園”에서 도연명이 전원예 은거한 뜻을 이어 자신의 산수 은거를 전원이라고 명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김광욱이 느끼는 산수은거의 한가로운 심경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功名도 니젓노라 富貴도 니젓노라
世上 변우한 일 다 주어 니젓노라

165) 김창원, 앞의 논문, 2008, 70~71쪽.

166) 『고시조대전』, 1349.1, 294쪽.

내 몸을 내뻗자 니즈니 늪이 아니 니즈랴¹⁶⁷⁾ <栗里遺曲, 二>

위 시를 살펴보면 김광옥의 심경은 첫째, 공명과 부귀를 잊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수의 종장에서 “내몸을 내뻗자 니즈니 늪이아니 니즈랴”라고 노래하여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산수에 묻혀 살아가는 욕심 없는 심경을 노래하였다. 그러니 저절로 삼수의 초장과 같이 가난하지만 인정이 넘치는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뒷집의 술밭을 꾸니 거른 보리 말 못 츠다
즈는 것 마고 씨허 쥐비저 괴아 내니
여러 날 주렸든 입이니 드나 쓰나 어이리¹⁶⁸⁾ <栗里遺曲, 三>

위 시의 초장에서 술밭은 쌀을 꾸었더니 거칠은 보리였으며, 그것조차도 충분치 못해 그 양이 한 말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가난하고 여유 없는 생활이나, 그 생활 속에서도 술을 빚는다는 것은 가난함 속에서도 풍류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도남이 말한 ‘한적(閑寂)의 미(美)’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종장에서는 “주렸든 입”과 “드나 쓰나” 등의 매우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면을 묘사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과 가난을 수용하는 마음의 여유가 느껴진다.

江山 閑雅 風景 다 주어 맛다이셔
내 혼자 남자여니 뒤라셔 드톨소니
늪이야 숨꾸지 너긴들 눈화 볼 줄 이시랴¹⁶⁹⁾ <栗里遺曲, 四>

사수의 초장과 중장에서 화자는 강산의 풍경 모두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사수의 종장에서는 “눈화 볼 줄 이시랴”라는 감탄형의 표현을 통해

167) 『고시조대전』, 0318.1, 67쪽.
168) 『고시조대전』, 4181.1, 319쪽.
169) 『고시조대전』, 0139.1, 31쪽.

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여기든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권순회는 「율리유곡」의 이와 같은 심상에 대하여 “낙관적 풍류”라고 하였는데, 김광욱이 전가 생활의 자족적 흥취를 노래한 다른 시조에서도 이 낙관적 풍류 양상이 나타난다¹⁷⁰⁾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김광욱의 이와 같은 낙천적이고 즐거운 전원생활에 대한 심상은 김광욱 시가의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따라서 사수는 주변 산수풍경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즐거운 심경에 대한 자각을 노래하게 된다.

덜가마 조히 싯고 바회 아래 심물 기러
 풋죽 들게 썩고 저리지이 쓰어내니
 世上에 이 두 마시아 늬이 알가 흥노라¹⁷¹⁾ <栗里遺曲, 五>

위 시의 초장에서 질가마는 흙으로 빚어 만든 술이다. 이것은 쇠로 만든 문명적이고 화려하며 부유한 느낌의 술과는 그 의미하는 내용이 다르다. 그러므로 질가마는 천연적 재료에 의한 소박하고 자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 질가마는 바위 아래 샘물을 생각해 볼 때 깊은 산골의 가난하고 소박한 은자의 삶을 상징적으로 암시한다.

중장을 고려해보면 시적 자아는 은자라기보다는 깊은 산골 생활의 일상적 즐거움에 젖어 있는 평범한 삶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 시의 작자는 고관대작이면서 유학자이다. 그러니, 위 시에 형상화된 산골 생활은 산수에 은거하는 가난하면서 편안한 삶이며, 세속을 초월한 맑은 정신의 세계를 표상한다. 그러니 수졸전원(守拙田園)의 순박함이다. 이는 7수에서 “낙시”와 8수에서 “淸興”, 구수의 “一聲漁笛”으로 시적 의상을 형상화하였다.

茅簷 기나긴 희에 희울 일이 아조 업서
 蒲團에 낮잠 드리 夕陽에 지자 씨니
 門밖과 뉘 흥흥 흥며 낙시 가자 흥느니¹⁷²⁾ <栗里遺曲, 七>

170) 권순회, 「<율리유곡>의 창작 기반과 시적 지향」, 『우리문학연구』12, 우리문화회, 1999, 168쪽.
 171) 『고시조대전』, 4500.1, 967쪽.

초장에서는 띠풀로 이음을 지은 은자의 집과 그곳에 은거하며 세상사를 잊은 한가한 심격을 “희을 일이 아조 업서”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느긋한 심경의 여유와 게으름마저 즐거움을 주어 “낮잠 드리 夕陽에 지자 씨니”에서 극대화된다. 그래서 소박한 삶에서의 한가한 일상이 묘사되고 있으며, 이 한가함도 관리생활을 회상하면 고맙고 즐겁다. 그러나 중장에서 긴 낮잠에서 깨어나니 무료함이 문득 몰려온다. 그때 마침 이웃이 찾아와 낚시를 가자고 하니, 반갑고 즐겁다. 이 즐거움은 한가한 생활에서의 소박한 즐거움이다.

三公이 貴타 혼들 이 江山과 밧골소나
扁舟에 둘을 싣고 낙대를 훗더질 제
이 몸이 이 淸興 가지고 萬戶候 衞들 부르랴¹⁷³⁾ <栗里遺曲, 八>

그래서 8수에서는 삼공의 높은 벼슬도 산수생활의 즐거움과는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8수에서 송암은 청흥(淸興)을 자각하며 세상 부귀영화보다 즐겁고 행복한 자족의 심경을 “扁舟에 둘을 싣고 낙대를 훗더질 제”라는 자연합일의 산수친화의 삶을 노래한다. 자신의 생활이 자연에서 오는 청흥(淸興)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중장에서 “萬戶候 衞들 부르랴”라고 자신의 산수생활을 스스로 만족해하는데, 이는 곧 산수락을 생활 속 삶을 통해 자각하는 순간의 만족스러운 심경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의상은 다음 시에서 관념적 개념으로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심경을 서술한다. 다음 작품을 살펴보자.

헛글고 싣근 文書 다 주어 후리치고
匹馬 秋風에 채를 쳐 도라오니
아프리 띠인 새 노히다 이대도록 식훤흐랴¹⁷⁴⁾ <栗里遺曲, 十>

172) 『고시조대전』, 1655.1, 358쪽.
173) 『고시조대전』, 2393.1, 512쪽.
174) 『고시조대전』, 5398.1, 1170쪽.

10의 초장에서 “文書”는 화자가 버리고 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되는데, 허왕육의 의견처럼 이 ‘문서’는 “자아가 서 있던 자리를 중심으로 그려지는 현실 정치 상황의 동심원이 자아에게 부정적인 경험으로 다가오는 것”¹⁷⁵⁾으로 현실정치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다. 따라서 화자는 세속 정치라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미련과 생각을 버린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매우 낙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0수의 초장 “헛글고 싯근 文書 다 주어 후리치고”는 관리로서의 삶을 그만두고 산수에 은거하는 평범한 선비로 돌아온 마음의 평안함과 정신적 홀가분함을 노래하였다. 그리고 십일수 “대막대 너를보니 有信하고 반갑괴야”에서는 어린 시절 추억이 어린 고향과 그리운 옛 시절에 대한 감회를 노래하였으니, 죽마고우의 고사를 연상케 한다. 그리고 종장에서 어린 시절의 죽마는 노인이 되어 울리로 돌아온 이후부터는 지팡이가 되어 어린 시절의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는 회고의 삶을 돕는다. 순간 시적 전개가 급속하게 변화되며 어린 시절 추억과 노년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세월의 유수같은 변화와 인생을 반추하고 있는 듯하다. 그 심경은 즐거우면서도 아쉬울 것이라 짐작된다.

대막대 너를 보니 有信하고 반갑괴야

나니 아헛 적의 너를 타고 둔너더니

이제란 窓 뒤헤 섯다가 날 뒤세고 둔너라¹⁷⁶⁾ <栗里遺曲, 十一>

그래서 11수에서도 화자는 자신의 노쇠함을 “대막대”와의 대화 상황을 통해 재치 있고 낙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낙관적 풍류에서는 세사(世事)와 관련된 무엇도 찾을 수 없으며, 오직 산수생활의 즐겁고 낙천적인 풍류만이 읽힐 뿐이다. 다음 시에서는 세상사 번거로움을 잊고 살아가는 한적한 삶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175) 허왕육, 앞의 논문, 2011, 453~453쪽.

176) 『고시조대전』, 1283.1, 273쪽.

世上 사롭들이 다 브러 어리더라
죽을 줄 알면서 놀 줄란 모로드라
우리는 그런 줄 알모로 長日醉로 노노라¹⁷⁷⁾ <栗里遺曲, 十二>

黃河水 몹단말가 聖人이 나셔도다
草野 群賢이 다 니러나닷 말가
어즈머 江山風月을 놀을 주고 갈소니¹⁷⁸⁾ <栗里遺曲, 十三>

십수와 십일수의 시적 의상은 십이수와 특히 십삼에서 그 즐거운 심경이 심화되면서 스스로의 만족과 자각의 기쁨을 노래하였다. 곧 “長日醉”, “江山風月을 놀을 주고 갈소니” 등에서 산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심화된 심경임을 노래하였으며, 이 심경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자족(自足)의 경계(境界)이다. 이와 같은 시적 자아의 심적 만족과 자각의 기쁨은 전원 생활의 경험이 자연친화의 심경에서 산수락과 산수유상의 심경으로 승화된다.

특히 「율리유곡」 십이수는 사설시조로 파생되어 불렀을¹⁷⁹⁾ 정도이니, 그 솔직하고 즐거운 정서가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십삼수 또한 자신의 노쇠함도, 세사의 번민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직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을 뿐이니 대단히 만족스러운 심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상을 살펴볼 때 김광옥의 「율리유곡」에 형상화된 산수은거와 산수유상을 통한 산수락은 탈속적이지만 인간의 세상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은거의 공간이 세속과 떨어져 있지만 단절되어 있지도 않다. 그 뿐만 아니라 시적 자아는 세속적 욕망과 명예로부터 멀어졌으나, 인간이 가진 적절한 욕망이 오히려 산수은거의 삶을 평화롭고 아름다우며 만족스럽게 만든다.

따라서 권호문의 시세계와 비교해 볼 때 김광옥의 「율리유곡」이 훨씬 더 반문명적이며 자연친화적이고 탈속적인 시세계를 형상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김광옥의 「율리유곡」에서는 유교적 이념에 경도된 권호문의 한거에서 벗어나 그 정

177) 『고시조대전』, 2647.1, 559쪽.

178) 『고시조대전』, 5506.1, 1191쪽.

179) 김학성, 「시조의 텍스트 파생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21쪽.

신적 경계가 자유로우며 산수친화의 심경이 수졸전원과 한적의 미로 자연스럽게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박인로의 생활공간과 田園躬耕

박인로(明宗 16~仁祖 20, 1561~1642)의 본관은 밀양이며 자는 덕옹(德翁), 호는 노계(蘆溪)이다. 영천(永川) 출생으로 승의부위(承議副尉) 석(碩)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시재(詩才)에 뛰어났으며, 1592년(宣祖 25) 임진왜란 때 의병장 정세아(鄭世雅)의 막하에서 별시위(別侍衛)가 되어 무공을 세우고 종군, 1598년 왜군이 퇴각하자 사졸(士卒)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가사 「태평사(太平詞)」를 지었다. 이듬해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장·선전관을 지내고 이어 조라포수군만호(助羅浦水軍萬戶)로 군비(軍備)를 증강하는 한편 선정을 베풀어 선정비가 세워졌다.

퇴관 후 고향에 은거하며 독서와 시작(詩作)에 전념하여 많은 걸작을 남기고, 1630년(仁祖 8) 노령으로 용양위 부호군이 되었다. 문집에 『노계집(蘆溪集)』, 작품에 「태평사(太平詞)」, 「사제곡(莎堤曲)」, 「누항사(陋巷詞)」 등이 있다.¹⁸⁰⁾

박인로는 조선조 명종·선조·광해군·인조 때의 인물이다. 당시는 많은 당쟁과 임병양란이 있었던 혼란기였다. 그는 국가적 난리를 직접 겪으며 조선 사회의 참담한 환경 속에서 일생을 마쳤다. 그러나 ‘노래를 잘 짓는 이(善歌者)’로서 수많은 가사와 시조를 남겨놓음으로써 한국문학사에 큰 자취 남겼다.

그의 스승이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13세 때 지은 한시 「대승음(戴勝吟)」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하니, 어릴 때부터 글재주가 뛰어났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 시를 살펴보자.

대승음(戴勝吟)

낮잠 자주 깨우는 오디새 소리

180) 노계의 행적은 鄭葵陽, 「行狀」을 통하여 논자가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원문은 한국고전종합 DB, 『蘆溪先生文集』 卷之二, 「附錄 行狀」.

어찌하여 들사람의 마음 보채나
 저 서울 화려한 집 처마에 울어
 밭 갈라 권하는 새 있다 알려라
 午睡頻驚戴勝吟 如何偏促野人心
 啼彼洛陽華屋角 令人知有勸耕禽¹⁸¹⁾

위 시에서처럼 노계가 한가롭게 자라던 때가 노계의 삶에서 제일기(第一期, 成長期: 1~31세)이며, 임란을 맞아 의병으로 종군하고,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으로 종군하던 시기는 제이기(第二期, 出仕期: 32~50세)라 할 수 있다.¹⁸²⁾

선조(宣祖) 25년(1592) 임란이 발발하자 노계는 영천에서 의병장 정세아(鄭世雅)의 별사위(別侍衛)로 참전하였다. 노계는 그때부터 싸움터에 몸을 던져 무부(武夫)로 지내면서 선조(宣祖) 31년(1598) 늦겨울에 가사 「태평사(太平辭)」를 짓고, 선조(宣祖) 34년(1601)에는 시조 「조홍시가(早紅柿歌)」를 지었으며, 선조(宣祖) 38년(1605)에 가사 「선상탄(船上嘆)」을 지었다.

노계는 선조 32년(1599)에 무과에 급제해 벼슬이 조라포수군만호(助羅浦水軍萬戶)에 이르렀으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의 행색은 몹시 초라하였다. 그래서 사졸들이 그의 청렴결백하고 높은 뜻을 기리고자 송덕비를 세워 기념했던 것이다.

제삼기(第三期, 隱退期: 51~82살)는 그가 무부(武夫)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고향에 돌아가 사서삼경과 성리학에 마음을 쓰던 산수생활의 시기이다. 그는 본래 선비였으나 국난에 임해 무부로서 충성을 다하였다.

광해군(光海君) 3년(1611) 그의 나이 51세 때 경기도 용진(龍津)에 은퇴하고 있는 한음 이덕형(李德馨)을 찾아가 노닐면서 가사 「사제곡(莎堤曲)」과 「누항사(陋巷詞)」를 짓고, 이듬해 3월에는 안동의 도산서원에 참례하여 퇴계의 학풍을 흠모하기도 하였다.

광해군 9년(1617년)경에는 한강 정구(鄭逵, 1543~1620)를 모시고 가사 「소유정

181) 한국고전종합DB, 『蘆溪集』 蘆溪先生文集 卷之一 詩○七言絕句 「戴勝吟 十三歲作」.

182) 노계의 삶을 제일기(성장기:1~31살), 제이기(출사기:32~50살), 제삼기(은퇴기:51~82살)로 나눈 것은 이상보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이상보, 「박인로론」, 한국시조학회 편,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212~215쪽.)

가(小有亭歌)」를 지었으며, 경주 옥산 독락당을 찾아가서 회재 이언적(李彦迪)의 도학을 흠모하며 가사 「독락당(獨樂堂)」을 짓기도 했다.

인조(仁祖) 7년(1629) 그의 나이 69살 때에는 여헌 장현광(張顯光, 1554년~1637년)을 입암(立巖)으로 찾아가 뵈고 선생을 중유하여 시조 「입암이십구곡(立巖二十九曲)」과 가사 「입암별곡(立巖別曲)」¹⁸³⁾을 지었으며, 인조 13년(1635)에 75살로 가사 「영남가(嶺南歌)」를 지었다. 그 이듬해에는 가사 「노계가(蘆溪歌)」와 시조 「오륜가(五倫歌)」 25수 등을 지었다. 그밖에 한시와 국문시조들도 거의 제 삼기에 창작한 작품이다.

노계의 작품 중 산수문학에서 우선 주목되는 작품은 「누항사(陋巷詞)」이다. 누항사는 노계가 노계는 51세 때(1611년, 光海君3)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인 경기도 용인에 돌아가 생활하던 중 지었는데, 한음 이덕형이 그에게 두메 살림의 어려운 형편을 묻자 이에 대한 답으로 「누항사」를 지었다고 전한다.

여기서 누항은 자신의 거처를 의미하는데, 산수문학의 입장에서 이 ‘누항’이라는 말은 매우 주목되는 용어이다. 노계 이전의 선비들은 산수를 풍류의 장소나 수양의 장소로 보았는데, 누항이란 용어에서 보이는 노계의 산수관은 현실적 삶인 생활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누항사」에서 노계는 자신의 거처와 생활의 간고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陋巷箕踞處的草幕을 지어두고 風朝雨夕에 석은답히 섬히되야서 흙밥닷흙 粥에 煙氣도 하도할사
설데인 熟冷애 빈비석일뿐이로다¹⁸⁴⁾

위 작품 “草幕을 지어두고 風朝雨夕에 석은답히 섬히되야서 흙밥닷흙 粥에 煙氣도 하도할사”에서 누항은 초라한 초막과 끼니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의 장소로 표현된다. 이 초막은 은사나 은거하는 선비의 거처가 아닌 단순히 간고한 살림살이를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누항사」에 묘사된 가난이 박인로가 직접 경험한 것인가에 대한 반

183) 「立巖歌」이라고도 일컫는다. (『蘆溪集』 蘆溪先生文集卷之三 歌 「立巖歌 二十二章」)

184) 한국고전종합DB, 『蘆溪集』, 蘆溪先生文集卷之三 歌 「陋巷詞 公從遊漢陰相公 相公問公山居窮苦之狀 公乃述己懷作此曲」.

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최현재는 박인로의 정치적 지위나 경제적 처지에 대해 정치하게 논의하면서, 박인로가 실제로는 가난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¹⁸⁵⁾ 그러나 박현숙은 박인로와 관계된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누항사」에 형상화된 가난이 노계의 경험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며¹⁸⁶⁾ 이종문 또한 노계가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었다는 근거를 크게 다섯 가지로 들어 밝히고, 노계가 재지사족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다.¹⁸⁷⁾ 이 논문에서는 「누항사」의 가난이 노계 자신의 경험이었다는 박현숙과 이종문의 논의에 동의를 하면서 논지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위 가사를 보면, 노계가 처한 초막에서의 현실적 삶은 첫째, 썩은 짚을 연료로 하여 서홉밥과 다섯홉의 죽을 요리하느라 그 연기로 인한 고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식량과 빨감이 부족하여 그저 덜 데운 차가운 송늬를 마시며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가난한 형편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누항에서의 삶은 현실적 생활의 어려움과 배고픔의 고초가 실제적이며 경험적으로 영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노계로 하여금 선비로서의 사회적 지위나 이상마저 망각하게 할 정도로 극심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다음 부분을 살펴보자.

丈夫 뜻을 옮길 년가 安貧一念을 적을 망정 품고 이서 隨宜로 살려 하니 날로 조차 齷齪하다 ㄹ ㄹ 不足 거든 봄이라 有餘 하며 주머니 뷔엿 거든 瓶의라 담겨 시라 貧困 혼 人生이 天地間의 나쁜이라 飢寒이 切身하다 一丹心을 이질는 가 奮義忘身 하야 죽어야 말녀 너겨 于囊于囊의 줍줍이 모와너 寇兵戈五載에 敢死心을 가져이서 履尸涉血 하야 몇 百戰을 지니 연고 一身이 餘暇 잇사 一家를 도라보랴 (중략) 人間 어니일이 命 밧기 삼겨 시리 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 마는 니 生涯이 러호디 설은 뜻은 업노 왜라 簞食瓢飲을 이도 足히 너기로라 平生 혼 뜻이 溫飽애는 업노 왜라 太平天下애 忠孝를 일을 삼아 和兄弟信朋友외다 하리 다투이 시리 그 밧기 남은 일이야 삼긴 디로 살렸노라¹⁸⁸⁾

185) 최현재, 「재지사족으로서의 박인로의 삶과 <누항사>」, 『국문학연구』9, 국문학회, 2003, 192~193쪽.

186) 박현숙, 「박인로 <누항사>연구」, 『국어국문학』157, 국어국문학회, 2011, 94~96쪽.

187) 이종문, 「蘆溪 朴仁老의 社會的 位相에 대한 再檢討」, 『어문논집』82, 민족어문학회, 2018.

188) 한국고전종합DB, 「陋巷詞」.

“丈夫뜻을 움길년가 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이셔 隨宜로 살려흐니 날로조차 齟齬하다”에서 노계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장부의 뜻을 품고 안빈일념의 삶을 살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지난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또 농우를 빌리러가는 저간의 사정을 “쇼업손 窮家에 혜염만하 왓삽노라 공흐니 나갑시나 주엄즉도 하다마는 다만 어제밤의 거빈집저 사람이 목불근수기雉을 玉脂泣게 꾸어니고 간이근 三亥酒을 醉托록 勸흐거든 이러한 恩惠을 어이아니 갑흘년고 來日로 주마흐고 큰言約 ㅎ야거든 失約이 未便흐니 사설이 어려왜라”라고 함으로서 가난한 농부의 현실적 고충을 실감 있게 묘사하였다.

그리고 “農歌도 興업서 들리느다 世情모른 한숨은 그칠줄을 모르느다”에서는 생이 의욕을 상실한 농촌의 당시 현실을 처절히 묘사하였다. 이에 관하여서는 다 음 박영주의 연구에서 언급한 시가사적 흐름을 참고해 볼 수 있다.

17세기 초 이전의 사대부 가사가 주로 자연을 대상으로 관조적 심미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17세기 초 이후의 사대부 가사는 주로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체험의 구체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모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그 전환기적 변모 양상의 단면을 우리는 노계 박인로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가사 작가로서는 드물게 11편의 작품을 통해 자연(전원), 전란, 이념, 교훈, 생활상, 풍류 등을 제재로 다채로우면서도 복합적인 작품론적 성향을 보여준다.¹⁸⁹⁾

박영주의 언급처럼 노계의 가사는 자연에 대한 심미관에서 체험의 구체성을 중시해나가는 전환기적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노계의 산수생활이 현실적 생활과 이상추구라는 두가지 측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계의 「누항사」는 자신의 궁핍한 생활을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가사의 역사적 흐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89) 박영주, 「사대부 가사의 전환점에 위치한 노계 박인로」, 『오늘의 가사문학』17, 한국가사문학관, 2018, 42쪽.

이런 생활의 고통으로 말미암은 삶의 피폐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절망적 의식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니, “그을히不足거든봄이라有餘호며주머니뵈엇거든甌의라 담겨시라貧困호인人生이天地間의나쁜이라”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전쟁으로 인한 피폐에서 가정을 돌볼 수 없었던 국가적 전란이었음을 “兵戈五載예敢死心을가져이셔履尸涉血호야몇百戰을지너연고一身이餘暇잇사一家를도라보라”라고 노래하였다.

그러나 노계는 양반으로서의 도리와 이상을 결코 잊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丈夫뜻을 움길년가 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이셔”라고 노래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하였다. “安分一念”은 당시 성리학자들의 전통적 인식인 ‘안분지족’과 관계가 깊은데, 박현숙은 이에 대하여 노계가 장현광·정구 등과 교류하였다는 점을 들어 “<누항사>에 표출된 ‘안빈낙도’의 의미가 위에서 살펴본 성리학자들의 전통적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⁹⁰⁾고 하였다.

따라서 노계가 자신의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은 당시 성리학자들의 ‘안빈낙도(安貧樂道)’의 경향과 관련이 깊다. 그래서 다음의 구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人間어니일이命뵈기삼겨시리貧而無怨을어렵다호건마는니生涯이러호더설
온뜻은업노왜라簞食瓢飲을이도足히너기로라平生호뜻이濫飽애는업노왜라太
平天下애忠孝를일을삼아和兄弟信朋友외다호리뉘이시리그뵈기남은일이야삼
긴더로살렸노라¹⁹¹⁾

위에서 노계는 선비로서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이 ‘충효’와 ‘화형제 신봉우’로 대표되는 유교적 윤리의 실천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노계가 품고 있는 성리학적 이상이 그대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노계의 현실상황과 이상은 「사제곡(莎堤曲)」에서 더욱 강조된다.

「사제곡」은 누항사와 같은 해에 지어졌다. 사제(莎堤)는 용진(龍津)에 있는 이덕형의 휴양처로, 「사제곡」은 노계가 ‘사제’의 아름다운 경치와 이덕형의 소유자

190) 박현숙, 앞의 논문, 2011, 107쪽.

191) 한국고전종합DB, 「陋巷詞」.

적(逍遙自適)하는 모습을 읊고 있는데, 충효실현과 산수생활의 동경을 “萱堂老親은八旬이거의거든湯藥을그치며定省을뵈울년가지야어니스예이山밭기날오소나許由의시슨귀예老萊子の오슬입고압뵈예저술이풀은쇠되도록함기뵈셔늘그리라”라고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사제의 아름다운 산수와 은거의 동경에 대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莎堤안도라드니第一江山이임지업시브려는다平生夢想이오라흐야그러턴지
水光山色이넛눗출다시본듯無情호山水도有情호야보이는다白沙汀畔의落霞을
빛기씩고三三五五히섯거노는더白鷗야너드려말뭇자놀니디마라스라이名區勝
地을어디라드러편다碧波 | 洋洋호니渭水伊川아닌게오層巒이兀兀호니富春箕
山아닌게오林深路黑호니晦翁雲谷아닌게오泉甘土肥호니李愿盤谷아닌게오徘徊
思憶호디아모던줄내물내라岸芝汀蘭은清香이郁郁호야遠近에이어잇고南澗
東溪예落花 | ㄹ독좁겨거늘荊棘을헤혀드러草屋數間지어두고鶴髮을되지고終
孝를호려너겨爰居爰處호니此江山之임채로다三公不換此江山을오늘스아라고
야¹⁹²⁾

윗글에 나오는 “渭水伊川”은 이천 정이를 암시하며 “富春箕山”은 부춘산에 은거한 처사 엄자룡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晦翁雲谷”은 주자를 말하니 노계의 이상은 아름다운 산수에서 세속을 초월한 한가한 심정과 학문의 수련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鶴髮을 되지고 終孝를 호려너겨’에서 알 수 있듯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는 유학자적 삶의 구현이 “三公不換此江山”이라 하였으니, 벼슬에 욕심이 없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노계의 이러한 이상은 안동의 도산서원에 참례하여 퇴계의 학풍을 흠모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회재 이언적의 독락당을 방문하고 그에 대한 경모와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 심경이 「독락당(獨樂堂)」에 잘 나

192) 한국고전종합DB, 『蘆溪集』, 蘆溪先生文集卷之三 歌 「莎堤曲 莎堤 地名 在龍津江東距五里許 卽漢陰李相公江亭所在處也 公代相公作此曲」.

타나 있으며, 이 작품에서 노계는 독락당을 찾은 동기와 첫인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紫玉山名勝地에獨樂堂이蕭灑함을들런디오래로디이몸이武夫로서海邊事 |
孔棘거늘一片丹心에奮義를못내호야金鎗鐵馬로餘暇업시奔走터가中心景仰이
白首에더욱깊혀竹杖芒鞋로오날사츄자오니峯巒은秀麗호야武夷山이되여잇고
流水는盤回호야後伊川이되엿는다이러흔名區에임지어이업도편고一千年新羅
와五百載高麗에賢人君子들이만히도지닌마는¹⁹³⁾

위 시에서 노계는 독락당을 주자(朱子)가 살던 무이산(武夷山)과 정이(程頤)가 살던 이천(伊川)에 비유하면서, 자옥산의 유구한 역사에 대해 신라 천년 고려 오백년이라고 말하였다.

독락은 본래 사마온공의 독락원에서 비롯되는데 노계는 독락원에서의 참된 즐거움은 오히려 회재 이언적의 자옥산 독락당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노계의 이와 같은 언급은 독락당이 자옥산 산수와 더불어 만권세책으로 대표되는 학문이 결합된 참된 선비의 수양공간이자 학문정진을 통한 도를 실천하는 현실적 삶의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다.

獨樂堂고쳐올나左右를살펴보니先生風彩를親히 만나뵈옵는듯羹墻의儼然호
야俯仰歎息호며當時호시던닐다시곰思想호니明牕靜几에世慮을이즈시고聖賢
書의着意호야功效를일위니여繼往開來호야吾道를받키시니吾東方樂只君子는
다문인가너기로라호며孝悌를本을삼고忠誠을뵈허니여聖朝의나아들러稷契
의몸이되야唐虞盛時를일월가바라더가時運이不幸호야忠賢을遠斥호니듯는니
보는니深山窮谷엔들뉘아니悲感호리¹⁹⁴⁾

위 시에서 노계는 회재 이언적의 독락당 은거의 아쉬움과 실천하는 지성인의

193) 한국고전종합DB, 『蘆溪集』, 蘆溪先生文集卷之三 歌 「獨樂堂 在慶州玉山 卽晦齋李先生所居堂也 公往尋遺蹟 因作此歌」.

194) 한국고전종합DB, 「獨樂堂」.

로서의 시대적 아픔과 모순에 대하여 심정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도학의 학문적 발전에 대한 공여를 “聖賢書의着意호야功效를일위니여繼往開來호야吾道를받키시니”라고 말하고 있다. “繼往開來”에서 계왕은 학문의 전통에 대한 계승을 말함이고, 개래는 성리학의 학문적 발전과 도의 실천을 통한 성리학적 모범을 말한다. 그리고 노계는 회재의 정신이 투영된 자옥산 독락당의 산수 서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洗心臺는린물에德澤이이어흘러龍湫감흔곳애神物조차잡겨시니天工造化]
 기더욱奇異코야無邊眞景을다춧기어려올시¹⁹⁵⁾

위 부분에서 노계는 자옥산 독락당의 산수서경을 구체적으로 세심대(洗心臺) 물에는 덕택(德澤)이 지금도 이어 흐르는 듯하고, 용추(龍湫) 깊은 곳에는 신물(神物)조차 잡겨 있는 듯, 그의 무궁한 덕화력(德化力)은 기이한 하늘의 조화와 함께 어울리는 듯하다고 말하며 전체적인 느낌과 감상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회재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면서 본받고자 하였다.

先生文集을仔細히살펴보니千言萬語다聖賢의말삼이라道脈工程이日月갓치
 불가시니어드운밤길히明燭잡고엔뎃호다진실로이遺訓을腔子裏에가득담아誠
 意正心호야修誠을넉게호면言忠行篤호야사롭마다어질로다¹⁹⁶⁾

위 부분에서 노계는 회재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겨 그를 오래도록 존송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회재와 퇴계는 이미 만날 수 없는 분이 되었으니 노계는 여현이 은거한 입암에 찾아들었는데, 여현 장현광은 명종 9년(1554) 1월 경상도 인동부(仁洞府) 인의방(人義坊) 남산구제(南山舊第)에서 출생하여 인조 15년(1637) 영양(永陽) 입암(立巖)의 만옥재(晩勸齋)에서 세상을 떠났다.¹⁹⁷⁾ 노계는 인조 7년(1629) 노계가

195) 한국고전종합DB, 「獨樂堂」.

196) 한국고전종합DB, 「獨樂堂」.

197) 황위주, 『여현 장현광의 삶과 문학』, 금오공과대학교 선주문화연구소 편, 『여현 장현광의 학문과 사상』, 금오공과대학교 선주문화연구소, 1996, 403쪽.

69살 때 여헌 장현광의 입암으로 찾아가 뵙고¹⁹⁸⁾ 성현의 정신을 흠모하여 「입암 이십구곡(立巖二十九曲)」을 지었는데, 여헌 장현광 선생이 입암에 은거함에 노계가 일찍이 종유하며 여헌을 대신하여 이 노래를 지었다.

「입암이십구곡」에는 「입암십수(立巖十首)」, 「기려암(起予巖)」, 「계구대(戒懼臺)」, 「토월봉(吐月峰)」, 「구인봉(九仞峰)」, 「소로잠(小魯岑)」, 「피세대(避世臺)」, 「합류대(合流臺)」, 「수진동(壽眞洞)」, 「채약동(採藥洞)」, 「욕학담(浴鶴潭)」, 「수어연(數魚淵)」, 「향옥교(響玉橋)」, 「조월탄(釣月灘)」, 「경운야(耕雲野)」, 「정운령(停雲嶺)」, 「산지령(産芝嶺)」, 「격진령(隔塵嶺)」, 「화이대(畫裏臺)」가 있다. 그 중에서 여헌 선생을 본받아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를 스스로 경계하는 노래로 「계구대(戒懼臺)」, 「합류대(合流臺)」, 「구인봉(九仞峰)」 등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노계 산수시가의 이상을 대단히 잘 알 수가 있다.

無情히 선는 바회 有情하야 보닌다

最靈 吾人도 直立不倚 어렵거늘

萬古에 곳게 선 얼고리 고칠 썩이 업는다¹⁹⁹⁾ <立巖, 一>

입암의 직립불의한 모습, 즉 곧게 서 있는 모습을 노래하였다. 만고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서 있는 바위의 모습을 굳은 절개를 지키고 불의와 부정에 굽히지 않는 선비의 정신에 비유하며 찬양하였다. 매우 관념적이며 입암의 외형이나 자연 물로서의 어떤 특징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 유학자적 관념이 사물에 직접적으로 이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산수에 은거해 있는 선비의 굳은 절개와 덕을 바위에 비유하여 노래하였으므로 유학자의 관념시이자, 성리학적 이념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여헌은 임진왜란 이후 권극립, 정사상, 정사진, 손우남 등 영양(永陽:영천의 옛 지명) 벗들의 요청으로 입암리에 들어와 그들과 함께 28경을 명명했다. 이곳에서 입암 주변 13가지 경물 즉 입암촌, 만모재, 사사헌, 수약료, 계구대, 학욕담, 인학산, 상천봉, 산지령, 구인봉, 도덕방, 경운야 등을 작품화하여 「立岩十三詠」이란

198) 이상보, 「박인로론」, 한국시조학회 편,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213쪽.

199) 『고시조대전』, 1704.1. 366쪽.

작품을 지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곳의 산수 경물을 다시 읊어 「입암 정사」, 「계구대」, 「피세대」, 「소잠」, 「기려암」, 「합류대」, 「격진령」, 「육학담」 등과 같은 작품을 다양하게 창작하였다.²⁰⁰⁾ 그런데 노계가 여헌을 찾아와 학문을 구하며 입암 주변의 여러 산수경관에 대하여 여헌을 대신하여 「입암이십구곡」이란 시조 작품을 지었다.

이것은 노계의 여헌에 대한 존경과 학문에 대한 열망을 산수경물을 통하여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헌의 시와 노계의 시를 비교해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다음의 시를 살펴보자.

성인의 가르침 위미(危微)를 경계하였으니
그 누구인들 이 마음 없을까
이 학문 전해지지 않은 지 오래이니
묵은 책 어느 누가 다시 찾을런가
聖訓戒危微 何人無此心
此學不傳久 陳篇誰復尋²⁰¹⁾

위 시는 「입암십삼영(立岩十三詠)」 중 「계구대(戒懼臺)」라는 작품이다. 계구대란 입암 골짜기에 있는 경물 중의 하나인데, 어떤 바위의 윗 부분 널찍한 곳을 여헌이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계구란 중용의 ‘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에서 나온 말로서 잠시도 도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경외(敬畏)하며 마음이 천리본연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함을 함축한 말이다. 여헌은 바로 이 계구(戒懼)의 의미를 시 전편에 걸쳐 제시하였다. 그러면 노계의 「계구대」를 살펴보자.

戒懼臺 올라오니 문득 절노 戰兢하다
臺上에 살펴 보며 니긋치 저허커든
못 보고 못 듣는 짜히야 아니 삼가 엇지호료²⁰²⁾ <戒懼臺>

200) 황위주, 금오공과대학교 선주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1996, 438쪽.

201) 한국고전종합DB, 『旅軒集』旅軒先生 文集卷之一 詩 ○五言絶句「戒懼臺」.

노계의 시에는 계구의 의미나 철학적 개념이 나타나 있지 않다. 단지 계구대에 올라 주변의 경계를 살피며 ‘아니삼가 엇지르리’라고 하면서 계구의 실천적 생활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결국 노계는 여헌의 계구에 대한 경계와 의미에 대하여 스스로 새기면서 자신의 실천적 생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여헌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노계는 구인봉에서는 학문완성의 끝없는 노력을 강조하였고, 피세대에서는 세속적 욕망을 벗어나 산수에 은거하며 학문하는 학자의 삶을 동경하였다. 그러나 이런 동경은 노계의 이상이며, 현실생활은 「누항사」에서 보듯이 매우 힘들고 간고함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다음 시를 살펴보자.

巍巍²⁰² 九仞峯이 衆山中에 秀異코야
 下學²⁰³ 工程이 이 山 하기 갓건마는
 엇디라 이제 爲山은 功虧一簣²⁰³ ㅎ는 계오²⁰³ <耕雲野>

외외(巍巍)는 의태어로 아주 높은 산의 모양을 말한다. 구인(九仞)은 『시경(書經)』 여오(旅獒)에 “아홉 길의 산을 쌓다가 마지막 한 삼태기의 흙을 채우지 못해 완성이 되지 못함(爲山九仞功虧一簣)”을 인용한 말이다.

하학공정(下學工程)은 『논어(論語)』 「헌문(憲問)」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며 남을 탓하지 않고, 아래로는 배우면서 위로는 통달하나니, 나를 알아주는 것은 하늘일 것이다(何爲其莫知子也 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 其天乎)”의 문구를 인용한 말로, 아래에서 인사(人事)를 배우고 공부하는 일로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의 학문적 단계를 말한다. 공휴일궤(功虧一簣)는 구인봉이라는 봉우리 이름의 고사와 상통한다. 따라서 매우 이념적인 관념의 경계를 형상화하였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계는 초장에서 성현의 학문이 높고 빼어남을 구인봉이 높고 높아 여러 산 중에서도 특별히 빼어난 것으로 비유하며, 여헌 장현광에 대한 존경의 마

202) 『고시조대전』, 0256.1. 53쪽.

203) 『고시조대전』, 3525.1. 746쪽.

음을 “衆山中에 秀異코야”라고 하였으니, 당시 여헌의 학문적 위상을 고려하면, 그 뛰어난 시각적으로 훌륭히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 비유의 경계가 마치 눈앞의 실경과 같이 자신에게 큰 감동과 경외로 다가와 오고 있음을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장에서는, 성현과 같이 학문을 이루고 공부하는 일이 매우 어려우니 자신도 공부에 힘을 쓸 것을 다짐하면서, 종장에서는 구인봉의 고사를 다시 인용하면서 학문에 대한 자신의 굳은 의지를 반어적으로 노래하였다. 이런 의지는 곧 노계로 하여금 세속의 이욕과 벼슬에 대한 미련을 떨치고 산수은거의 이상향을 찾아 나섰으며,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名리에 쓰지업서 빙오시 막디집고
 訪水 尋山호야 避世臺에 드러오니
 어즈버 武陵桃源도 여기런가 호로라²⁰⁴⁾ <避世臺>

명리(名利)는 명성과 이익을 말하니,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고 부귀를 쌓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벼옷을 입고 막대를 짚는 것은, 아주 소박한 선비의 모습이다. 마치 정명도의 ‘방화수류(訪花水流)’의 시경을 연상케 한다. 방수 심산(訪水 尋山)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상에 맞는 산수를 찾아다니는 의미이다. 그래서 여헌이 피세대(避世臺)라는 이름을 명명한 것과 실제적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을 살펴볼 때, 피세대는 정말 속세를 피해 은자가 숨어 살기에 알맞은 곳이다.

곧 피세대는 장현광이 산수에 은거하며 학문하는 일재당을 주변 산수인 입암의 중심에 있다고 할 것이다. 박인로는 이곳을 찾아 속세를 떠난 한가롭고 무심한 입암의 산수경관 산회의 심정 뿐만 아니라 장현광의 은거를 통한 학문완성의 이상을 존경하고 흠모하여 이곳을 무릉도원에 비유하였으며, 그 속에 자신의 이상도 함축하여 형상화하였다.

따라서 노계는 초장에서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소박한 선비의 삶을 “빙오시 막디집고”로 비유하였다. 중장에서는 산수를 찾아 속세를 떠난 은

204) 한국고전종합DB, 『避世臺』 『蘆溪先生文集卷之三』 歌 立巖歌 二十二章.

자의 삶을 동경하고, 종장에서는 이러한 산수생활이 자신이 말한 이상적인 선비의 삶이자 낙원임을 “여기런가 흐로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沮溺의 가던 밭치 千年을 묵어거닐
구름을 허허 드리 두세 니렁 가라 두고
生涯를 足다사 ulla가마는 부를 거슨 업노왜라²⁰⁵⁾ <耕雲野>

저익(沮溺)은 공자가 길을 가던 중 만난 춘추시대의 은자 장저(長沮)와 결익(桀溺) 두 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구름을 허허든다는 것은 구름을 헤쳐 가야 할 정도로 깊은 산중이라는 의미이며, 경운야(耕雲野) 또한 구름을 가는 것과 같이 높은 곳에 있는 들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초장에서 노계는 은자가 은거하는 곳을 저익이 갈던 밭이라고 비유하며 그곳이 오래 버려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 곧 세상의 인심이 은자의 삶을 잊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종장에서는 그 버려진 곳을 자신이 찾아왔으니, 입암을 은자가 은거하는 산수에 비유하였으니, 종장에서는 이런 산수은거의 이상적 삶에 대한 만족한 심정을 노래하였다.

이상을 살펴볼 때, 결국 노계는 현실의 간고함을 학자적 삶과 학문에 대한 동경과 실천을 통하여, 그 고통으로부터 승화된 정신적 경계를 개척하게 되었다. 전주의 다음 언급을 살펴보자.

여현과 노계 모두 ‘입암’을 수양의 대상으로 삼는 성리학적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여현의 「입암」은 불변성의 입암과 가변성의 자연물을 대비하였고, 노계의 「입암 10수」는 불변적 성품의 입암과 그런지 못한 사람을 대비하였다. 이 대비적 대상의 차이가 곧 의식적 차이를 드러낸다. 여현은 입암의 성리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둔 반면에, 노계는 입암 자체를 실천 윤리로 삼아 생활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의식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²⁰⁶⁾

205) 『고시조대전』, 4257.1. 911쪽.

206) 오선주, 「蘆溪의 ‘代作/命作’ 속 개별 의식 試考-「立巖二十九曲」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이상을 살펴볼 때 박인로는 자신의 삶의 표준을 회재 이언적, 퇴계 이황, 여헌 장현광에게서 찾았으나, 노계와 여헌의 시가는 그 성격의 차이가 분명하다. 여헌이 성리학적 원리 탐구라는 기존의 조선 중기 전형적인 사대부 시가의 성격을 보인다면, 노계는 성리학적 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실천 윤리로서 자신의 삶의 미래에 대한 지향점과 목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계가(蘆溪歌)」에서 이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白首에訪水尋山太晚
 흔줄알전마는平生素志를뵈고야말라너겨
 赤鼠三春에春服을새로넙고
 竹杖芒鞋로蘆溪깊흔골의헝허마참차즈오니
 第一江山이넘지업시
 브려느다古往今來에
 幽人處士들이만히도잇것마는
 天慳地秘흐야느를주랴남겨
 췌다²⁰⁷⁾

백수는 늙은 나이를 뜻하고 방수심산은 산수를 찾아다님을 의미한다. 적서(赤鼠)는 간지(干支)로 병자(丙子)를 일컬으니 적서삼춘(赤鼠三春)은 병자년 삼월 봄이라는 구체적 시간이다.

죽장망혜(竹杖芒鞋)는 대나무 지팡이와 짚으로 삼은 신을 뜻하니, 매우 소박하고 단출한 모습이다. 유인처사(幽人處士)는 속세를 떠나 산수에 은거한 선비를 의미한다. 천간지비(天慳地秘)는 하늘이 아끼고 땅이 감춘다는 뜻이니, 매우 희귀하고 소중한 것을 이른다.

따라서 “白首에訪水尋山太晚흔줄알전마는平生素志를뵈고야말라너겨”에서 노계는 늙은 나이에 산수를 찾은 것이 늦었지만 평생의 소원을 늦게나마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赤鼠三春에春服을새로넙고竹杖芒鞋로蘆溪깊흔골의헝허마참차즈오니”에서는 병자년 3월 봄에 봄옷을 새로 입고 소박한 모습으로 노계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노계(蘆溪)는 박인로가 호를 삼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지향하는 이상향이자 선비가 은거하고자 하는 산수를 의미한다.

『87, 한국언어문학회, 2013, 194~195쪽.
 207) 한국고전종합DB, 『蘆溪集』, 蘆溪先生文集卷之三 歌「蘆溪歌」.

“古往今來에 幽人處士들이 만히도 잇것마는 天慳地秘 ㅎ야 ㄴ를 주라 남겨 썼다”에서는 노계라는 깊은 골짜기를 수많은 은사들도 찾지 못한 아주 귀하고 소중한 산수로 표현하며, 하늘이 자신을 위해 이곳을 남겨두었다고 표현하였으니, 노계의 산수 생활이 하늘이 내려준 운명이라고 하며 자신의 삶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을 살펴보았을 때, 현실초탈적인 성격이 짙은 장현광의 산수락에 비하여 노계의 산수락은 하나의 삶의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당시 양반 사대부들의 산수관의 변화를 노계의 작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조선 전기와 후기의 산수관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모습이자 노계만의 산수관의 변용이기도 하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의 피폐한 경제상황과 양반 사대부계층의 실제적 신분하락 등 어려운 현실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노계시가는 신계영의 시가와 비교하면 당시 시대적 특징과 흐름을 더 분명히 할 수 있다. 신계영(辛啓榮, 선조 10~현종 10, 1577~1669)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영산(靈山), 자는 영길(英吉), 호는 선석(仙石)이다. 1601년(선조 34)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예산으로 낙향하였다. 몇 년 뒤 부모상을 당했으며, 광해군의 난정에 혐오를 느껴 과거를 보지 않다가 1619년(광해군 11) 알성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같은 해 김열을 거쳐, 병조좌랑·예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1655년(효종 6)에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와 여생을 산수에 은거하였다. 1665년(현종 6) 지중추부사가 되어 기노소(耆老所)에 들어갔고, 1667년에는 판중추부사에 특제되었다. 시호는 정헌(靖憲)이다.²⁰⁸⁾ 신계영의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를 살펴보자.

陽坡의 풀이 기니 봄빛이 늦어 있다

小園 桃花는 밤비에 다 피것다

아해야 소 종이 먹여 논밭 갈게 하야라²⁰⁹⁾ <田園四時歌, 二>

양과는 봄별이 비치는 언덕이니 저절로 봄풀이 자라 녹음이 짙어진 것을 말한

208) 한국고전번역원DB, 『仙石遺稿』 年譜 참조.

209) 『고시조대전』, 3135.1, 665쪽.

다. 종장은 도화꽃이 다 지고 봄이 늦었음을 이야기하니, 종장에서는 농사짓기를 준비해야 하는 농부의 마음과 시절의 도래를 노래하였다.

殘花 다 진 後에 綠陰이 깃피 간다
白日孤村에 낮담의 소리노다
아해야 계면조 불러라 긴 조름 꺼우자²¹⁰⁾ <田園四時歌, 三>

위 시는 “긴 조름”을 살펴볼 때, 여름의 무더위와 노곤함을 노래하였으니, 한가로운 농촌의 휴식과 고요한 여름의 시절을 노래하고 있다. 아래의 두 수는 가을을 노래하였다.

흰 이슬 서리 되니 가을이 늦어 잇다
긴 들 黃雲이 한 빛이 되겼고나
이해야 비진 술 걸러라 秋興겨워 하노라²¹¹⁾ <田園四時歌, 五>

東籬에 菊花 피니 重陽이 거의로다
自蔡로 비진 술이 하마 아니 닉겼노나
아해야 紫蟹 黃鷄로 안酒 작만하여라²¹²⁾ <田園四時歌, 六>

흰이슬이 서리되는 것은 24절기의 백로이다. 곧 이슬이 서리가 되는 상강이 되면 가을은 한없이 늦고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때는 국화꽃이 피고 가을 걷이가 끝나 풍요로운 계절이 돌아오니 국화주로 술을 빚고 살찐 개와 노란 닭으로 안주를 장만하여 풍요로운 계절을 즐긴다. 곧 이러한 농촌의 정경 “비진 술”, “紫蟹 黃鷄”로 표현하고 있다.

210) 『고시조대전』, 4159.1, 882쪽.

211) 『고시조대전』, 5553.1, 1201쪽.

212) 『고시조대전』, 1387.1, 301쪽.

北風이 높이 부니 압피해 눈이 진다
茅簷 찬 빛이 夕陽이 거의로다
아해야 豆粥이나 걸러라 먹고 자라 하노라²¹³⁾ <田園四時歌, 七>

어제 쇼 친 구들 오늘이야 채 덥거니
긴 줌계우 씨니 아적 날이 늙파 잇다
아허야 서리 녹앗느냐 닐고 자고 흐노라 <田園四時歌, 八>

위 시의 첫 수 초장 “北風이 높이 부니 압피해 눈이 진다”는 추운 겨울 눈 내린 산의 서경을 묘사하였다. 매우 고요하고, 맑고 깨끗한 세상을 연상케 한다. 두 번째 수의 중장 “긴줌 계웁기니 아적날이 늙파잇다”는 겨울 농사일이 없고 휴식을 취하는 기간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잠자며 느지막이 일어나는 농부의 게으르고 만족스러운 겨울날의 농촌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매우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태평스럽고 행복한 인정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서정의 영역이 매우 깊고 체험적이며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하겠다. 다음 시는 겨울이 지나 새해를 맞이하는 농촌의 희망과 새해를 시작하는 삶에 대한 기대들을 형상화하였다.

이바 아해들아 새해 온다 질겨 마라
헌서한 歲月이 少年 아사 가느이라
우리도 새해 질겨 하다가 이 白髮이 되었노라²¹⁴⁾ <田園四時歌, 九>

이바 아해들아 날 샌다 깃거 마라
자고 새고 자고 새니 歲月이 먼저 간다
百年이 하 草草하니 나는 굿버하노라²¹⁵⁾ <田園四時歌, 十>

213) 『고시조대전』, 2137.1, 461쪽.

214) 『고시조대전』, 3837.1, 810쪽.

215) 『고시조대전』, 3835.1, 809쪽.

위 시는 새해를 맞은 기쁨 속에서도 인생의 노년을 아쉬워하는 심정이 “白髮”, “百年이 하 草草하니”등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원사시가」는 전체적으로 농촌 생활의 사계절과 편안하고 행복한 자족적 삶을 노래하고 있으니, 산수은거의 수양적 생활이나 처사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평범하고 소박한 농부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계의 전원락과 비교해 볼 때 그 사실성이 희박하며, 체험적 경험에서 나오는 전원락을 노래하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전원사시가」 역시 산수문학에서 볼 때는 시대에 따른 변형된 산수락을 노래하였으므로, 산수문학의 경향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따라서 노계가 노래하고 있는 산수락은 생활공간과 체험적 사실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산수시가의 시대적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이 노계의 양반계층으로서 한계점이기도 하며 동시에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는 산수관으로 생활문학의 일면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산수시가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과 이상이 잘 결합되어 있는 산수락의 하나의 변용이라는 점에서 산수문학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앞에서 논의한 김광욱과 비교해 볼 때, 물론 신분적 계층이나 삶의 여정에 큰 차이가 있지만, 노계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산수나 사실감 있는 체험적 정서는 당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산수관의 근대적 큰 전환점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점이 노계 산수시가의 큰 특징을 이루고 있다.

VI. 예학명분의 논쟁과 원림 조성

1. 윤선도의 보길도 원림과 독립공간

윤선도(尹善道, 선조 20~현종 12, 1587~1671)의 본관은 해남(海南)이며 호가 고산(孤山)·해옹(海翁)이다. 1612년(광해군 4) 진사가 되고, 1616년 성균관 유생으로 권신 이이첨(李爾瞻) 등의 횡포를 상소했다가 함경도 경원(慶源)과 경상도 기장(機張)에 유배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풀려나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가 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낙향, 여러 관직에 임명된 것을 모두 사퇴했다.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의병을 이끌고 강화도로 갔으나 청나라와 화의를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도로 향해하다 풍랑을 만나 보길도에서 은거하였다. 하지만 병자호란 당시 왕을 호종하지 않았다 하여 1638년 영덕(盈德)에 유배되었다가 1년 뒤에 풀려나 해남으로 돌아갔다.

치열한 당쟁으로 일생을 거의 벽지의 유배지에서 보냈으나 경사(經史)에 해박하고 의약(醫藥)·복서(卜筮)·음양(陰陽)·지리(地理)에도 통하였으며, 특히 시조(時調)에 더욱 뛰어났다. 그의 시조는 정철(鄭澈)의 가사(歌辭)와 더불어 조선시가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고산은 우리나라 산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를 시조라는 순수국문학 작품을 통해 예술적 형상화를 성취하여 한국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였다. 그런 만큼 고산 시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본격적인 논의를 살펴보면, 최진원에 의해 고산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졌다. 최진원은 「假漁翁- 漁父四時詞의 경우」²¹⁶⁾를 시작으로 「江湖歌道 研究」²¹⁷⁾에 이르기까지 고산 시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고산이 현실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여 자연으로 돌아갔으며 자연의 관념화를 추구하였다고 하였다.

최진원은 일구일학(一丘一壑)을 개념화하고, 고산(孤山)의 자연을 인간성의 좌

216) 최진원, 「假漁翁- 漁父四時詞의 경우」,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제 5집』, 성균관대학교, 1960.

217) 최진원, 「江湖歌道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4.

절, 자연의 관념화 등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때의 ‘관념으로서의 자연’은 “자아와 대상이 모순되지 않는 무위의 경지”라고 논하였다.²¹⁸⁾ 최진원의 연구는 고산(孤山) 문학의 문헌 해석적 방법에서 나아가 그의 자연관을 밝히려는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연을 고산(孤山)의 정서나 이념(理念)을 표현하는 매개물이 되는 수단적 의미로 파악하였다.

2000년대 이후로는 고산과 도연명의 자연시적 특징을 비교한 김주순의 연구²¹⁹⁾, 고산 시조를 언어구조적으로 연구한 김주석의 연구²²⁰⁾, 『고산유고』에 미수록 된 고산의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한 정우봉의 연구²²¹⁾ 등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고산 시가의 산수관이나 미의식에 접근을 시도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학자로서 고산은 산수를 미적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학문적 대상으로도 인식하였다. 고산에게 산수는 미감의 반영이며 가치관과 의식의 투영이다. 따라서 고산의 시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산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선조 사대부들에게 있어 성리학은 보편적인 가치이자 진리였으므로 고산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예학은 고산의 생애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성리학은 고산의 생애를 통하여 모든 삶과 행위의 표준이며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동시에 조선조 사대부였던 고산의 시가도 성리학이라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성리학은 고산 시가의 사상적 배경으로 구체적 작품에 투영되었으니 고산의 시가는 그의 성리학적 이념과 가치를 표상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산이 교유했던 인물들을 통해 고산의 가치관을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고산 시가에 내재된 성리학적 가치관과 이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218) 최진원, 『韓國古典詩歌의 形象性』,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8, 98~124쪽.

219) 김주순, 「윤선도(尹善道)의 자연시가(自然詩歌)와 도연명(陶淵明) 시(詩)의 비교문학적 고찰」, 『東方漢文學』 38, 동방한문학회, 2009.

220) 김주석, 「『고산유고』 소재 시조(時調)의 구조(句調) 통계 및 분석」, 『時調學論叢』第41輯, 한국시조학회, 2014.

221) 정우봉,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미발굴 작품에 관한 연구」, 『古典文學研究』50, 한국고전학회, 2016.

둘째, 고산 시가의 이념미와 미적 인식의 형상화 양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고산은 시인이자 성리학자이며 정치인으로서 오늘날의 작가들과는 다른 입장에서 문학 창작활동을 하였다. 오늘날의 작가들이 전문 직업의식에 기초하여 문학 창작활동을 하였다면, 성리학자로서 고산은 산수를 통해 근원으로서의 진리를 탐구하며 사색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고산이 살았던 시대는 봉당정치가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주요 쟁점은 크게 예학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17세기 예학의 발달은 봉당쟁투의 구실이 되었다.²²²⁾ 효종의 장례를 둘러싸고 불거진 제 1차 예송논쟁(禮訟論爭)이 그 서막에 해당한다.

예송논쟁의 직접적 계기는 국왕의 상(喪)에 모후의 복(服)을 수록하지 않았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미비점 때문이었다.²²³⁾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따로 있었다. 차자(次子)로서 황위를 계승한 효종의 특수한 위상이 그것이다.

효종의 사후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에 대한 논쟁은 제도의 미비점보다는 왕이라는 인간 사회의 제도를 최우선시 할 것인가 아니면 장자 차자라는 인륜적 질서를 우선시 할 것인가 하는 관점차이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 전통적으로 인륜은 천륜으로 해석되어 불변의 질서요 위계로 받아들여졌지만, 고산은 왕이라는 제도의 가치적 우선성을 중요시하였다. 이런 관점은 고산의 현실관과 당시 사회의 사회신분과 계층적 질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의 시가에 잠재되어 있는 이념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이런 고산의 관점은 예송 반대자들의 공격으로 산수에 은거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만든 계기가 되었다. 고산의 은거는 이처럼 당시 조선 예학의 두 가지 경향에서 말미암은 예학자들의 시각차이가 문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산의 시가에는 학자이자 정치인으로서의 의식이 투영되었으며, 이는 시가에서 이념미로 형상화되었다.

나아가 고산은 산수를 미적 대상으로도 인식했다. 이념이 형상화되었다고 하여 고산 시가를 학술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그의 시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시가라는 예술 형식에 산수를 대상으로 자신의

222) 고미숙, 『윤선도 평전』, 한겨레출판, 2006, 238쪽.

223) 이영춘, 「孤山 尹善道の 학문과 예론」, 『국학연구』9, 한국국학진흥원, 2006, 89쪽.

미의식을 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산 시가에 내재된 미의식은 문학적 서정으로 나타난다. 그는 시가에서 산수를 대상으로 철리적 진리를 탐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서정의 문화적 배경이며, 근본적으로는 시가라는 예술 형식을 통해 서정을 형상화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고산의 시가에서의 산수는 의식의 투영이며 가치관과 미감의 예술적 형상물인 것이다. 곧 고산의 시가 작품 「견회요(遣懷謠)」와 「오우가(五友歌)」를 이념미(理念美)의 형상화 측면에서, 「만흥(漫興)」과 「산중신곡(山中新曲)」을 서정(抒情)의 형상화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고산 시가의 이념과 서정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고산 시가의 미적 특질을 산수시가의 거시적 윤곽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며, 더불어 고산 시가에 내재된 미의식의 근원을 탐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고산 시가에서 산수미가 갖는 의의는 정감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산의 대표적 시가인 「어부사시사」를 다수의 연구에서 ‘흥(興)’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나²²⁴⁾, 손오규가 조선조 사대부의 산수인식을 세 가지 양상으로 구분하고 고산 시가를 유미적(唯美的) 형상의 대표적 시가로 분류한²²⁵⁾ 것도 고산이 조선시대 여러 사대부 중에서도 정감의 표현이라는 미적 측면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자연히 고산 시가에 나타난 산수에 대한 미적 가치 부여가 그의 시가에서 서정으로 나타난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고산이 직접적으로 산수를 찾은 계기는 병자호란 때 인조임금의 항복소식을 들었고, 그 울분을 참지 못한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도로 향하던 중 보길도의 수려한 경관에 사로잡혀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그는 1637년부터 1671년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일곱 번 이곳을 드나들며 글을 쓰는 생활을 했는데, 햇수로 따지면 13년이나 된다.²²⁶⁾ 다음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자.

224) 김홍규, 「어부사시사에서 興의 성격」, 『한국고전시가작품론』, 집문당, 1992. 김석희,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의 흥과 서정적 특징」, 『국어교육』134, 한국어교육학회, 2011, 이한석,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에서의 흥(興)의 문제」, 『관악어문연구』34, 서울대학교, 2013.

225) 손오규, 앞의 책, 2000, 384~414쪽.

226) 윤선도가 산수에 은거한 동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김용찬,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자연’ 인식과 작품세계」, 『한국시가문화연구』40,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63~70쪽.)

슬프나 즐거오나 올타 흐나 외다 흐나
내 몸의 희을 일만 달고 단글 뿐이언덩
그 받기 너나쁜 일이야 분별홀 줄 이시라²²⁷⁾ <遣懷謠, 一>

제시된 작품은 「견회요」의 이수이다. 우선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해야 할 일(修身)은 철저히 실행하고 그밖에 다른 일들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이 대립하는 듯하면서도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산수에 감화되어 현실에의 좌절을 위로받는 산수흥취의 감정이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마초 머근 後에
바윗긋 몫ㄴ의 슬긋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²²⁸⁾ <漫興, 二>

위에 제시된 작품은 「산중신곡(山中新曲)」에 속한 「만흥(漫興)」의 둘째 수이다. 작품을 보면 초장에는 소박하고 절제된 생활을, 중장에는 자연과 벗하는 흥취 있는 생활을, 종장에는 초장과 중장에서 노래한 산수생활의 흥취를 다시 한 번 읊고 있다.

초장에서의 ‘보리밥’과 ‘풋나물’은 소박한 산수생활을 표상한다. 그런데 종장에서 ‘부러워 할 게 없는’, ‘여남은 일’은 세상을 염려하는 마음 곧 사대부로서 우국의 심경을 말하는 것이니, 그것은 현실 정치에 대한 미련일 것이다. 이 시에서 고산은 현실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벗고 산수를 벗하며 근심 없이 소일하는 즐거움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한다. 이는 곧 현실 정치의 좌절을 달래는 휴식공간으로서의 산수흥취가 형상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뵈홀 바라보니

227) 『고시조대전』, 2876.1. 607쪽.

228) 『고시조대전』, 2014.1. 441쪽.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라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묻내 도하호노라²²⁹⁾ <漫興, 三>

위 작품의 시적 상황은 단순하다. 술잔을 들고 홀로 먼 산을 바라보는 고산의 내면에 “말도 없고”, “웃음도 없어도” 형언할 수 없는 진한 서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만흥」 삼수는 실경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상원은 금쇄동의 지리적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만흥」 3수가 “회심당 주변에서 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구체적 모습을 표현한 것”²³⁰⁾이라고 하였다. 위 시에서 특별한 미사여구나 과장이 없이 산수와 감응하며 느끼는 흥을 투명한 듯 하면서도 진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도 실제 산수의 풍경을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형상화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우가(五友歌)」에서도 서정이 형상화된다. 「오우가」에서의 다섯 자연물은 객관적인 사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존재로 인식된다. 이는 「오우가」에서 다섯 자연물이 고산이라는 감상주체에 의해 사물차원을 넘어서 개념화되는 과정에서 감상주체의 서정도 함께 전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우가」에서 자연의 개념화는 자연스럽게 서정으로 이어진다. 다음 작품을 살펴보자.

내 버디 몇치나 흐니 水石과 松竹이라

東山の 돌 오르니 기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숫밧기 또 더호야 머엇흐리²³¹⁾ <五友歌, 一>

위 작품은 「오우가」의 첫째 수로서 고산의 산수관, 생활관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초장과 중장에서는 인간이 아닌 산수를 벗삼아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중장 “두어라 이 다숫밧기 또 더호야 머엇흐리”에서는 고산의 아담하고 소박한 심성이 두드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부귀영화와 세속의 명리에 집착하지 않고 산수의 아름다움 속에 즐거움을 누리려는 그의 산수친화 사상이 드러나

229) 『고시조대전』, 4151.1. 882쪽.

230) 이상원, 「윤선도의 금쇄동 경영과 <산중신평곡>」, 『한국고전연구』3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14쪽.

231) 『고시조대전』, 0944.1. 199쪽.

는 부분이다.

구름 빗치 조타 흐나 검기를 즈로 한다
브람 소리 몯다 흐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 뉘 업기는 물뿐인가 흐노라²³²⁾ <五友歌, 二>

둘째 수 어디에도 ‘물’에 대한 객관적 묘사는 찾아볼 수 없다. 「오우가」에서의 ‘물’은 객관적 사물이 아니라 감상주체의 서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종고도 그칠 때가 없는 것’은 단순히 물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물이라는 자연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고산의 감상이자 서정이다.

「오우가」 2수의 물에 대하여 유육례는 “고산은 이제부터라도 물의 속성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²³³⁾낸 것이라고 하였는데, 위 시 이것은 단순히 자연의 실제적 모습이 나 성질의 차원을 넘어 고산이 자연을 대상으로 자신의 감상과 서정을 표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 작품을 살펴보자.

고즌 므스 일로 꺾며서 쉬이 디고
풀은 어이흐야 프르논 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티 아닐슨 바회뿐인가 흐노라²³⁴⁾ <五友歌, 三>

‘피자마자 쉬이 지고’, ‘푸른 듯하다가 누렇게 되는’ 꽃과 풀도 대상에 대한 객관적 묘사가 아니다. 꽃과 풀이라는 대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감상주체의 서정이 전이되어 개념화 된 것이다. 이 대상은 실제 경물이면서도 윤선도가 느끼는 서정의 집약체이기도 하다.²³⁵⁾ 이는 곧 감상주체인 고산의 서정이다.

232) 『고시조대전』, 0404.1. 83쪽.

233) 유육례, 「고산 윤선도의 시에 관한 생태학적 접근-「山中新曲」의 <五友歌>와 <漫興>을 중심으로-」, 『온지논총』42, 온지학회, 2015, 208쪽.

234) 『고시조대전』, 0654.1. 136쪽.

235) 이상원의 다음 언급에서도 「오우가」에서 실경을 바탕으로 하는 서정에 대하여 잘 설명되어 있다. “<오우가>는 윤선도가 금쇄동에서 만난 자연을 시적 대상으로 삼은 것이며, 각각의 자연물에서 취한 덕성은 전통적으로 얘기되던 통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금쇄동 자연을 즐기는 과정에서 윤선도 스스로가 직접 재발견한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상원, 앞의 논문,

「오우가」에서 서정성을 찾을 때 보통은 ‘뽀인가 하노라’와 같은 예찬적 부분에 집중한다. 이는 「오우가」가 예찬적 서정시로 분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개념화 과정에서 감상주체의 서정이 자연물에 전이된다고 보면 ‘피자마자 쉬이지고’, ‘푸른듯하다가 누렇게 되는’ 자연물의 성질에 대한 묘사의 부분도 서정성을 띤다.

고산 시가의 서정성은 현실을 직감하면서 변화하니, 산수은거의 성향과 시가적 표현의 특징을 초래하는 근원이 된다.

심심은 흐다마는 일 업술손 마히로다
답답은 흐다마는 閑暇홀손 밤이로다
아히야 일즉 자다가 東트거든 닐거라²³⁶⁾ <夏雨謠, 二>

「하우요」에는 일단 앞서 살펴 본 작품들에 나타나는 현실 정치에 대한 어떠한 형상화도 부재한다. 현실 정치에 대한 감정이 사라지자 일상과 풍경이 온전히 드러난다. 위 시는 장마철을 맞은 농촌의 한정을 담백하게 담고 있는 것이다. 작품을 보면 장마철 긴긴 날의 지루한 듯 나른한 듯한 시골 풍경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다. 안한자적(安閑自適)의 담백한 서정(抒情)이 중장에 잘 형상화되고 있다.

月出山이 놓더니마는 피운 거시 안개로다
天王 第一峯을 一時에 ㄱ리와다
두어라 히 퍼딘 휘면 안개 아니 거드라²³⁷⁾ <朝霧謠>

「조무요」는 아침 안개 낀 산수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특히 위의 시는 바라보는 서경에 고산의 감정이 깊게 개입되어 있다. 초장의 “피운”이라는 말에 감정이 집중되고 있는데, 물론 안개 때문에 월출산을 전부 다 볼 수 없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 의미일 뿐이다. 중장을 살펴보면 더욱 그

2017, 24쪽.
236) 『고시조대전』, 2955.1. 621쪽.
237) 『고시조대전』, 3656.1. 774쪽.

러하다 그 이면에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마 고산이 처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암시한 것이라는 점을 추측하게 한다.

조하연도 「조무요」의 이 이면적 특성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해 우선 고민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자연에 대한 순수한 묘사인지, 아니면 세태에 대한 풍자인지 하는 점이다. 이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²³⁸⁾고 하였다. 중장의 “天王 第一峯”은 보통 임금으로 상징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 시는 경(景)을 한가롭고 여유로운 서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이면의 상징적 의미를 고산의 정치상황과 고려해 볼 때 중의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임금을 가리는 간신을 탓한다는 내면적 의미와 함께 월출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라는 서정적 의미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 시를 살펴보자.

벼람 분다 지게 다다라 밤 들거다 불 아사라
벼개예 히즈려 슬긱지 쉬여 보자
아히야 새야 오거든 내 줌 와 씨와스라²³⁹⁾ <夜深謠>

「야심요」는 깊은 밤 평화로운 산수의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 자연의 삶에 순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²⁴⁰⁾, 밤이 깊어 노동에서 벗어나 벼개에 드러누워 휴식을 취하는 천연수려한 고산의 모습을 즐겁게 표현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산중신곡(山中新曲)」에 포함된 작품으로 산수의 풍광 가운데 몇몇을 선별하여 노래했다. 특히 아침-낮-해 질 무렵-깊은 밤의 시간적 순서로 작품을 배열하여 조화로운 모습을 만들어낸다. 특히 안개, 장마, 황혼, 바람을 각 작품의 중심소재로 사용하여 하모니를 이루고 생생하고 다채로운 이미지를 연출한다.

고산이 개척한 미적 영역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첫째로 변화하는 자연의 현상을 통한 산수미의 포착과 산수경물의 의상이다. 이처럼 산수를 대상으로 문

238) 조하연, 「<산중신곡(山中新曲)>의 구조에 나타난 윤선도의 자의식」, 『고전문학과 교육』3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6, 204쪽.

239) 『고시조대진』, 1773.1. 384쪽.

240) 조하연은 이 「야심요」의 성격을 “이치에 합당한 삶의 형상화”라고 밝힌 바 있다. (조하연, 앞의 논문, 2016, 202~208쪽.)

학작품에 의상을 형상화시키는 것이 산수시가에서의 서정이다.

고산이 자신의 작품에서 형상화된 산수경물의 의상은 단순히 감각기관에 의한 반사작용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서 감각의 차원을 넘어 내면과 연결된 의식의 결과로서의 산수경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고산은 농촌생활 속에서 터득한 생활의 경험을 통한 실천적 삶의 이상을 소박한 산수미(山水美)의 세계로 형상화하였다. 다음의 시를 살펴보면 이러한 점을 잘 알 수 있다.

비 오는디 들희 가랴 사립 닳고 쇼 머겨라
마히 밭양이라 잠기 연장 다스려라
쉬다가 개는 날 보아 스래 긴 밧 가라라²⁴¹⁾ <夏雨謠, 一>

초장의 원인은 중장 ‘장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위 시는 전체적으로 농촌생활을 소재로 하였으니 농촌문학적 성격이 있다고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원문학을 확장적 개념으로 파악할 때, 위의 시에서 묘사되고 있는 농촌생활의 현실적 상황과 노동을 잘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소 먹이거라’, ‘쟁기며 연장 손질하거라’, ‘사래 긴 밧 갈거라’ 등은 실제 농촌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거듭되는 삶의 형태로서의 노동인 것이다.

그런데 앞의 시에서 살펴본 대로 고산 시가의 근저에 깔려있는 문예적 표현의 중의적 장치와 의상을 통한 원관념을 전제로 할 때, 위 시에 등장하는 ‘장마’는 매우 중의적 상징성을 함축한 표현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장마’를 쟁기 연장 손질과 사래 긴 밧갈이와 연관지어 그 원관념을 추정해 볼 때, 고산의 정치적 입장과 현실정치의 이상을 향한 사대부의 관념적 지향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장마’는 고산의 불우한 정치적 상황을 암시하며 ‘쟁기연장 손질’은 치국평천하를 위한 사대부로서의 학문과 수양 그리고 나아가 경세의 도를 닦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래 긴 밧 갈이’는 험난한 벼슬살이나 사대부로서 임금을 보좌하여 천하를 태평하게 이끄는 시대적 사명의 중요함과 실천적 의지를 비유

241) 『고시조대전』, 2176.1. 469쪽.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산수문학의 측면에서 볼 때 「조무요」가 아침 안개 낀 산수의 모습을 형상화했다면, 「하우요」는 장마철의 한적한 농촌 풍경을 노래하였다. 「하후요」에서는 곳은 장맛비가 내리고 사람들은 들에 가지도 않고 사립문을 닫아 걸어 소 먹이나 먹이고 있다. 또한 장마 기간을 한가롭게 표현하여 자신이 느끼는 장마철의 한가함과 무료한 감정을 서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경은 한가롭고 여유로운 서정을 함축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일모요」에서는 석양이 진 후에 황혼이 가까워오고 물색이 어두지는 광경을 통해 해 질 무렵 산수의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더욱 서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들도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의적 표현과 상징적 묘사의 관점에서 음미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은 아래에 인용된 작품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夕陽 넘은 後에 山氣는 도타마는
黃昏이 갓가오니 物色이 어둡는다
아히야 범 뜨셔온디 나든니디 마라라²⁴²⁾ <日暮謠>

「일모요」는 표면적으로 석양이 질 무렵 산간의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농촌 풍경의 아늑한 정서는 고산 시가에서 담백한 서정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위 작품은 전체적으로 아침-낮-해 질 무렵-깊은 밤의 시간적 순서에 의한 시적 전개로 작품을 배열하여 조화로운 모습을 표현하였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안개, 장마, 황혼, 바람 등 작품의 중심소재의 의상들을 고려할 때 위 시는 저녁 무렵 자신이 바라보는 경치를 시각적으로 잘 묘사하였으며, 표면적으로는 산수미의 조화를 형상화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 문예적 기법과 구성에 의한 시적 구성이며 산수경물의 형상화이며, 이것은 고산시가의 매우 큰 특징이다.

이처럼 고산은 자신의 현실적 좌절과 정치적 불운을 한탄하거나 비판하지 않

242) 『고시조대전』, 2544.1. 540쪽.

고 산수경물의 형상화를 통한 서정성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에서는 산수에서 느끼는 자신의 서정을 흥(興)의 감정으로 구체화하였다.

「어부사시사」는 춘하추동의 계절적 흐름을 구조로 하고 각각의 계절에는 아침에서 저녁까지의 하루를 배열하고 있다. 특히 이 전체의 과정을 하나의 유기적 연속성으로 느껴지도록 배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작품들은 종장의 완결성을 취하지 않은 채 열린 상태로 이끌어 가다가 마지막 사십 수에 이르러서 앞서 이어 온 흥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후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화자의 흥은 ‘봄의 아침’부터 ‘겨울의 저녁’까지를 모두 포괄하게 되었다.

요약하면 고산은 춘하추동의 시조를 각각 한 수 한 수 감각적이고 정교하게 정리하고 다듬으면서 이와 동시에 「어부사시사」 전체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한 것이다.

고산은 「어부사시사 발(漁父四時詞 跋)」에서 자신이 은둔한 금쇄동(金鎖洞)을 선경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고산의 이상적 정신세계가 추구하는 공간이다. 즉, 고산의 개인적 경험의 공감에서 오는 정신세계를 선경이라는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고산은 「어부사」를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동방에 예로부터 「漁父詞」가 있는데,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시(古詩)를 모아 곡조로 만든 것이다. 이 「어부사」를 읊조리노라면 강바람과 바다 비가 얼굴에 부딪히는 듯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훌쩍 세속을 떠나 홀로 서려는 뜻을 가지게 한다. 이 때문에 농암(龔巖) 선생도 좋아하여 싫증 내지 않았고 퇴계(退溪) 선생도 칭찬하여 마지않았다. 그러나 음향이 상응하지 못하고 말뜻이 잘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니, 이는 고시를 모으는 데 구애되었기에 국축(局促)해지는 흠결을 면치 못한 것이다. 내가 그 뜻을 부연하고 언문을 사용하여 「어부사」를 지었는데, 계절별로 각 한 편씩이며 한 편은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략) 또 훗날 창주(滄州)에서 거처할 일사(逸士)가 반드시 나의 이 마음과 뜻이 부합하여 백세의 세월을 넘어 느낌이 일지 않으리라고는 못할 것이다. 신묘년(1651, 효종2) 가을 9월 부용동(芙蓉洞)의 낚시질하는 노인이 세연정(洗然亭) 낙기란(樂飢欄) 옆 배 위에서 적

어 아이들에게 보인다.243)

위 글은 고산의 「어부사시사 발」 중 일부이다. 고산은 자신이 지은 「어부사시사」가 농암 이현보의 「어부가」와 그 전통적 맥락을 잇고 있다고 밝히면서 “맑은 강 넓은 호수에 조각배를 띄우고 물결을 따라 출렁일 때에 사람들에게 한목소리로 노래하며 노를 젓게 한다면 또한 하나의 쾌사(快事)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산이 말하는 쾌사(快事)는 그 유래가 농암 「어부가」의 “이 「어부사」를 읊조리노라면 강바람과 바다 비가 얼굴에 부딪히는 듯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훌쩍 세속을 떠나 홀로 서려는 뜻을 가지게 한다”와 같은 시경에서 비롯되는 즐거움, 곧 산수락 속에서 느끼는 심정적 즐거움으로서의 상심(賞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부사시사」는 「어부가」계열의 작품으로 어부 형상을 통해 미의식과 세계관을 표현하는 일련의 작품들을 말한다. 그런데 고산은 「어부사시사 발」을 쓴 장소를 “부용동(芙蓉洞)의 낚시질하는 노인이 세연정(洗然亭) 낙기란(樂飢欄) 옆 배 위”라고 하였다. 부용동의 세연정은 고산의 고향인 해남을 떠나 완도에서 조성한 원림 속에 있는 정자이며, 그 부속공간이며 그 조성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산은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나와 삼전도에서 청(淸)의 태종(太宗)에게 항복하고 굴욕적인 화의(和議)를 맺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자 그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을 수 없어 마침내 은둔생활을 결심하고 제주를 향하여 항진(航進)하다 발견한 곳이 해남반도(海南半島)의 남쪽 끝으로부터 약 12km의 거리에 있는 보길도(甫吉島)였다.(중략) 그는 51세에 이곳에 들어와 85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 34년 5개월 중 2회에 걸친 8년 2개월을 유배생활로 보냈고, 벼슬을 주겠다는 왕의 특명 때문에 3년 5개월을 한양에게 지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은둔생활은 21년 10개월이다. 이 은둔생활은 해남의

243) 윤선도, 『孤山遺稿』4, 이상현, 이승현 역주, 한국고전번역원, 2015, 239~240쪽.

東方古有漁父詞，未知何人所爲，而集古詩而成腔者也。諷詠則江風海雨生牙頰間，令人飄飄然有遺世獨立之意，是以，龔巖先生好之不倦，退溪夫子歎賞無已，然音響不相，語意不甚備。蓋拘於集古，故不免有局促之欠也。余衍其意，用俚語作漁父詞，四時各一篇，篇十章。余於腔調音律，固不敢妄議。余於滄洲吾道，尤不敢竊附。而澄潭廣湖片舸容與之時，使人並喉而相櫂，則亦一快也，且後之滄洲逸士，未必不與此心期而曠百世而相感也。秋九月歲辛卯，芙蓉洞釣叟，書于洗然亭樂飢欄邊船上，示兒曹。

수정동(水晶洞)과 금쇄동(金鎖洞)에서 약 9년 2개월을 보냈고, 나머지 12년 8개월은 보길도에서 보냈다.²⁴⁴⁾

따라서 고산이 이곳에 원림을 조성한 것은 인적이 드물어 세속적 번거로운 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이상적 공간을 찾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이상에서 비롯되었으며, 보길도의 오랜 생활을 통하여 보길도 주변 산수의 아름다움과 산수유상을 통한 서정적 영역을 미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래서 「어부사시사」에 형상화된 원림과 그 산수의 서경 및 산수락을 살펴보면 고산시가의 산수문학적 특성을 잘 파악할 수가 있다.

보길도 산수공간은 낙서재와 세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세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연정 주변의 원림은 芙蓉洞 어구에 있으며 8m×8m의 넓이를 갖는 方形의 臺를 중심으로 하여 南東쪽에는 약 2,100m²에 이르는 溪潭에 있고 그 반대쪽인 北西쪽에는 넓이 약 800m²에 이르는 人工方池가 축조되어 있다. 溪潭은 下流쪽에 길이 약 11m, 나비 약 2.5m, 깊이 약 1m(깊은 곳)의 組立石堤로 洑를 막아 貯水한 곳으로서 大小의 매끄러운 岩石 10여개가 散在해 있으며 潭의 北東岸 가까운 곳에는 人工적인 섬 1개가 있다.(중략) 이 섬에는 소나무의 枯死木이 서 있다. 溪潭에 흘러 들어온 물은 方池사이에 있는 土堤下의 5개 流入口를 통하여 方池에 들어오고 (하략)²⁴⁵⁾

이상은 세연정 주변의 방지와 수로 및 환경에 대한 것으로 지리적 환경과 세연정이 놓여 있는 초세속적 공간의 이상적 모습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방지의 중심에 있는 세연정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살펴보면 매우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 산수감상의 집중이며 집약의 핵심적 공간으로서 고산이 감상하고 조성하고자 한 개방된 원림의 산수미로서 서경미를 압축해 놓은 곳이라 할 수 있다.

244) 정동오, 『동양조경문화사』,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6, 360~361쪽.

245) 정동오, 위의 책, 1996, 366쪽.

洗然亭은 池中에 있다. 높이 한 길쯤 되는 섬돌 위에 세워진 이 정자는 한 칸 사방, 높이 한 길의 크기이며, 사방으로 퇴를 달았다. 여러 개울물이 합쳐서 된 못은 方池를 이루었는데 東西가 6~7간이고 南北은 이보다 배나 된다. 池岸은 지형을 따라 岩石이나 흙으로 護岸 처리를 했으며 주위에는 山茶(동백나무)와 映山紅을 심었다. 亭子의 서쪽 즉 堤防의 동쪽에는 겨우 한 칸쯤 되는 넓이의 웅덩이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거북이 모양의 돌이 있다. 이 곳에 다리(飛虹橋)를 놓아 이를 통하여 누에 오르게 하였다. 飛虹橋 남쪽에 或躍·在淵 등 七岩이 있다. (중략) 못의 동쪽 좌우에는 각각 3층의 方臺를 축조하였는데 東臺와 西臺라 부르고 있다. (중략) 亭子 동쪽에 조그마한 누를 지어 ‘呼光樓’라 하고 公은 매양 난간에 의지하고 멀리 바라다 보았다.²⁴⁶⁾

위 글을 살펴보면 세연정은 매우 치밀한 설계에 의하여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조성된 인공원림의 성격이 매우 짙으니 우리나라 원림으로서는 매우 특별하다. 곧 이 세연정을 중심으로 하는 부용동 원림은 고산의 이상적 세계가 세속을 초월한 별세계를 이루어 내듯 자신의 미적 안목과 산수락의 극대화를 위한 문화 공간이며 산수시가를 위한 창작공간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방지며 홍교 등 인공건조물의 명칭과 구성이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산수미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용동은 고산이 노래한 「어부사시사」의 기반을 이루는 미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을 배경으로 「어부사시사」의 시적 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석양(夕陽)이 빛겨시니 그만 ㅎ야 도라가자
 돌 디여라 돌 디여라
 안류딩화(岸柳汀花)는 고빅고빅 새롭고야
 지국충(至芻兪) 지국충(至芻兪) 어스와(於思馱)
 삼공(三公)을 불리소냐 만스(萬事)를 싱각하라

246) 정동오, 앞의 책, 1996, 366~370쪽.

위 시는 석양이 비끼고 돌아가려 할 때의 감상을 노래하고 있다. 초장에서 석양이 비졌음을 체념하고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중장에서 버들 물가 꽃(岸柳汀花)이라는 산수경물을 발견하고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산수를 완상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자신에게 즐거울 뿐 중장에서는 삼정승으로 비유되는 현실 세계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초장과 중장에서 석양이 지고 꽃이 핀 모습을 대자연의 원리를 의미한다고 보면, 중장에서 말하는 현실세계의 높은 벼슬(三公)은 의미 없는 것이 된다.

전유재는 이에 대하여 “이때 심미주체는 자의식에 있어서 우위적 상황에 놓이게 되고 스스로의 정당성을 고민 없이 획득하고 있다”248)고 언급하였는데, 전유재의 언급처럼 고산은 현실세계에 대비시켜 자신의 의지를 우위에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감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위 시에서 고산은 현실세계에 비하여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산수자연을 보고 감동하며, 현실의 권력을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취(醉)하야 누얼다가 여흘 아래 느리려다
비 띠여라 비 띠여라
락홍(落紅)이 흘러오니 도원(桃源)이 갓갓도다
지국총(至匆窓) 지국총(至匆窓) 어스와(於思臥)
인세(人世) 홍딘(紅塵)이 언메나 ㄹ렛느니249) <漁父四時詞 春詞, 八>

화자는 붉은 낙화가 흘러오는 것을 보고 그곳이 무릉도원임을 깨닫는다. 자신이 있는 곳이 현실과는 다른 이상세계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도원명이 노래한 낙원인 무릉도원을 떠올림으로써 산수에서 자신이 꿈꾸는 이상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247) 고미숙, 『고산유고』, 2006, 185쪽.
248) 전유재, 「윤선도 <漁父四時詞>의 審美類型과 그 성향 연구」, 『한국시가연구』42, 한국시가학회, 2017, 13쪽.
249) 한국고전종합DB, 「漁父四時詞」.

특히 현실세계를 인세홍진(人世紅塵)으로 표현함으로써 산수에서 비롯되는 이상세계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湄결이 흐리거든 발을 씻다 엇더흐리
이어라 이어라
오강(吳江)의 가자 하니 천년노도(千年怒濤) 슬플로다
지국충(至芻兪) 지국충(至芻兪) 어스좌(於思馱)
초강(楚江)의 가자 하니 어복통혼(魚腹忠魂) 남글세라²⁵⁰⁾

<漁父四時詞 夏詞, 四>

고산에게 있어 산수는 아름다운 공간이자 즐거운 곳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산수에서 슬픔의 정감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위 시의 중장 “오강에 가자하니 천년노도 슬프도다”는 춘추전국 시대에 오자서(伍子胥)가 참소를 받고 자결한 고사를 인용한 것인데, 충신의 죽음을 노여워한다는 표현이다. 또한 “초강에 가자하니 어복충혼 남글세라”에서 초강은 굴월(屈原)이 몸을 투신한 멍라수를 가리키며 시국을 걱정하며 자결한 굴원의 충혼을 표현한 것이다.²⁵¹⁾

오자서는 춘추전국시대 정치적 모략을 당하자 자신의 결백과 충정을 밝히며 자결한 인물이고, 굴월 또한 불안한 시국을 염려하며 자결한 충신이다. 고산은 굴월과 오자서의 충심을 생각하며, 그들이 죽음을 맞이한 장소를 형상화함으로써 자신의 충심과 억울함을 그들을 기리는 슬픔의 정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산이 이들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과 결부시킨 것은 어지러운 정계 상황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과 자신의 충심을 간접적으로 함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시를 살펴보자

긴 날이 저므는 줄 흥(興)의 미쳐 모르도다
돋 디여라 돋 디여라
빛대를 두드리고 슈도가(水調歌)를 불러 보자

250) 한국고전종합DB, 「漁父四時詞」.

251) 김용찬, 앞의 논문, 2017, 82쪽.

지국총(至芻總) 지국총(至芻總) 어스좌(於思臥)

우에성둥(欸乃聲中)에 만고심(萬古心)을 괴 뉘 알고²⁵²⁾

<「漁父四時詞」夏詞6>

작품에서 화자는 어부 생활의 흥에 취해 긴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돛대를 두드리며 수조가를 부르고, 만고의 마음을 알 사람은 자신 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만고의 마음(萬古心)²⁵³⁾은 주자의 「무이도가(武夷權歌)」의 구절을 인용한 부분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을 뜻한다. 고산은 자신의 이상세계를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해 좌절을 겪었고, 산수에 은둔하여 흥에 취하고 있는 때에도 자신의 이상은 변하지 않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자신의 이상주의 세계관을 산수라는 환경에서 투영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레 우희 그물 널고 돛 미퓌 누어 쉬자

비 댕여라 비 댕여라

모괴를 뭍다 흐랴 창승(蒼蠅)과 엇더흐니

지국총(至芻總) 지국총(至芻總) 어스좌(於思臥)

다만 혼 근심은 상대부(桑大夫) 드르려다²⁵⁴⁾ <漁父四時詞 夏詞, 八>

그물을 널고 그물 밑에서 쉬려 하나 모기와 쉬파리가 휴식을 방해하고 있다. 모기와 쉬파리는 고산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로 현실 세계에서 고산을 괴롭히던 무리들을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산은 모기와 쉬파리를 별 것 아닌 존재로 표현하면서 어부들에게 세금을 뜯어가는 관리를 상징하는 상대부를 걱정하고 있다. 한가로운 산수생활 가운데서도 비판적인 현실을 풍자하면서 시선을 현실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252) 한국고전종합DB, 「漁父四時詞」.

253) 朱子, <武夷權歌>.

다섯 굽이 돌아 산이 높고 구름 가운데 두둑고, 오랜 안개비는 숲을 덮어 어둑어둑하네. 숲 속에 사람이 있으나 알아보는 이 없고, 뱃사공 노 젓는 소리에는 만고의 근심이 서려구나.

五曲山高雲氣深 長時烟雨暗平林 林間有人無客識 欸乃聲中萬古心.

254) 한국고전종합DB, 「漁父四時詞」.

물외(物外)에 조흔 일이 어부(漁父) 생애(生涯) 아니러나
 비 떠라 비 떠라
 어옹(漁翁)을 운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지국총(至芻僦) 지국총(至芻僦) 어스와(於思臥)
 스시(四時) 흥(興)이 혼가지나 추강(秋江)이 으뜸이라²⁵⁵⁾

<漁父四時詞 秋辭, 一>

위 작품은 어부의 가을 생활에서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작품들에서의 흥취가 일반 조선조 사대부들의 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점이다. 초장에서 고산은 현실세계를 벗어난 삶(物外)을 긍정하고, 자신의 산수 생활(漁父 生涯)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중장에서는 어옹(漁翁)이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림에 남긴 것처럼 동경의 대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특히 종장에서는 가을 강가(秋江)의 흥이 가장 으뜸이라면서 가을의 산수를 만끽하며 극도의 흥취를 느끼고 있다.

추사에서 이렇게 흥의 감정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은 가을이 흔히 결실의 계절로 표현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을이 화자의 흥취를 발현시키는 요소가 많다고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하다.²⁵⁶⁾ 고산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흥이 가장 넘치는 계절인 가을을 형상화하면서, “물외(物外)에 조흔 일”, “어부(漁父) 생애(生涯)”, “추강(秋江)”처럼 자신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모습과 자연의 모습을 조화롭게 구성하며, 그곳에서 느끼는 흥취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흰 이슬 빈견논디 불근 돌 도다 온다
 비 세여라 비 세여라
 봉황루(鳳凰樓) 묘연(渺然)하니 청광(淸光)을 놀을 줄고
 지국총(至芻僦) 지국총(至芻僦) 어스와(於思臥)
 옥토(玉兔)의 띠는 약(藥)을 호객(豪客)을 먹이고자²⁵⁷⁾

255) 한국고전종합DB, 「漁父四時詞」.

256) 김용찬, 앞의 논문, 2017, 80쪽.

<漁父四時詞 秋詞, 七>

이슬이 비끼고 달이 뜬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화자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봉황루의 임금을 떠올리고 함께 하고자 하지만 봉황루는 아득하기만 하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옥토끼가 짙는 약을 호객에게 드리고자 한다. 고산은 여기에서 세속을 피해 산수에 묻혔지만 임금과 함께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곧 임금에 대한 자신의 충절의 마음을 표현하며 현실에 대한 강한 지향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창주오도(滄洲吾道)를 네브터 닐런더라
달 디여라 달 디여라
칠리(七里) 여홀 양피(羊皮) 옷슨 괴 엇더흐니런고
지국충(至芻翁) 지국충(至芻翁) 어스와(於思馱)
삼천육백(三千六百) 낙시질은 손 고븐 제 엇디턴고²⁵⁸⁾

<漁父四時詞 冬詞, 九>

“창주오도(滄洲吾道)”는 창주의 학문의 도를 의미하니, 창주는 주자를 말하며 오도는 주자가 연구한 성리학을 말한다. 따라서 “창주오도(滄洲吾道)를 네브터 닐런더라”는 것은 주자의 성리학이 그 정통성을 오랜 세월 이어 왔으며 고산 역시 주자 학문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곧 부용동에 묻혀 있으나 학자로서의 자세와 유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산수는 거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칠리 여울에서 양피 옷”은 한나라 때의 엄광(嚴光)의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엄광은 자신의 학우였던 무제가 제위에 오르자 이름을 바꾸고 양피로 된 옷을 입고 칠리 여울 가에서 고기를 낚으며 일생을 마쳤다.²⁵⁹⁾ 이처럼 중장에서는 은거하여 산수를 벗삼아 세월을 보냈던 엄광의 고사를 인용하며 자신의 삶을 그의 삶에 비유하고 있다.

257) 한국고전종합DB, 『漁父四時詞』.
258) 한국고전종합DB, 『漁父四時詞』.
259) 김석희, 『漁父四時詞의 흥과 서정적 특질』, 『국어교육』134, 한국어교육학회, 2011, 190쪽.

하지만 종장의 “삼천 육백 날 낚시질”은 세상이 자신을 불러줄 때를 기다리며 삼천 육백 일 동안 세월을 낚은 강태공의 고사를 인용하며 현실이 자신을 불러 주기를 기대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며 현실지향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현실지향의식이 드러난 「어부사시사」의 부분에서는 산수세계와 현실세계가 대조되며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다. 고산의 산수는 동기는 정계 생활의 좌절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의 의지가 없었다 할 수는 없다.

고산은 작품에서 현실지향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관직생활과 입신양명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이상적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산의 부용동 원림(園林)은 현실의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의 의식 속에서는 현실을 초월한 이상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그러한 까닭에 인적이 드물고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섬 속에 조성된 원림이다. 이 원림에는 세연정 등 인공건조물이나 자연물에 붙인 명칭과 그 구조, 지형적 특성, 지리적 위치 등에 자신의 이상이 투영되어 있다.

어와 저므러 간다 연식(宴息)이 만당토다
비 붓터라 비 붓터라
ᄃ는 눈 빠린 길 블근 곳 훗더딘 더 흥치며 거러가셔
지국총(至匆窓) 지국총(至匆窓) 어스와(於思臥)
설월(雪月)이 서봉(西峯)의 넘도록 송창(松窓)을 비겨 잇자²⁶⁰⁾

<「漁父四時詞」 冬詞, 十>

동사(冬詞) 10수의 산수는 매우 감각적이고 주관적 형태를 띠고 있다. 종장의 ‘ᄃ는 눈 빠린 길 블근 곳 훗더딘 더 흥치며 거러가셔’는 시각적 이미지를 극대화하면서 주관적 흥취를 덧붙이고 있다.

위 시를 보면 “설월(雪月)이 서봉(西峯)의 넘도록 송창(松窓)을 비겨 잇자”처럼 산수의 서경은 매우 감각적 형태를 띠고 있다. 여기서는 「오우가」에서의 인간덕성도, 격물치지와 같은 도학적 이념(理念)도 부재한다. 고산의 이념적 내면은 얽어지고 그 자리에 내적인 심미 영역을 더욱 확대하여 산수를 유희하고 있는 것

260) 한국고전종합DB, 「漁父四時詞」.

이다.

이런 서정과 서경의 조화는 고산으로 하여금 자신의 현실적 좌절과 변민 그리고 정치적 불운을 한탄하거나 비관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자신만의 이상향을 지향함으로서 스스로 위로받고자 하는 동인이자 배경이 되었다.

이처럼 고산의 산수시가에서는 현실지향의 의식과 이상지향의 이상이 공존하여 때로는 상충하는 갈등과 변민적 요소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의도적 원림조성에 의하여 스스로 그 갈등을 조정하고 초월하여 의식적 만족과 개인적 이상달성의 목표를 성취한 것이다. 곧 이상지향의 유미적 산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Ⅶ. 조선시대 산수시가의 흐름과 의의

조선조 산수시가는 성리학을 그 배경 사상으로 한다. 그 이유로 첫째, 대부분의 작가가 유학자이며, 유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가치를 최고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유학은 한나라 무제 때 정치적 이념으로 확립되어 동중서 등에 의하여 이론적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북송의 염계 주돈이의 태극도설을 통하여 그 학문적 대상을 대자연과 인간으로 설정하고 우주적 진리와 인간 심성의 선악에 대한 궁극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돈이의 태극도설은 다섯 단위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며, 각각 간단한 설명과 이론적 배경을 논의하고 있다. 즉, 무극이태극, 음양, 오행, 인물, 사물의 생성을 시간적 순차로 배열하여 그 상호간의 작용과 근원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곧 무극이태극이 만물의 근원이며 대자연 현상계의 사물이 그 말단이며 동시에 정화이다. 그러므로, 무극이태극은 근원으로서의 이치이며 이론적 논리성에 의하여 추론되는 학문적 개념으로서 이상적 가치라 할 수 있다. 곧 이기를 논할 때 리에 해당한다. 또 이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 논의할 때 무극이태극으로서의 리는 이일(理一)의 리(理)에 해당한다. 이 이일의 리는 우주와 만물의 근원자이며 근본으로서 궁극의 존재자이다. 이 이일의 리는 만물로 흩어져 나누어지고 각각의 만물에 하나의 리로서 깃들여 있다. 이것을 분수(分殊)의 리(理)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무극이태극을 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근원으로서의 리를 이일의 리라고 말하고, 만물에 깃든 것을 분수의 리라고 말한다. 전자는 이론적으로 논리에 의하여 추론되는 학술적 개념이므로, 이것을 파악한 관점을 재리상간(在理上看)이라고 한다. 그러니, 존재의 원리요 법칙이며 근본으로서의 가치라고 할 것이다. 분수의 리를 재물상간(在物上看)이라 하니, 이것은 현상으로서의 사물에 국한하여, 그 이면에 존재하는 존재의 원리와 근원에 대하여 파악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일의 리는 통합적이며, 보편적인 궁극의 원리요 근원으로서 최고 가치인 이념이다. 따라서 학파와 학자에 따라 리를 리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일군의 성리학자들을 주리론자라고 한다. 그러므로 리라고 하는 논리적 개념을 이론

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체계화하고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벗어난 초월자로서 원래부터 존재하는 절대적 가치요 최고의 이념으로서 순수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관점을 유지한다.

후자는 분석적이며 개별적인 현상의 근원이며, 원리로서의 법칙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은 반드시 사물에 국한하여 또, 어떤 특정한 일이나 인물, 사물의 상황과 현상적 특징에 주목하여 그 현상적 특징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니 재물상간은 현실의 현상에 주목하고, 이 현상 속에 깃들어 있는 원리나 근원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상을 떠나 홀로만이 존재하는 독립적 존재로서 이념의 리를 우선시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리라는 원리는 현상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상을 통하여 그 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관점을 학문적으로 견지한다.

그래서 이념으로서의 리를 인정하는 학문적 관점을 이기이원론적 주리론자라고 말하며, 현상 속에서 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학문적 관점을 이기이원론적 주기론자라고 말한다. 전자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리를 파악하고자 하니, 이것을 혼륜에 의한 리의 파악이라 한다. 후자는 분석적 관점에서 리를 파악하고자 하니, 분계에 의한 리의 파악이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이며 혼륜과 분계는 대대적 상보의 관계에 의하여 리의 파악에 대한 성리학적 관점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고 학파를 형성하였다고 하겠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이 두 가지의 관점은 학파를 형성하게 되었으니, 전자를 영남학파의 주리론자라고 하며, 후자를 기호학파의 주기론자라고 일컬었다. 영남학파의 출발은 본격적으로 회재 이언적에 의하여 시작하였으며, 그 완성은 퇴계에 의하여 학문적 체계를 이루었다. 후자는 영남학파보다도 후대에 그 체계성을 이루게 되니, 그 대표가 율곡 이이다. 이 두 학파의 학문적 관점에 의한 리의 파악이나 혹은 산수문학적 특성은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상을 살펴볼 때, 이 리의 개념을 미학적으로 적용하면, 가치로서의 미, 진선미를 통합한 이념으로서의 미에 비견하여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학은 고전미학과 근대미학으로 나누어서 이야기 할 수 있으니, 고전미학은 인간

의 감각적 쾌의 감정과 긍정적 경험에 의하여 미의 문제를 논의한다. 곧 음악은 선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미술은 선과 색채가 이루어내는 형상의 아름다움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전자는 청각에, 후자는 시각에 호소하는 형식적 요소에 의하여 미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근대미학은 칸트에게서부터 비롯하는데, 고전미학이 감각적 느낌에 미의 완성을 의존한다면, 근대미학은 이 미를 인간의 판단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근대 이후의 미학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의한 이론적 개념으로 논리성에 의하여 그 완성도를 판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전미학은 형식미에 주목한다면, 근대미학은 그 형식 속에 내재된 혹은 형식을 초월한 이념에 대한 판단을 미의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념적 존재’로서의 미는, 단순한 감성적 직관이나 상상적 직관으로부터 나아가 우리의 고차적인 이성적 직관에 의한 미적 체험에서 도달한다.”²⁶¹⁾ 그래서 성리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이일의 리나 분수의 리는 현상에 내재하거나 현상을 초월해 있는 논리적 존재로서의 이상적 개념이므로, 근대미학에 말하는 판단으로서의 미의 개념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말은 이 이념으로서의 미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념적 존재로서의 미는 감각적 현상에 대한 우리의 感官的 知覺(sense-perception)을 초월한 존재이며, 분석적 반성적 논증적인 개념적 사유능력으로서의 오성(reason)의 한계를 넘어, 想像力(imagination)에 이끌려 무한한 것으로 향한 정신의 飛翔으로서 超感性的인 직관(intuition)으로서의 이성(intellect)의 차원에까지 도달해서, 마침내 가치이념으로서의 미를 발견하게 되고, 이 미의 이념과 만나게 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²⁶²⁾

따라서 이 미의 이념은 조선조 산수문학에서 형식미를 매개로 한 내용미로 형상화된다. 또 예술형식 속에서 그 미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리는 태극도설의 두 번째 단계에서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니, 곧

261) 백기수, 『미의사색』,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24쪽.

262) 백기수, 위의 책, 1986, 26쪽.

이기이다. 달리 말하면, 음기와 양기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개념도 추상적인 논리적 개념이다. 단지, 연구자가 인간과 대자연에 대하여 그 현상적 모습 속에서 음과 양으로 나누어 그 특징적 모습을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는 리에 비하여 훨씬 물질적 관점에서 어떤 현상적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 퇴계의 천명도설에서 이 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사계절에서 음의 계절은 겨울이며, 양의 계절은 여름이다. 그러나 겨울이라고 하여 양의 기운이 없는 것이 아니며, 여름이라고 하여 음의 기운이 없는 것이 아니니, 겨울에도 따뜻한 기운이 있고, 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존재한다. 따라서 겨울의 양지와 여름의 음지가 있으니, 사람들은 각각 계절적 특성에 맞추어 음의 계절인 겨울에 양지를 찾고, 양의 계절인 여름에 음지를 찾아 음양을 상보적 관계에서 이해하고 생활에 활용하여 음양의 균형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양은 순환하며 리는 그 음양의 순환에 깃들여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다음 세 번째 단계로, 음양은 오행으로 나누어지니, 수화목금토가 그것이다. 수화목금은 상호의존하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하며, 상보적이기도 하고, 대립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두 토에 의하여 통합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물과 사물은 이 수화목금토의 조합의 정도에 의하여 외형적 현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문동의 묵죽화에서 미학적으로 승화되었다. 문동의 묵죽은 대나무의 솟는 줄기가 꺾기어 옆으로 뻗어나는 작은 줄기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다. 이 대나무를 문동은 관아의 한켠에서 보았는데, 대나무가 어린 죽순일 때 냉해를 입어 그 가운데 줄기가 죽어버리자 그 기운이 작은 줄기를 통해 옆으로 퍼져 키는 작으나 무성한 숲을 이루었다. 이러한 외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음양의 기운은 대나무의 자생력인 것이다. 곧 가운데 줄기가 외부의 영향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내부로부터 솟아나는 자생력이 옆으로 퍼져 무성한 숲을 이루며 자신의 삶을 가꾸게 된 것이다.

이것을 유학적으로 설명하면, 음양의 이기가 오행의 발현으로 죽순으로 뭉쳐져 솟아났으나, 외부 환경에 의하여 그 외형이 변형되게 되자 오히려 더 왕성한 자생력을 펼쳐나가게 된 것이니, 비록 현상적 모습은 보편적 대나무와 다를지라도 그 속에서 표현된 자생력을 통하여 리의 세계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문동이 묵죽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미의 세계요, 원리로서 리의 세계에 대한 감동을 묵죽화라는 예술작품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 이념의 미, 특히 자연의 미에 대하여 백기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는 서양의 풍경화의 경우와 같이, 아름다운 자연을 모델로 해서 이를 모방한다거나 혹은 이상화 내지 추상화해서 새로운 예술미를 산출하게 된다는 감각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연과 예술에 공통된 조화의 리에 따라 묘사된 자연의 미를 자연 그 자체의 미와 동일한 것으로서 완상(翫賞)하고, 여기에서 자연의 도를 인식하게 된다는 정신적 차원에서의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미와 예술미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의를 갖게 되며, 인간과 자연과의 사이에 그 매체(媒體) 내지는 통로로서 예술미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중략) 이런 의미에서 자연은 예술적인 미의 발견의 장이기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⁶³⁾

따라서 산수시가도 대자연의 경물과 인물, 그리고 여러 현상적 모습과 사물들을 형상화한 예술작품이니, 성리학이라는 철학 속에서 미학적 이론을 도출해냄으로써 문동의 묵죽화를 감상하는 것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그 연구가 이루어질 때 산수미학의 관점에서의 연구가 매우 의미 있고 학술사적으로 창의적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 분명하다.

네 번째 단계는 인물에 관한 것이다. 곧, 남녀라는 인간존재와 사람이라고 하는 사회적 동물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사람은 기 가운데서도 가장 빼어난 기를 가지고 태어난 위대한 존재이며, 그 가치는 삼라만상중에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으니, 위로는 리와 기와 음양오행을 지혜로서 파악하고 터득하며 깨달을 수 있고, 아래로는 모든 사물과 산수경물의 현상적 모습과 그 근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으니, 우주의 중심이며 만물의 수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산수시가 연구와 산수미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감상자의 미학적 관점을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감상자의 미학적 관점에 의하여 그 문학작품이 가진 형식미와 내용미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는 알 수 있는 보편적인 원

263) 백기수, 앞의 책, 1986, 75~76쪽.

리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작품의 예술미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사물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네 번째 단계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조 성리학은 퇴계에 이르러 한국철학이 완성되니, 퇴계학이라고 일컬어진다.

우리나라에는 유학이 유입된 지 매우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그 활용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니, 신라 때 한국한문학의 비조로 일컬어지는 강수가 있었으며, 신라 말에는 최치원이 있어 그 찬연한 한문학의 세계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신라 때에는 독서삼품과를 통하여 유학적 소양에 의한 관리선발을 시행하였으며, 고려 광종 때에는 과거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로 이런 제도는 지속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유교적 이념에 의한 국가적 통치와 지도자 교육이 이루어졌으니, 유교국가로서의 진면목을 발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고려 말 안향에 의하여 주자학이 수입되었으니, 매우 혁신적인 학문적 발전과 독자적 이론의 수립이 가능하였고, 회재 이언적을 거쳐 퇴계에 이르러 드디어 한국철학이 완성되게 된다. 그래서 이 퇴계철학을 통하여 이기, 음양, 오행 등과 같은 개념이 근대미학적 관점에서 산수미학의 이론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고려 말 성리학은 정몽주, 권근, 정도전에 의하여 크게 세 가지 흐름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몽주는 절의에 의한 실천과 의리의 판단을 통해 이학의 중주로 받아들여지며 조선조 사림과 그 이후의 성리학사에 있어 도학으로 받아들여지며 주된 흐름을 형성하여 전통을 확립하였다. 권근은 입학도설로 대표되는 성리학의 학문적 연구에 업적을 남겼으니, 이후 이론철학의 흐름을 형성하였으며, 비록 학맥과 도통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의 학문적 업적은 존중되었다. 이들에 반해 정도전은 그 유학적 사고와 학문적 이론이 통치이념으로 형상화되어 조선 초기 국가의 유학적 이념과 편재, 그리고 관리의 등용과 국가운영 등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였으니, 경세학의 가장 표본이 되는 한 인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선 초기에는 유학의 목적이 과거를 통한 관리로서 국가통치의 일익을 담당하여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이런 흐름이 조선조 말엽까지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은 조선 초기 경세학에 목적을 둔 관리

들의 공적이라고 할 것이다.

정도전 이후 경제학에 업적을 남긴 인물로 하륜, 황희, 맹사성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다. 이들은 성리학에 관한 학문적 업적으로서의 서적이거나 이론을 체계화 하는데는 다소 그 업적이 뚜렷하지 않으나, 경제학의 실천으로서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의 삶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끌어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그 끼친 공헌은 역사상에서 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유학적 이상은 경제학의 실천에 최선과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고 현실에 구현하였다. 그 결과 그들이 노년에 이르러 명예로운 퇴진 이후에 초어야 문혀 한가로운 삶을 즐기며 국가의 은혜와 자신의 인생을 기쁘게 노래하였으니, 그들이 산수를 노래하며 인생을 즐기며 있어 현상적 삶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원리와 이상의 즐거움에 근원을 내재하고 있으니, 곧 궁국의 리에 의한 자기 인생의 가치와 의의에 대하여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는 조선초기 경제학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 치사의 즐거움과 인생의 만족감을 산수 속에서 산수경물을 매개로 형상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경제학 이후 조선의 성리학은 절의를 매우 중요시 여겼으니, 단종의 선위와 세조찬위의 과정 속에서 사육신으로 대표되는 절의파를 탄생시켰다. 절의파는 개인의 이익이나 영달보다는 유교적 가치로서의 신의, 충, 효 등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 이런 가치를 이론적 지식에 의한 인식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실천을 통하여 그 가치를 증명해보이고자 하였으니, ‘얹’에 대한 영역과 개념적 정의에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였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이 절의파는 연산군 이후 사회를 통하여 사림들의 절의와 연결되니, 사림파는 곧 이 절의파의 유교적 가치를 수용하고 공고히 한 개혁적 선비들의 집단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림파는 성리학을 학리적으로 매우 깊이 연구하여 학문적 업적을 남기고 한국철학 완성과 저변 확대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래서 사림파는 절의파에 비하여 도학파라고도 일컬어지며 이론철학적으로 성리학이라고 한다면, 도학은 이론을 반드시 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증명될 때 ‘얹’이 완성되어진다는 학문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점이 매우 특징적이며 산수문학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니, 경제학파의 치사에 비하여 도학파의 은거가 가지는 문학사적 큰 의의이며, 중대한 문학적 변용에 해당된다. 이런 도학파의 대표적 인물로 회재 이언적과 퇴계

이황을 들 수가 있다.

특히 퇴계 이황의 천명도설은 한국철학의 완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며, 특징적 요소를 분명히 하고 있으니, 그 핵심은 심성론에 있다고 할 것이다. 곧 심성론은 인간의 선악의 유래가 어디에 있으며, 인간 행위의 결과가 선악을 비판함으로써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신념 속에서 학문적 설득과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퇴계는 인간의 마음을 체와 용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런 방법은 퇴계가 리를 설명함에 있어 분석적으로 파악하기도 하며, 또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도 하는 분개와 혼륜의 관점을 동시에 사용하여 그 전체적 원리와 현상적 근원을 파악하고자 한 통합의 학문적 관점과 동일하다. 곧 인간의 마음을 미발과 이발로 나누어 설명하니, 미발은 어떤 사물을 대하기 이전에 원래의 마음으로서 체라고 하고, 이발은 사물을 대하여 이미 겉으로 드러난 마음으로서 용이라고 하였다. 체는 사단이 있으니, 존양하여야 하며, 용은 칠정이 있으니 성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체는 순수 그 자체이므로 항상 존양하여 잘 가꾸어야 한다. 그런데 용은 그 마음이 발할 즈음에 이기의 작용으로 선하기도 하고 혹은 악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 발할 즈음의 기미를 잘 살펴 선한 마음이 발하도록 항상 성찰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단은 인의예지인이니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칠정에 의존하여 그 사단이 드러날 뿐이다. 칠정은 현상적 마음의 표현이니, 반드시 성찰하여 선의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마음의 체와 용을 존양하고 성찰하는 철학적 방법으로 퇴계는 경을 제시하였다.

경과 궁리를 세분하여 논하면 거경은 존양성찰(存養省察)이며 궁리는 격물치지(格物致知)로 나눌 수 있다. 궁리는 격물을 통하여 치지에 이르는 이론철학의 학문방법이며, 격물이란 “물에 격한다” 혹은 “물에 나아가 격한다”로 설명되어진다. 이 때 물이란 산수경물과 인간을 포함한 대자연을 의미하며, 격물이란 대자연의 현상을 통하여 그 현상의 근원인 필연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궁극의 원리를 탐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지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격물을 통한 대자연의 원리로서의 궁극의 진리를 파악하고 터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궁리란 대자연의 현상을 통한 우주적 진리나 철리적 근원으로서의 리에 대한 터득과 깨달음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성리학의 성은 인간의 내면성을 그 대상으로 하며 리는 대자연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다음의 서술에서 퇴계의 경(敬)의 성

격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專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主一이며 敬인데, 특히 退溪는 敬은 聖學의 終始라는 程伊川의 말에 유의하고 敬이 아니면 학문이 성취될 서 없다고 敬을 心學의 중요한 방법으로 파악한다. (중략) 形而下學으로부터 形而上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修己의 學으로부터 治人の 學에 이르기까지 敬은 그 추구의 要諦가 된다. 따라서 退溪는 敬을 把持하는 <持敬>을 專一하게 하면 心學의 原頭인 中道에 이르게 되고 理氣를 兼하고 性情을 統一하는 心을 완전하게 파악하게 되어 至善을 실현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중략) 退溪의 心學은 敬의 心學이요, 心體의 存養과 心用의 省察을 겸한 精一 執中の 心學이다. 또한 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의 心學은 精一 執中の 聖學이요, 또한 心體를 保存하고 心用을 응용하는 心法의 心學이다.²⁶⁴⁾

따라서 퇴계에게 경은 인격을 수양하는 기반이자 마음을 마르게 하는 바탕이 된다. 나아가 퇴계는 산수경물의 감상과 형상화에 있어 서정과 서경 그리고 감정과 이치의 문제를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퇴계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학문의 출발점은 종합에 의한 결과의 도달에 이르기까지 매우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산수문학에서 산수경물의 현상적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을 사실적 서경미로 형상화하면서 그 이면에는 철학적 내용미가 미적 이념으로 융화되어 함축되어 있으므로 각각 작품 속의 의상은 그 종합적 결합에 의하여 도를 표상하는 철리적 의경을 시세계로 창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생각할 때, 이념으로서의 미는 이상가치의 일환으로 하위개념의 진선미를 포괄하고 통합한다.

미는 흔히 진이나 선과 아울러 정신적인 이상가치의 일환을 이룬다. 즉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이 관여하고, 실현하고자 생각하는 가치, 추상이면서 그것에서 머물지 않고, 동시에 감성을 초월한 심원한 정신적 의의를 개시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미와 진에는 공통점이 있다. 원래 미의 가치를

264) 김길환, 『조선조유학사상연구』, 일지사, 1980, 79~80쪽.

실현하고, 인생에 특수한 충실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미적 정관의 태도이지만, 정관적 태도에 의하여 실현되는 가치는 자세하게 말하면 미만은 아니다. 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관적 태도 그것에는 미적 의미의 것과 이론적 의미의 것으로 두 종류가 구별되게 된다. 정관적 태도에 대립하는 것은 실천적 태도이다.²⁶⁵⁾

이상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치로서의 미, 또는 이념으로서의 미와 산수미와의 관계에 대하여 손오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산수는 문학과 예술의 소재로서 미감을 느끼게 하는 자연물이나 자연 그 자체를 지칭한다. 즉 사람의 인식 대상으로, 이념이나 사상이 투영된 주관적 아름다움을 표상한다. 따라서 산수는 정신적 아름다움을 내재하는 예술적 대상을 의미한다. (중략) 미는 일차적으로 객관적 실재라는 것이 본질이며, 정신적 이념에 속하는 것은 이차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미란 어디까지나 사람에 의해 인식되어지는 가치로서의 정신적 이념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곧 미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연실미라는 것은 이차적인 것이며, 정신적 이념이 본질적이며 근원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미에 대한 논의의 학문영역은 미학인데, 미학은 철학의 한 분야에 속한다. 그래서 미학이 독립적 학문영역으로 분리되기 이전까지는, 철학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미의 모든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근대에 이르러 철학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 영역을 개척하였다.

그러므로 고전미학은 온전히 철학의 한 지류요 가지였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철학적 관점과 학문적 특성에 의하여 미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이다. 한국고전문학연구의 미학적 접근을 위해서는 미학적 이론과 학문적 체계가 필요하다. ²⁶⁶⁾

이상에서 논의한 조선조 산수시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념으로서의 미를 지향

265) 목번순삼 저, 강손근 역, 『미와 예술의 논리』, 집문당, 1995, 81쪽.

266) 손오규, 『조선조 사림과 산수문학』, 부산대학교출판부, 2020, 서론 1~2쪽.

한다는 점이랄 할 것이다. 이념의 미는 진·선·미를 초월한 최고의 가치로서의 미이며 정신적 이상을 추구하는 미이다. 조선조 산수문학의 양상이 시대별 작가의 전형적 특징이라면, 이 특징을 잇고 묶어 하나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함은, 결국 한국 산수시가의 미적 특질을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정신적 가치로서의 미이며, 우리는 산수시가의 흐름 속에서 그 가치를 발견해 볼 수 있다.

VIII. 結 論

한국문학사에서 산수시가는 중국 사령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후 많은 시조와 가사 작품을 산출했으며 높은 시가예술적 경계(境界)를 개척하였다.

한국의 산수시가를 역사사회학적 관점으로 살펴볼 때, 중국과 동일한 문예사조의 전통 속에서 한국문학화 되었다는 점은 한국의 산수문학이 단순히 우리 민족에 국한된 문학적 현상이 아니라, 동양문학의 보편성에 동참하여 창작되었다는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다. 산수문학은 보편의 예술형식 속에서 극대화되어 독자적인 문학양식으로 확립되었다.

산수시가는 자연에 대한 한국인의 미감과 미에 대한 인식의 영역을 하나의 의상(意象, image)으로 형상화한 문학이다. 산수시가에서의 ‘산수(山水)’는 ‘산(山)’과 ‘물(水)’로 대유되는 ‘자연(自然)’, 산과 물, 바위와 나무 같은 산수경물(自然景物)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더 나아가 이 자연경물의 아름다움(美)을 노래한다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문학세계에서 자연물을 대상으로 작가의 미감(美感)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때 자연경물의 현상적(現象的) 아름다움(美)이 산수문학에서 형식미(形式美)이며, 작가 개인의 미감은 작품에서 서정(抒情)의 영역으로 형상화된다.

산수는 대자연(大自然)이라고 하는 우주적(宇宙的) 존재로 산수경물이 결합되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산수관(山水觀)은 곧 세계관이기도 하고, 미의 세계의 원리가 함축되어 있는 독립적 존재이며 미적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수시가의 중요한 전제 조건은 유학(儒學)이 배경사상이라는 점이다. 조선시대에는 유학과 성리학(性理學)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니, 산수시가는 성리학적 미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그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미와 철학의 관계 속에서 성리학은 철학의 한 계통이며, 미학은 독립된 철학의 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조선조 시대 산수문학을 연구는 조선조 사대부 계층의 성리학적 배경과 그 안의 미학적 인식의 개념을 발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조선조 산수문학을 단순히 유학자의 문학으로 넓은 범위에서 분류하던 것을 각 작가 개인의 개성을 발굴함으로써 산수시가의 흐름 위에서 문학의 다양성과 개인의 독창성, 창의성을 발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조 산수문학의 획일적인 해석을 넘어 세부적인 장르와 시대별 구분을 통해 산수문학의 큰 흐름 속에서 산수문학의 다양성을 찾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산수시가의 전개와 양상을 포착하는 과정이다. 한국문학에서 조선시대 산수시가의 향유층에는 오랜 역사 속에 철학적 유파가 존재하였으며, 다양한 시기별 변모의 양상을 보였다. 초기 유학자의 경세학(經世學)에서 중기의 수양론적(修養論的) 성리학(性理學), 임병양란(壬丙兩亂) 이후의 실학(實學)으로 이어졌으며, 이론과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경세학과(經世學派)와 사장과(詞章派), 도학과(道學派)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사회기 이후 절의파(節義派)의 대두와 사림파(士林派)의 등장으로 유학적 이념에 따라 많은 유파들이 존재하였다. 유학자들의 산수시가 작품도 성리학이라는 보편성 위에 다양한 미감과 개성적 세계를 펼쳐 나갔다.

그러므로 조선조 산수문학의 개성적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산수문학 전개라는 통시적 연구방법뿐만 아니라 공시적 연구방법을 통해 작품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조선조 대표적인 작가의 문학세계를 정리함으로써 그 시기의 산수문학의 일반적 특징과 전형성, 각 시대의 문학사적인 연속성과 흐름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의 방법으로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조에 이르는 한국 사상사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산수문학에서 한국 사상사는 곧 한국 성리학의 역사를 의미한다. 이때의 한국 성리학은 우리가 유학을 수용하고 정리하여 한국철학으로 정립한 유학이다. 조선조 유학 사상 사회계층적인 흐름은 신진사대부에서 사림으로, 철학적으로는 이론철학에서 실천철학으로 발전해왔다. 산수문학은 이와 같은 사상적 흐름을 배경으로 하여, 미학적 개념을 발견해내고 입론화한 것이다. 특히 산수문학은 정신적 가치로서의 내용미(內容美)가 미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념으로서의 미, 가치로서의 미에 대한 작가 개인의 개념적 분석이 달라진다.

한국의 산수시가는 고려시대 유학의 도입 이후 태동되어 조선조 사대부 계층에 의해 완비된 문학적 흐름이다. 사대부들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정치적 관점이

나 학문의 입장, 계층적 특수성, 가문 의식, 관리로서의 책무 등에 의하여 다양한 삶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문학작품도 산수문학을 노래하게 된 동기나 상황에 따라 다른 성향의 미감과 미의 세계가 표현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조선시대 산수시가는 시기별로 전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기존 조선시대 산수시가 연구는 산수시가를 크게 유학자의 문학으로 보고 그 속에서 자연미의 발견이나 당쟁하의 명철보신과 치사객의 한적, 안빈낙도 등 산수문학을 큰 한 덩어리로 보고 추상적으로 개념 지으려 한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산수시가는 긴 문학사를 가지고 있을뿐더러 작가 개인의 변용의 양상과 개성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수시가에 대한 추상적 개념정리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문학현상에 대한 미적 특질을 발견해 볼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유학자들의 학문적 관점이나 삶의 시대적 공통점 등의 이유에 대하여 문학세계의 유사성과 보편성의 공유를 전형화하여 각각의 특징으로 분류해 보았으니,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조 산수시가는 성리학의 발달과 더불어 높은 예술적 경계를 개척하였다. 성리학은 중국 북송 때 완성된 신유학으로, 주자에 이르러 독창적 학문적 체계를 완성하였으니, 정주학이라고도 일컫는다. 특히 주자는 전대의 학문을 집대성하여 자신의 학문적 입장과 연구의 결과를 체계화하였으니, 주자학이라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고려 말 안향에 의하여 주자학이 도입된 이래 이식기를 거쳐 고려 말에 이르러 착근기를 맞이하고 조선 건국으로 통치이념으로 새로운 국가적 질서와 가치관을 수립하게 된다. 즉,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창업세력들의 의해 유교적 관료사회 건설과, 왕권과 실권의 조화, 불씨잡변으로 대표되는 유교적 세계관으로의 변혁 등으로 유교적 이념은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성리학은 유교의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제시한 조선조 사회의 기반을 형성한 사상적 배경이요, 문화환경으로 산수시가에 미친 영향 또한 지대하다.

둘째, 치사귀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화기를 거치면서 팽창히 관료된 사회에서 상당히 영광되고 이상향인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맹사성, 정극인, 이현보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조선조 사림중심 성리학적 문학사상에 의해 조선초를 지나면서 부화(富華)하고 화려한 수사에서 벗어나, 이념적 표상을 형상화하는 기풍을 형성하고 진작·발전시켰다.

맹사성과 이현보의 경우가 정치현실에서 벗어나 산수에 은거하였으나, 그 시가 문학작품은 자기위안적 현실초탈의 이상세계를 지향하였다면, 정극인의 경우는 도학자로서 학문연구와 실천을 우선하였으니, 곧 독선산림에 의한 수양형으로 현실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사실적 산수미(山水美)와 서정(抒情)으로서의 산수락(山水樂)을 형상화하였다.

셋째, 김광옥의 「울리유곡」에 형상화된 산수은거와 산수유상을 통한 산수락은 탈속적이지만 인간의 세상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은거의 공간이 세속과 떨어져 있지만 단절되어 있지도 않다. 그 뿐만 아니라 시적 자아는 세속적 욕망과 명예로부터 멀어졌으나 인간이 가진 적절한 욕망이 오히려 산수은거의 삶을 평화롭고 아름다우며 만족스럽게 만든다.

따라서 권호문의 시세계와 비교해 볼 때 김광옥의 「울리유곡」은 동일한 처사문학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울리유곡」이 훨씬 더 반문명적이며 자연친화적이고 탈속적인 시세계를 형상화하였다고 할 것이다. 매우 특징있는 처사문학의 한 갈래라 하겠다.

넷째, 현실초탈적인 성격이 짙은 장현광의 산수락에 비하여 노계의 전원락은 하나의 삶의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계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산수속에서 선비의 은거를 자신의 이상으로 삼고 학문수양을 은거의 지향점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현실과 이상이 잘 결합되어 있는 산수락의 하나의 변용이라는 점에서 산수문학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곧 산수관의 근대적 큰 전환점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다섯째, 윤선도는 현실지향의 의식과 이상지향의 이상이 공존하여 때로는 상충하는 갈등과 빈민적 요소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이 의도적 원림조성에 의하여 스스로 그 갈등을 조정하고 초월하여 의식적 만족과 개인적 이상달성의 목표를 성취하였다. 곧 이상지향의 유희적 산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조선시대 산수시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념으로서의 미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념의 미는 진·선·미를 초월한 최고의 가치로서의 미이며 정신적 이상을 추구하는 미이다. 조선시대 산수시가의 양상이 시대별 작가의 전형적 특징이라면, 이 특징을 잇고 묶어 하나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함은, 결국 한국 산수시가의 미적 특질을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정신적 가치

로서의 미이며, 우리는 산수시가의 흐름 속에서 그 가치를 발견해 볼 수 있다.

참고 논저

1. 자료

『古文眞寶』
『孤山遺稿』
『蘆溪集』
『龔巖集』
『書經』
『不憂軒集』
『仙石遺稿』
『松巖集』
『朝鮮王朝實錄』
『周易』
『竹所集』
『退溪集』
『韓國近代邑誌』
『晦齋集』

2. 저서

M, H. 아브람스 지음, 최상규 옮김, 『문학용어사전』, 보성출판사, 1998.
농암선생문집국역간행위원회, 國譯 『龔巖先生文集』, 상원사, 1986.
고미숙, 『윤선도 평전』, 한겨레출판, 2006.
권혁웅, 『시론』, 문학동네, 2019.
권호문 저, 안정 역, 『송암집』 1,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16.
권호문 저, 안정·권영락 역, 『송암집』 2,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16.
금장태, 『퇴계학과의 사상1』, 집문당, 2001.
김길환, 『조선조유학사상연구』, 일지사, 1980.

- 김열규 외,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 김창원, 『강호시가의 미학적 탐구-송순에서 신흠까지』, 보고사, 2004.
- 김태환, 『시가미학원리』, 제이앤씨, 2013.
- 김홍규, 『욕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 김홍규 외 6인 편저, 『고시조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 류승국, 『한국유학사』, 유교문화연구소, 2009.
- 馬華·陳正宏 共著, 姜炅範·千賢耕 共譯, 『중국은사문화』, 동문선, 1997.
- 목번순삼 저, 강순근 역, 『미와 예술의 논리』, 집문당, 1995.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퇴계집(退溪集) I』, 경인문화사, 1966.
- 민주식 외 4인, 『동아시아 문화와 한국인의 감성』,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 박규홍, 『어부가의 변별적 자질과 전승양상』, 보고사, 2011.
- 白琪洙, 『美의 思索』,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 손오규, 『산수문학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 _____,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 _____, 『퇴계시와 미학』, 제주대학교출판부, 2012.
- _____, 『조선조 士林과 산수문학』,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 선주문화연구소 편, 『여헌 장현광의 학문과 사상』, 금오공과대학교 선주문화연구소, 1996.
- 沈載完 編著, 『古時調千首選』, 螢雪出版社, 1969.
- 安東文化研究所 編, 『龔巖 李賢輔의 文學과 思想』, 安東大學校, 1992.
- 유천근 글, 김복영 사진, 『퇴계선생과 도산서원』, 지식산업사, 1999.
- 윤곤강, 『고산가집』, 학우사, 1948.
- 윤선도, 『孤山遺稿』4, 이상현, 이승현 역주, 한국고전번역원, 2015.
- 윤성근, 『윤선도 작품집』, 형설출판사, 1977.
- 이동영,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 螢雪出版社, 1984.
- 이민홍, 『사립과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7.
- 李相殷 監修,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92.
- 이상은, 『퇴계의 생애와 학문』, 서문당, 1984.

- 李性源, 『龔巖 李賢輔의 文學과 思想』, 安東大學校, 1992.
- 이재수, 『운고산 연구』, 학우사, 1955.
- 이황 지음, 이장우·장세후 옮김, 『도산잡영』, 을유문화사, 2005.
- 袁行霈 著, 七人 共譯, 『中國詩歌藝術研究』, 亞細亞文化社, 1990.
- 정동오, 『동양조경문화사』,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6.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 지식문화사, 2005
- 조윤제, 『朝鮮詩歌史綱』, 東光堂書店, 1937.
- _____, 『韓國文學史』, 探求堂, 1978.
- 주량즈 지음, 신원봉 옮김, 『미학으로 동양인문학을 꿰뚫다』, 알마, 2015.
- 朱熹 著, 成元慶 譯, 『近思錄』, 明文堂, 1989.
- 柳正東, 『퇴계의 생애와 사상』, 博英社, 1974.
- 최진원,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1.
- _____, 『韓國古典詩歌의 形象性』,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8.
-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 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 한국시조학회 편,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 허남춘, 『古典詩歌와 歌樂의 傳統』, 월인, 1999.
- _____, 『황조가에서 청산별곡 너머』, 보고사, 2010.

3. 논문

- 계영경, 「조선전기 문론과 그 실천 양상 연구-도학(道學)적 문론과 그 실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고명신, 「율곡 시의 주제 영역과 미학적 특징」,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 고정희, 「17세기 전가시조의 서정적 리얼리티에 관한 연구」, 『한국문학연구』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 권순희, 「<율리유곡>의 창작 기반과 시적 지향」, 『우리문학연구』12, 우리문학회, 1999, 168쪽. 김학성, 「시조의 텍스트 파생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 권정은, 「문답형 자연시조의 유형과 존재 의의」, 『국어국문학』144, 국어국문학회, 2006.
- _____, 「유거(幽居)와 탐승(探勝), 자연미의 상보적 기반」, 『고전문학과교육』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 _____, 「조선후기 변이형 자연시조의 미적 경계」, 『한국학』2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김광조, 「松巖 權好文의 詩歌文學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김대행, 「<漁父四時詞>의 외연과 내포」, 『고산연구』창간호, 고산연구회, 1987.
- 김명준, 「<江湖四時歌>의 창작 시기와 세계상」, 『한국시가문화연구』15, 한국시가문화학회, 2005.
- 김병국, 「松巖 權好文 시가의 미적 특질」, 『한국시가연구』19, 한국시가학회, 2005.
- _____, 「松巖 權好文의 <獨樂八曲> 研究」, 『한국사상과 문화』3,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 김상진, 「朝鮮 中期 연시조의 研究 :四時歌系, 五倫歌系, 六歌系 作品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_____, 「신계영의 <전원사시가> 고찰」, 『시조학논총』24, 한국시조학회, 2006.
- _____, 「松巖 權好文의 <閑居十八曲>과 문학치료」, 『한국시가연구』22, 한국시가학회, 2007.
- _____, 「조선조 연시조의 발전과 수용 양상-六歌系 연시조의 수용을 중심으로-」, 『시조학논총』40, 한국시조학회, 2014.
- _____, 「사시가계 시조의 맥락과 노랫사의 <사계>-맹사성의 <강호사시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조학논총』48, 한국시조학회, 2018.
- 김성문, 「16世紀 士大夫 時調에 나타난 性理學과 自然認識 樣相」, 『어문론집』44, 중앙어문학회, 2010.
- _____, 「時調의 文體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_____, 「時調의 文體美 一考-內容의 側面을 中心으로-」, 『시조학논총』37, 한국시조학회, 2012.
- 김성은, 「노계 박인로 가사의 공간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김주석, 「『고산유고』 소재 시조(時調)의 구조(句調) 통계 및 분석」, 『時調學論叢』 41, 한국시조학회, 2014.
- 김주순, 「윤선도(尹善道)의 자연시가(自然詩歌)와 도연명(陶淵明) 시(詩)의 비교문학적 고찰」, 『東方漢文學』 38, 동방한문학회, 2009.
- 김재홍, 「윤선도 시의 형성 동인-미의식과 권력의지의 변증법-」, 『宜民李杜鉉博士回甲記念論文集』, 학연사, 1984.
- 김창원, 「조선후기 근기 지역 강호시가의 지역성」, 『시조학논총』28, 한국시조학회, 2006.
- 김충희, 「晦齋 李彦迪의 詩文學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2019.
- 김학성, 「고산 윤선도 시조의 미적 성취와 그 가치」, 『어문연구』3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 김현정, 「강호시조에 나타난 ‘벗’의 유형과 공간성의 관계」, 『겨래어문학』44, 겨래어문학회, 2010.
- 김훈식, 「朝鮮初期의 정치적 변화와 士林派의 등장」, 『한국학논집』 4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 나정순, 「조선 전기 강호 시조의 전개 국면-‘조월경운’과 ‘치군택민’의 개념을 중심으로」, 『시조학논총』29, 한국시조학회, 2008.
- 류해춘, 「산수시조에 나타난 여가활동 양상」, 『시조학논총』31, 한국시조학회, 2009.
- 박상영, 「‘부재’를 중심으로 살펴 본 고산 시조의 미학적 특질」, 『어문론총』59,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
- 박영주, 「강호시가에 형성된 ‘풍월주인’과 생태적 상상력」, 『한국시가연구』43, 한국시가학회, 2017.
- _____, 「사대부 가사의 전환점에 위치한 노계 박인로」, 『오늘의 가사문학』17, 한국가사문학관, 2018
- 박이정, 「17세기 전반기 가사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박해남, 「〈樂章歌詞本 漁父歌〉 再考」, 『반교어문연구』28, 반교어문학회, 2010.
- 박현숙, 「박인로의 <누항사> 연구」, 『국어국문학』157, 국어국문학회, 2011.

- 성기옥, 「孤山 詩歌에 나타난 자연 인식의 기본틀」, 『고산연구』 창간호, 고산연구회, 1987.
- _____, 「<도산십이곡>의 재해석」, 『진단학보』 91, 진단학회, 2001.
- _____,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 『한국시가연구』11, 한국시가학회, 2002.
- 成昊慶, 「龔巖 李賢輔의 삶과 시가」, 『진단학보』93, 진단학회, 2002.
- _____, 「朴仁老의 <蘆溪歌> 창작 배경 탐색-慶州市 山內面 大賢里의 ‘大賢洞口’ 일대-」, 『고전문학연구』51, 한국고전문학회, 2017.
- 손오규, 「퇴계의 산수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_____, 「退溪詩의 空間認識과 山水觀」, 『퇴계학논총』30, 퇴계학부산연구원, 2017.
- 손장수, 「蘆溪 朴仁老의 詩文에 드러난 典故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송팔성, 「四時歌의 自然觀과 時間 認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신두환, 「龔巖 李賢輔의 詩歌에 나타난 ‘拙樸’의 문예미학」, 『대동한문학』34, 대동한문학회, 2011.
- 신연우, 「<陶山十二曲>에의 미학적 접근」, 『고전문학연구』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 양희찬, 「李賢輔 <漁父歌>에 담긴 두 現實에 대한 認識構造」, 『시조학논총』19, 한국시조학회, 2003.
- 여기현, 「어부가의 표상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오선주, 「蘆溪의 ‘代作/命作’ 속 개별 의식 試考-「立巖二十九曲」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87, 한국언어학회, 2013.
- 유육례, 「고산 윤선도의 시에 관한 생태학적 접근-「山中新曲」의 <五友歌>와 <漫興>을 중심으로-」, 『온지논총』42, 온지학회, 2015.
- 이미정, 「강호시조에 나타난 나무의 표상적 의미」, 『한국시가문화연구』36, 한국시가문화학회, 2015.
- 이민홍, 「山水와 時調學, 그리고 性情美學」, 『시조학논총』31, 한국시조학회, 2009.
- 이상보, 「박인로론」, 한국시조학회 편,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 이상원, 「윤선도의 금쇄동 경영과 <산중신곡>」, 『한국고전연구』3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 이성혁, 「윤선도 시조에 대한 미학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영춘, 「孤山 尹善道の 학문과 예론」, 『국학연구』9, 한국국학진흥원, 2006.
- 이종문, 「蘆溪 朴仁老의 社會的 位相에 대한 再檢討」, 『어문논집』82, 민족어문학회, 2018.
- 이종호, 「퇴계 이황의 자연미 수용과 산수미학」, 『영남학』41, 퇴계연구소, 2007.
- 이찬욱, 「退溪와 南冥 時調의 自然認識 樣相」, 『시조학논총』 18, 한국시조학회, 2002.
- 임주탁, 「조선시대 사족층의 시조와 일상성 담론」, 『한국시가연구』29, 한국시가학회, 2010.
- 장도규, 「이언적 시문학의 도학적 특징」, 『국제언어문학』 15, 국제언어문학회, 2007.
- 장명덕, 「윤고산 문학 연구-풍요의 미학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전일환, 「고산 윤선도 국문시가의 수사미학」, 『한국시가문화연구』11, 한국고시가학회, 2003.
- 정우봉,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미발굴 작품에 관한 연구」, 『古典文學研究』 50, 한국고전문학회, 2016.
- 조기영, 「고전시가에 나타난 한국인의 자연관」, 『연민학지』, 연민학회, 1997.
- 조남욱, 「儒家에서 지향하는 ‘즐김(樂)의 경지’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28, 한국유교학회, 2007.
- 조동일, 「가사의 장르규정」, 『어문학』 22, 한국어문학회, 1969.
- 조선영, 「가사문학에 나타난 유교이념과 그 표현미학 연구-사대부가사와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조유영, 「조선조 구곡가의 시가사적 전개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조하연, 「<산중신곡(山中新曲)>의 구조에 나타난 윤선도의 자의식」, 『고전문학과 교육』3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6.
- 추제협, 「성학(聖學)의 노래, 이황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공부론(工夫論)의

- 관점에서-, 『유교사상문화연구』76, 2019.
- 최동국, 「조선조 산수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_____, 「古詩歌의 山水自然과 寂寞의 美學」, 『인문학연구』3,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6.
- _____, 「조선조 산수시조의 수사적 특성」, 『시조학논총』25, 한국시조학회, 2006.
- 최상은, 「조선 가사문학의 시작, 최초의 은일가사 <상춘곡>」, 『오늘의 가사문학』6, 고요아침, 2015.
- 최재남, 「<독락팔곡>과 <한거십팔곡>의 정서적 연관」, 『한국문학논총』16, 한국문학회, 1995.
- 최진원, 「假漁翁- 漁父四時詞의 경우」, 『성균관대학교 논문집』5, 성균관대학교, 1960.
- _____, 「江湖歌道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4.
- 최현재, 「재지사족으로서의 박인로의 삶과 <누항사>」, 『국문학연구』9, 국문학회, 2003.
- _____, 「朴仁老 詩歌의 現實的 基盤과 文學的 指向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_____, 「權好文 詩歌의 情緒的 特徵과 文學史的 意義」, 『우리말글』35, 우리말글학회, 2005.
- 최홍원,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경험 세계의 교육적 구도와 지평」, 『시조학논총』49, 2018.
- 하상규, 「한국 자연시가에 끼친 도연명의 영향」,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한창훈, 「16세기 재지사림 강호시조의 양상과 전개」, 『시조학논총』22, 한국시조학회, 2005.
- 허남준, 「조선후기 예학과 실학, 그리고 詩樂 - 문체반정과 악풍반정 -」, 『반교어문연구』28, 반교어문학회, 2010.
- 허왕욱, 「<울리유곡>에 나타난 귀향 의식의 문학적 형상」, 『고전문학과 교육』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 홍원식, 「퇴계심학과 <심경부주>」, 『민족문화논총』3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

소, 2004.

황병익,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의 의미 재고(再考)Ⅱ」, 『한국학』36,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황위주, 「여헌 장현광의 삶과 문학」, 금오공과대학교 선주문화연구소 편, 『여헌 장현광의 학문과 사상』, 금오공과대학교 선주문화연구소, 1996.

<Abstract>

Development Pattern and Poetic Manifestation of the Sansu-Poetry in Chosun Dynasty

Ko, Seung-Gwa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Leading professor Sohn, O-Gyu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Sansu literature produced many poems and lyrics, and pioneered high poetry and artistic boundaries. The fact that Korean literature became Korean literature after its introduction from China was that it was established as a unique literary trend by maximizing itself in the universal art form of Oriental literature.

Sansu Literature is a literature that embodies the Korean sense of nature and the perception of beauty as an image. 'Sansu' in Sansu literature refers to 'nature' and natural scenery, which are roughly represented by 'mountain' and 'water', but also encompasses singing about the beauty of natural scenery. In the literary world, the artist's aesthetics are imaged for natural objects. At this time, the phenomenal beauty of natural landscapes is the formal beauty in landscape literature, and the individual aesthetics of the artist are embodied in the area of lyricism in the work. In addition, landscape painting is a cosmic existence called Mother Nature, and it also means the world itself, in which landscape landscapes are harmoniously combined. It is

said that the landscape view is also a world view, an independent being implied by the principles of beauty, and implies aesthetic ideology.

This study is the process of capturing the ‘development’ and ‘the aspect’ of the literary movement called ‘Sansu Literature’. An important prerequisite for Sansu literature is that studying abroad is a background thought. The Joseon Dynasty Sansu Literature forms the basis of the background of the aesthetic sense. Accordingly, it was necessary to discover the concept of the astrological background and the aesthetic perception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Joseon Dynasty.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the diversity of Sansu literature in the great flow of Sansu literature by discovering the individuality of each writer, rather than uniformly interpreting Joseon Dynasty literature as Confucian literature.

Confucianism in Korean literature continued from the early scholar’s economics to the mid-term conscientious theology, and the real science after Lim Byung-yang, and connected to the flows of the economics, the president, and the Taoist in theory and practice. In addition, the emergence of Jeonuiipa and Sarimpa after the period of Sahwahwa existed according to Confucian ideology. In order to discover the unique problems of the Joseon Dynasty Literature and Literature, which spread a variety of aesthetics and a unique world on top of universality, we examined the aspects of the work as a synchronic research method as well as the traditional research method of the development of Sansu literature. By examining the flow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thought history from the end of Goryeo to Joseon Dynasty, and the literary world of the representative authors of Joseon Dynasty, it was possible to grasp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ypicality of landscape literature and the context of literary history continuity and flow of each period.

The Sansu literature is divided into arithmetic time, arithmetic period, and arithmetic period in the lower genre. At this time, Sanshui City is an Sansu

literature composed of verses. The arithmetic period was created as a record of arithmetic excursions and has a travel literary character. Unlike the period of arithmetic, the period of arithmetic is not a real journey, but a genre with a strong personality of reporting and explanation. In this study, the main subjects of the study were Sijo and Lyric works, which are genres of pure Korean literature, among Sansu-si and Sansu-si. In addition, cChinese poetry of Sansu were also used as supporting data to serve as the basis for the study.

In this study, the similarities of the literary world and the sharing of universality were typicalized for the reasons such as the academic viewpoint of scholars and the commonalities of life, so that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Joseon Dynasty Sansu Literature pioneered a high artistic boundary with the development of theology. Since the introduction of runnership by the incense of the Goryeo Dynasty, Korea has reached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through transplantation, established a new national order and values as a ruling philosophy as the founding of Joseon, and historically Confucian ideology has been strengthened. Therefore, Confucianism was the ideological background that formed the foundation of the Joseon Dynasty society, which suggested a new academic trend of Confucianism, and had a profound influence on Sansu literature as a cultural environment.

Second, Chisaguieun was recognized as a very glorious and idealistic person in a very bureaucratic society through the period of narration. Maeng Sa-sung, Jeong Guk-in, and Lee Hyun-bo formed a spirit of ideological representation and promoted, developed and promoted by pursuing Joseon Dynasty through Salim-centered literary and ideological ideology. The desperation and Lee Hyun-Bo retired from the landscape, but if the poem aimed for a self-comforting real world beyond ideals, the positive man embodied a realistic landscape and a landscape as a lyricism based on a

realistic worldview in the form of a self-contained forest. Did.

Third, Hoe-jae's "Im Geo-sip-Oh-Young" embodies the natural law and harmony of nature through academic research and practice of Taoism. This is the object of honor and standardization by Toe-gye, leading to the creation of a poem with the same title by the Toe-gye's reign of the 'Im Geo-sip-Oh-Young' of Hoe-jae.

Fifth, the mountainous mercury through the gwangwook Kim's "Yul-ri-Yu-gok" and the mountainous luxuriation through the mountainous landscape are secular, but are not disconnected from the human world. The poetic ego is far from worldly desires and honors, but the proper desires of humans make life in peace, beautiful, and satisfying. Compared to Kwon Ho-moon's poetic world, the same range of jurisdiction literature, or 'Yul-ri-Yu-gok', embodied a much more counter-civilized, nature-friendly, and secular poetic world.

Sixth, No-gye's Jeon-won-locks are expressed as a space of life compared to the realistic surreal of Jang Hyun-gwang. In the mountain landscape as a living space, Roh Gye took the refusal of scholarship as an ideal and set academic discipline as a goal. This is very realistic, but it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is a transformation of a mountain landscape that combines reality and ideal. You can find a big modern turning point in the landscape.

Seventh, Yun Seon-do shows conflicting and annoying factors that conflict with reality-oriented consciousness and ideal-oriented ideals. However, the goal of achieving conscious satisfaction and personal ideal was achieved by transcending conflict with intentional gardening. It will be said to be "Eo-bu-sa-si-sa", and it will be said to shape the aesthetic landscape of the ideal.

The biggest characteristic of the Joseon Dynasty's Sansu literature discussed above is the aesthetic orientation as an ideology. The beauty of

ideology is the beauty of supreme value and the pursuit of mental ide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Sansu literature by arranging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the artists of each period as aspects of Joseon dynasty Sansu literature. The beauty of Joseon Dynasty Sansu literature is a beauty as a mental value, and we can find its value in the flow of Sansu literature.